

G

ROMANCE

O

Z

K

THRILLER

N

HISTORY FICTION

O

HORROR

C

MYSTERY

K

E

DRAMA

N

SF NOVEL

T



상상 그 이상의 스토리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
고즈낙이엔티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케이스릴러	20
미스터리	58
케이팩션	76
드라마	104
SF	118
영어덜트	132
사극로맨스	146
현대로맨스	158
호러블가든	168
단편소설집	174

본 카탈로그에 실린 작품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아이디어의 도용과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작품의 2차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문의는 고즈낙이엔티로 연락 바랍니다.

As the works introduced in this catalog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theft of ideas and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content are strictly prohibited.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use of the works, please contact GOZKNOCK ENT.



고즈넉이엔티 IP 주요성과

고즈넉이엔티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IP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작품이 영화, 드라마, 웹툰,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밀

케이스릴러 | 24p

피타팻스튜디오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국본

케이팩션 | 80p

아폴로스튜디오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기억 읽어주는 남자

케이스릴러 | 40p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WEB
TOON



연노운 피플

케이스릴러 | 41p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좁은 길

케이스릴러 | 35p

네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DRAMA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미스터리 | 64p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몬스터유니온 드라마 판권 계약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스토리마켓 선정

DRAMA



리볼브

케이스릴러 | 29p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직필

케이팩션 | 81p

래몽래인 드라마 판권 계약
부산국제영화제 Book to Film 선정

DRAMA



환

케이스릴러 | 30p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스토리마켓 선정

DRAMA



행복배틀

케이스릴러 | 28p

HB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방영
K스릴러 작가 공모전 당선

DRAMA



하인학교

미스터리 | 66p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비행엄마

케이스릴러 | 45p

K스릴러 작가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청계산장의 재판

케이스릴러 | 55p

미국 유니버설TV 옵션 계약
KOCCA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 Story to Film 선정

DRAMA



현장검증

케이스릴러 | 51p

영화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선정

FILM



여섯 번째 2월 29일

미스터리 | 71p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백넘버

미스터리 | 73p

드라마 판권 계약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대상 수상

DRAMA



이선동 클린센터

미스터리 | 72p

드라마 판권 계약
라이브 뮤지컬 제작
KOCCA 스토리 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

DRAMA MUSICAL



시스터

케이스릴러 | 48p

바른손 영화 판권 계약
2022 SIBF <다시, 이 책> 선정

FILM



아무도 돌보지 않은

케이스릴러 | 37p

위지웍스튜디오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DRAMA



찾고 싶다

케이스릴러 | 39p

래몽래인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DRAMA



피터 래빗 죽이기

미스터리 | 75p

영화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FILM



화성탈출

SF | 121p

JTBC스튜디오 드라마 판권 계약
문학나눔 도서 선정

DRAMA



한성부, 달 밝은 밤에

케이팩션 | 83p

드라마 판권 계약
SBA 한류문화콘텐츠 씨앗심기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한국문학번역원 안역원고지원사업 선정

DRAMA



우리 집에 엄마가 산다

드라마 | 114p

드라마 판권 계약

DRAMA



시크릿 허즈밴드

현대로맨스 | 162p

드라마 판권 계약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DRAMA

WEB TOON



먹고 마시고 자라

현대로맨스 | 163p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DRAMA



천일에 지는 밤

사극로맨스 | 152p

재담미디어 웹툰 제작

WEB TOON



태권브이와 시바견

현대로맨스 | 167p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WEB TOON



구사일생 로맨스

웹소설

투유드림 웹툰 제작
네이버 웹소설 정식연재

WEB TOON



용을 그리는 아이

사극로맨스 | 150p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판권 계약
투유드림 웹툰 계약

DRAMA

WEB TOON



사주팔자

사극로맨스 | 151p

드라마 판권 계약
테이크원컴퍼니 웹툰 제작

DRAMA

WEB TOON



별안간 아씨

사극로맨스 | 155p

드라마 판권 계약
재담미디어 웹툰 제작

DRAMA

WEB TOON



어쩌다 마주친 로맨스

웹소설

케나즈 웹툰 계약

WEB T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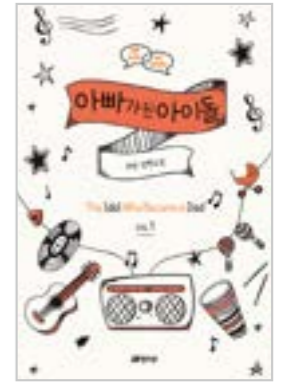


렉카 김재희

케이스릴러 | 27p

일본 ACROSS 웹툰 계약

WEB TOON



아빠가 된 아이들

현대로맨스 | 166p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WEB TOON



고즈닉이엔티

GLOBAL
Copyright

고즈닉이엔티의 뛰어난 작품
들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수출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 세계
인이 즐기는 글로벌 콘텐츠로
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배틀

케이스릴러 | 28p

대만 Spring International Publishers
태국 AMARIN
인도네시아 PT Gramedia
프랑스 Matin Calme
베트남 Kim Dong
러시아 AST



현장검증

케이스릴러 | 51p

프랑스 Matin Calme
인도네시아 PT Gramedia
대만 고보출판그룹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러시아 EKSMO



깨어나지 말 걸 그랬어

케이스릴러 | 43p

러시아 EKSMO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빨간모자

케이스릴러 | 50p

프랑스 Matin Calme



청계산장의 재판

케이스릴러 | 55p

프랑스 Matin Calme
미국 Universal TV 옵션 계약



좁은

케이스릴러 | 35p

러시아 AST



아무도 돌보지 않은

케이스릴러 | 37p

대만 TOHAN



면식범

케이스릴러 | 33p

러시아 EKSMO



곤충

케이스릴러 | 54p

태국 SE-EDUCATION
프랑스 Matin Calme
말레이시아 Patriots Publishing



웰컴투로열타운

케이스릴러 | 31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시스터

케이스릴러 | 48p

일본 문예춘추사
태국 AMARIN



피터 래빗 죽이기

미스터리 | 75p

대만 고보출판그룹
태국 AMARIN
러시아 ESKMO



이선동 클린센터

미스터리 | 72p

대만 고보출판그룹
인도네시아 Gramedia M&C



한성부, 달 밝은 밤에

케이팩션 | 83p

프랑스 Matin Calme
러시아 AST



환절기에 온 편지

드라마 | 115p

베트남 ShineBooks



백일청춘

드라마 | 1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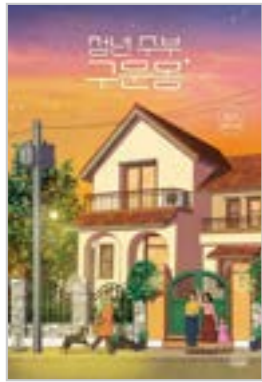
태국 TOSAPORNBILLIONGROUP



회원귀 문구

영어덜트 | 137p

러시아 AST



청년 주부 구운몽

드라마 | 109p

대만 KADOKAWA
인도네시아 Baca Publishing House
태국 Bookdance Publishing
이탈리아 Adriano Salani



너의 버킷리스트

드라마 | 116p

베트남 ShineBooks
태국 TOSAPORNBILLIONGROUP



우리 집에 엄마가 산다

드라마 | 114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시크릿 허즈밴드

현대로맨스 | 162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먹고 마시고 자라

현대로맨스 | 163p

인도네시아 PT Gramedia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러시아 ROSMAN



용을 그리는 아이

사극로맨스 | 150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러시아 AST



내 도도한 향아리

사극로맨스 | 154p

인도네시아 M&C Publishing



아빠가 된 아이돌

현대로맨스 | 166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프랑스 K-World



염라국 방랑기

웹소설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러시아 ROSMAN



향수에 젖다

케이스릴러 | 38p

태국 TOSAPORNBILLIONGROUP



카페 네버랜드

드라마 | 108p

태국 Jamsai Publishing



천일에 지는 밤

사극로맨스 | 152p

러시아 AST



바람의 언덕

웹소설

인도네시아 Haru Media
러시아 Recomics



가족이데아

케이스릴러 | 34p

러시아 AST



리볼브

케이스릴러 | 29p

베트남 Lightbooks Joint Stock
Company



하인학교

미스터리 | 66p

러시아 EKSMO
튀르키예 Nemesis



연애의 온도 29°C

현대로맨스 | 165p

러시아 AST



호러 픽션 나이트

미스터리 | 63p

베트남 Lightbooks



정말일까?

미스터리 | 69p

러시아 ROSMAN



나의 크레딧 카드 왕자님

웹소설

러시아 Recomics



어쩌다 마주친 로맨스

웹소설

러시아 Recomics



30일간의 교도소 일지

웹소설

일본 ACROSS 웹툰화계약



본부장님, 만져도 되겠습니까?

웹소설

일본 ACROSS 웹툰화 계약



조선 돌싱녀

웹소설

러시아 AST



백넘버

미스터리 | 73p

러시아 AST



당신의 비밀

케이스릴러 | 24p

러시아 EKSMO



마피아 찾기

케이스릴러 | 25p

러시아 EKSMO
태국 TOSAPORNBILLIONGROUP



고즈넉이엔티
BIFF
피칭 선정작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펼쳐지는 ACFM의 부산스토리마켓은 도서 원작의 판권을 소유한 작가 및 출판사와 영화 제작사나 영상산업 관계자가 만나 소설의 영상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고즈넉이엔티는 역사스릴러, 현대물 소설, 학원스릴러, 사극 픽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Busan Story Market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Busan Story Market
드라마 판권 계약



환

Busan Story Market

드라마 판권 계약



사라진 나라의 아이들

E-IP Market



빨간 모자

Book to Film



곤충

Book to Film

E-IP 관객상 수상



한성부, 달 밝은 밤에

E-IP Market

드라마 판권 계약



증발된 여자

E-IP Market



비행엄마

E-IP Market

웹툰화 판권 계약
드라마 판권 계약



D클럽과 여왕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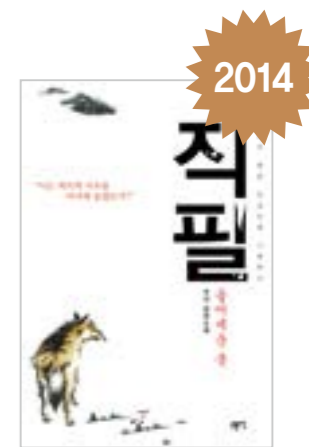
Book to Film



박회장의 그림창고

Book to Film

웹드라마 제작



직필

Book to Film

드라마 판권 계약



당신의 비밀

이종관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이 어디선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살인사건에 연루된 형사 대영은 비밀 거래 사이트 '당신의 비밀' 의 꼬리를 밝는다



리볼브

이종관

자신을 위협하는 연쇄살인마를 쫓던 형사 강두만.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한 발의 총알을 발사한다



가족이데아

장해림

가상현실 게임 '가족이데아'에 빠져든 20대 공사생 원형. 가족과 사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마피아 찾기

김하림

똑같은 가면을 쓴 여덟 명의 심리 실험 참가자. 이들 중 연쇄살인마가 숨어 있다



환

김시안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종(人中) 없는 아이들. 행복한 부부 지역과 석훈 사이에 불길한 기억을 가진 아이 기환이 찾아왔다



죽인

고도원

사형 판결을 앞둔 연쇄살인범과 그녀를 상담한 범죄심리전문가. 딸의 목숨이 달린 마지막 살인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된다



죽쇄

전혜진

5년 전 그날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준현과 나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잔악한 집안사람들과 맞선다



웰컴 투 로열타운

곽영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상위 0.01%만을 위한 공간 '로열타운'에서 '모두가 사랑했던'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다



증발된 여자

김영주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위장과 위선,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힌 두 여자의 치밀한 심리 스릴러



렉카 김재희

김달리

악명 높은 사이버렉카 사역니, 방구석 히키코모리 김재희. 거짓을 퍼 나르던 그가 잔혹한 연쇄 살인의 늪에서 진실을 추적한다



양자

조나연

28년 전 비밀 때문에 죽고 죽이는 하루를 반복하게 된 박양자.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녀를 이 악몽에 가둔 걸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변지안

홀로 살아가는 9살 해나와 출소 후 해나의 계약 대행 엄마가 된 여경. 아무도 몰라야 했던 그들에게 무서운 관심이 쏟아진다



행복배틀

주영하

SNS에서 행복배틀을 겨루던 사립 유치원 엄마의 살인사건. 그녀의 죽음을 추적할수록 행복했던 가정의 민낯이 드러난다



면식범

노효두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범인이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잔혹한 가면을 쓰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향수에 젖다

이수진

무역도에서 소녀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16년 만에 찾아왔다. 내 목에 조일 올가미를 숨긴 채...



케이스릴러

케이스릴러는 장르가 융합하고, 파격이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전형적인 범죄 스릴러가 판타지가 되는가 하면, 어디엔가 존재할 것만 같은 미지의 집단이 소리 없이 세상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IT 기술도 케이스릴러 시즌4에서는 충격적인 경험이 됩니다. 스릴러 장르의 기반 아래 또 다른 장르의 결합이 더 강렬한 서스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찾고 싶다

노효두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심하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레

김달리

임신한 여고생 이레, 남친 엄마가 운영하는 비밀 요양원 산티에 들어가다



기억 잃어버린 남자

라혜원

기억을 잃어버린 여자의 기억을 찾아 주려는 남자. 그들이 반전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감성 스릴러 로맨스



비행엄마

이지은

오래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로부터 날아든 편지 한 통! 그녀는 20년 전 살인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언노운 피플

김나영

이혼 후 3년 만에 귀국한 어느 여름 딸이 사라졌다. 용의자는 바로 나를 키워준 부모, 그들이 내 아이를 유괴했다



사라진 나라의 아이들

이성진

개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던 구한말 조선. 서양인 영아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팩션 스릴러



피아노가 울리면

김동하

피아노가 울리면, 살인이 시작된다. 천재 피아니스트와 사이코패스의 속명적 대결!



마귀

전건우

마귀의 뒤를 쫓는 무당, 마귀의 존재를 알아챈 소년, 그리고 마귀와 맞서 싸우는 말단 순경의 추적 심령 스릴러



깨어나지 말 걸 그랬어

김하림

11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여자. 자신을 죽이려 한 범인을 응징하려 나선다!



시스터

이두운

포르노를 찍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사라진 여동생. 그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육아예능 프로그램의 허상과 어두운 진실



D클럽과 여왕의 여름

박에스더

고립된 깊은 숲 속 외딴 산장에서 벌어지는, 일류 사립고 아이들의 끔찍한 복수극



곤충

장민혜

살인으로 딸을 잃은 미혼모 살해 용의자 곤충 소년을 만나 진범을 추적한다



빨간 모자

김지연

친구에게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친구 할머니 집을 찾아가던 소녀. 누가 할머니고 누가 늑대인가?



청계산장의 재판

박은우

최상류층 자제들의 쾌락적 범죄에 여동생을 잃은 남녀. 이들이 8년을 준비한 복수가 산장의 인질극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현장검증

이종관

기억과 시력을 잃은 형사가 분능적인 감각만으로 모방 범죄 연쇄살인범을 잡는다



운석사냥꾼

김용태

운석이 떨어지던 날, 16년 전 마을에 벌어진 끔찍한 집단살해 사건을 다시 마주하다



붉은 열대어

김나영

2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아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인 남편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다



캐리어

김혜빈

남편이 집도한 수술 후 사망한 엄마의 묘에 100억 원의 병원 비지금이 묻혀 있다. 피로 얼룩진 자금을 들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DRAMA

당신의 비밀

Your Secret

이종관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드라마 판권 계약

미스터리 스릴러

비밀과 비밀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에 빠지는 강력팀 형사 오대영. 알코올중독인 그는 기억이 없는 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취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대영은 전서사기 범 두일의 꼬리를 밟아 잠복하다 알코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취한다. 한참 후 두일이 나타나 그의 정신을 깨운다. 두일은 비밀이 거래되는 사이트 '당신의 비밀'에서 대영의 비밀을 구매했다며 협박한다. 그 비밀은 대영의 아내 해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내연남인 나태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과 그가 살해당했는지도 모르며 정황상 대영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 대영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없이 두일의 요구조건을 들어준다.

판매와 구매

이촌한강공원 부근에서 화색 캐리어에 담긴 신원불명의 토막시체가 발견된다. 대영은 그것이 나태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해인을 주시한다. 태곤이 사라진 날 해인이 끌고 가던 캐리어가 시체가 담겨 있던 것과 같은 모델이기 때문. 해인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대영은 구입처 수사를 도맡아 그날 해인의 행적을 지우기로 한다. 그리고 진상을 파헤치고자 '당신의 비밀'에 접속한다.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불륜 목격담을 비밀로 등록해 가입에 성공하는데, 그 비밀은 올리자마자 누군가에게 판매된다. 대영은 '당신의 비밀'의 규모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심과 확신

기자 출신이자 국회의원 비서관인 해인은 대영이 자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나태곤을 살해한 건 아닌지 의심한다. 의심은 캐리어 토막시체가 발견되고 DNA 대조로 나태곤으로 밝혀지자 더욱 깊어진다. 해인은 대영의 휴대폰에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하게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대영의 차 트렁크에서 현장증거를 지운 듯 혈흔이 묻은 유류물이 찾아낸 뒤 충격에 빠진다. 대영이 나태곤을 살해하고 토막 난 시체를 자신에게 유기하도록 조작해 범행을 뒤집어 씌운 거라 확신하고 유류물을 자신의 차로 옮기는 해인. 자신의 결백과 대영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건의 비밀을 파헤친다. 하지만 무죄를 증명해줄 사람들이 차례로 죽자 그녀는 점점 범인으로 몰린다.

꼬리와 몸통

해인은 나태곤의 DNA를 제공한 그의 아내 설수연과 대영이 모의했으리라 추정하고 그녀를 감시한다. 대영 역시 설수연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그녀의 집 앞에서 잠복한다. 그러다 한곳에서 만나는 두 사람. 해인과 대영은 각자 알아낸 사건의 조각을 맞춰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해인은 끝까지 대영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대영은 해인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해 털어놓지 않는다. 그사이 '당신의 비밀'에 또 다른 치명적인 비밀이 등록된다. 누군가 그 비밀을 구매해 두 사람의 꼬리를 손에 쥐고 몸통을 흔들려 하는데……. 대영은 사건을 뒤엎을 반전을 만든다. 그의 방식대로.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이 어디선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살인사건에 연루된 형사 대영은 비밀 거래 사이트 '당신의 비밀'의 꼬리를 밟는다

미스터리 스릴러

이상한 실험

희대의 살인사건을 모델로 한 심리 실험이 벌어진다. 두 차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거금을 받게 될 여덟 명의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한 공간에서 서로를 구분할 수 없게 모두 같은 가면과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에 참여한다. 간단한 놀이로 구성되었던 1차 실험과 달리, 2주 뒤 진행된 2차 실험에서는 제시된 상황을 듣고 범인을 찾아내는 문제를 풀게 된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낯선 문제에 소극적이지만 점차 추리력을 동원해 주장을 펼치면서 실험은 과열되기 시작한다.

저 안에 연쇄살인마가 있다

참가자들이 실험에 열을 올리던 그때, 방송 사고로 마이크가 켜지고 주최팀의 대화가 흘러나온다. 대화 내용은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 가운데 살인자가 있다는 것. 혼란에 빠진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결국 프로파일러이자 책임자 기중이 실험장으로 내려와 사건의 전말을 알려준다. 1차 실험이 끝난 후 2주 사이에 참가자 두 명이 다른 참가자에게 살해당했는데, 그들을 살해한 범인이자 자신이 오랫동안 쫓던 연쇄살인마가 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 중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것과 살해당한 피해자를 누군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범인 검거를 위해 기중이 참가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로 하면서 평범한 심리 실험은 이제 범인을 찾는 추리 게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결국 범인을 찾기 위해 가면을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한 참가자들. 기중은 이들에게 피해자가 살해당한 날의 알리바이를 추궁하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여러분은 그날 알리바이에 대해 모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활동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실험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에 휩싸이면서, 참가자들은 범인 검거보다 이곳을 나갈 방법을 궁리한다. 참가자 준성은 참다못해 다른 참가자를 인질 삼아 탈출하려 하지만, 결국 제압되어 감금된다. 그날 새벽, 참가자 윤기는 방에서 나왔다가 불이 꺼진 다이닝룸에서 참가자 현서의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 소리를 들은 참가자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이제 실험에서 시작한 추리 게임은 나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게임으로 변모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 거짓말이 난무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밀폐 공간에서 기중은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똑같은 가면을 쓴 여덟 명의 심리 실험 참가자
이들 중 연쇄살인마가 숨어 있다



마피아 찾기

Mafia Game

김하림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족쇄

Shackles

전혜진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가정 스릴러

서준현의 출소, 그리고……

5년 전 서운병원 외과 과장인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체포된 소년, 서준현. 그의 출소를 앞두고 서운병원 관계자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준현의 조부인 서운병원의 오너 서필환 원장, 서운병원을 손에 넣으려는 탐욕스러운 큰고모 애희,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조카를 외면하는 작은고모 상희, 서필환의 지시로 준현을 보호하는 임태민 변호사와 수상쩍은 비밀을 쥐고 있는 조성춘 기자.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유일한 가족인 준현을 애타게 기다려온 이복동생 나현까지.

남매를 옹아매는 시련과 오래된 비밀

나현에게 준현은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는 열 살의 준현이 집안에 들어온 날처럼 또다시 그를 지키겠다고 마음먹는다. 5년 전 그가 잔악한 부모로부터 자신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의 슬픔과 괴로움을 감싸 안아야 했다. 외삼촌들이 찾아와 준현을 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멸시해대는데도 나현은 곳곳이 준현의 곁을 지킨다. 하지만 서필환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서운병원을 준현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자 남매의 일상은 다시 무너진다. 그리고 남매는 서필환이 오래도록 품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된다.

비뚤어진 욕망과 대물림되는 비극

땅속에 묻힌 것에 따라 다른 빛깔의 꽃을 피우는 수국처럼, 어떤 비밀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고개를 든다. 준현의 친모가 죽은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서운병원을 짓고 도시를 번영케 한 훌륭한 경영자이자 인술을 베푸는 의사인 서필환. 그가 준현을 집안에 들이기 위해 사고로 위장해 준현의 친모를 죽인 것이었다. 그의 비뚤어진 사랑과 욕망은 남매를 충격에 빠뜨리고, 남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이어진다. 상속 문제로 분노한 서애희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남매를 납치하려 한 것. 남매는 임태민과 서상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서애희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만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

5년 전 그날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준현과 나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잔악한 집안사람들과 맞선다

오빠를 지키려면, 서로를 구하려면

나현은 오빠를 지키려면 집안사람들에게 맞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현은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서애희를 찾아가고, 그사이 조성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네며 준현에게 찾아온다. 위협을 감수한 채 진실로 다가서는 두 남매. 이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죽음을 맞고, 마침내 남매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한순간에 드러나는 일가의 저주스러운 비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남매는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둘만의 낙원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미스터리 스릴러

사이버렉카의 정체를 폭로하라

짜릿한 날이다. 김재희는 모텔 침대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가 나오길 기다린다. 평소 팬이었다며 접근한 여캠 BJ '불체자'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김재희를 유혹한다. 어라? 흥분도 잠깐, 김재희는 선반 뒤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한다. 불체자가 자신의 얼굴을 까겠다고 쇼를 벌였다는 것을 알아챈 김재희는 욕을 한껏 퍼붓고서 나간다. 김재희의 정체는 사이버렉카 '사악니'.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현실과 달리 1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사악니는 대형 유튜브다. 잔뜩 열받은 김재희는 곧장 불체자 저격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지한다. 그런데 다음 날, 뉴스에서 불체자, 채기쁨이 자살했다는 비보가 퍼진다.

사악니, 그가 범인이다

채기쁨이 의문을 남긴 채 자살하자 세상의 관심은 사악니에게 쏠린다. 경쟁 유튜브와 구독자 모두가 비난을 퍼붓고 경찰마저 그를 괴롭힌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된 김재희는 억울해하지만 당당히 결백을 증명한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200만 유튜브 '두환이'가 논란을 재점화한다. 김재희는 이때다 싶어 두환이를 저격하고 그의 합방 요청에 응한다. 그와 방송을 한 김재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입이 찢어지고 목이 베인 채 살해당한 두환이.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던 김재희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다.

김재희, 다음은 네 차례야

사람들은 사악니가 그래왔던 것처럼 무고한 그를 범인으로 본다. 급기야 수상한 그림자가 뒤를 쫓자 김재희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뒤를 쫓는다. 그림자의 정체는 죽은 채기쁨의 쌍둥이 동생 채수리. 그녀가 범인일까? 두환이는 죽기 전까지 채기쁨을 모욕했으니 채수리라면 죽일 명분이 있다. 김재희는 직감한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거라고. 그는 피할 수 없기에 채수리를 유인하기로 한다. 사악니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는데…… 별안간 엄마의 남자 친구 강영일이 살해된다. 김재희는 이번에도 그 죽음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강영일은 검은색 이발이 도드라진 사악니 가면을 쓰고 있었고, 가면을 벗기자 입이 찢어져 있었다.

방송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니까

김재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장에서 빠져나가려다 문 앞에 선 채수리와 마주친다. 그녀는 도망치고 김재희는 필사적으로 쫓는다. 그녀가 범인이다. 순간 차오른 확신은 이내 그녀와 대면한 뒤 허물어진다. 채수리는 오히려 묻는다. 네가 우리 언니 죽였어? 그녀는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였고 김재희를 의심하며 뒤쫓다 마주친 것이었다. 채수리는 말한다. 언니 채기쁨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라고. 김재희는 깊은 혼란을 머금고 채수리와 함께 사건을 되짚는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 나날이 쏟아지는 루머의 루머의 루머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방송을 시작한다. 사이버렉카 사악니이자 인간 김재희로서. LIVE ON!

악명 높은 사이버렉카 사악니, 방구석 히키코모리 김재희 거짓을 퍼 나르던 그가 잔혹한 연쇄 살인의 늪에서 진실을 추적한다



렉카 김재희

Cyber Wrecker Jae Hee Kim

김달리

일본 ACROSS 웹툰 계약

<이레> 작가의 차기작



DRAMA

행복배틀

Happiness Battle

주영하

2023년 드라마 방영

K스릴러 작가 공모전 당선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인도네시아 PT Gramedia 번역 출간

태국 AMARIN 번역 출간

베트남 Kim Dong 번역 출간

대만 Spring International Publishers 번역 출간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러시아 AST 번역 출간

SNS에서 행복배틀을 겨루던 사립유치원 엄마의 살인사건
그녀의 죽음을 추적할수록 행복했던 가정의 민낯이 드러난다

가정 스릴러

강남 최고의 아파트 베란다에 전시된 시신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강남 하이프레스티지 아파트 102동 702호. 남편 강도준은 등에 칼이 꽂히고 숨이 붙은 채로, 아내 오유진은 베란다 난간에 배를 걸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휴가를 맞이한 장미호는 17년 전 절연한 친구 오유진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고등학교 시절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으나 수학 선생 자살 사건으로 인해 절연했다. 오래전 사건에 대한 부채감을 떨쳐내지 못한 장미호는 그녀의 죽음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영어유치원 엄마들의 SNS 전쟁, '행복배틀'

장미호는 오유진이 영어유치원 엄마들과 SNS상에서 행복배틀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유진과 친하게 대립했던 송정아와 김나영을 의심한다. 오유진은 김나영 남편과 유치원 선생의 불륜 사실을 SNS로 교묘하게 조롱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송정아를 프리미엄 맘카페에서 엄마들을 부추겨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유진이 죽기 2년 전 영어유치원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에 집착했으며, 자신들은 그저 물 잔에 의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이라 항변한다.

사건의 전환, 남편을 찌르고 자살한 그녀

오유진은 왜 베란다 난간에 배를 걸친 채 사망했을까, 왜 영어유치원에서 딸 지율이 그린 뱀 그림을 몽땅 가져간 걸까. 경찰은 오유진이 남편을 찌른 뒤 자살했다고 공식 발표한다. 하지만 오유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장미호는, 과거에 저장된 오유진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노트북에 꽂힌 USB에 주목한다. USB를 찾기 위해 오유진의 집에 몰래 침입한 장미호는 그녀의 남편 역시 USB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잔혹한 진실,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것

오유진이 남편의 USB를 버리려다 베란다에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낸 장미호는 아파트 숲길에서 USB를 찾아낸다. 그 안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촬영한 동영상 이 가득 담겨있다.

17년 전, 성인 남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던 오유진. 장미호의 실언으로 그 소문이 퍼지고, 학대 주범으로 지목된 수학 선생이 자살한다. 하지만 학대 주범은 오유진의 양아버지였다. 오유진과 양아버지 그리고 지율의 뱀 그림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오유진의 남편은 아동성애자일까? 혹은 오유진의 과거가 빚어낸 착각일까? 장미호는 오유진의 남편, 강도준과 대면한다.

미스터리 스릴러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놈을 잡아야 한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강두만 반장은 누군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느낌을 받는다. 아내 희령이 내놓은 쓰레기봉투가 없어지고 아파트 계단에서 정체불명의 땅콩껍질이 발견되며 위협은 구체화된다. 누군가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희령의 정보까지 노출되었으니 그녀도 위험하다. 두만은 아파트 CCTV에서 놈으로 추정되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찾아낸다.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희령이 눈치채기 전에 놈을 잡아야 한다.

그가 스스로를 살해한 걸까?

두만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점점 복잡해진다.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요골동맥이 절단돼 죽었으며, 여자다. 현장에는 공통적으로 의문의 땅콩껍질과 목적을 알 수 없는 물색 흔적이 남았다. 두만은 피해자들이 얼마 전 같은 AS 기사에게 냉장고를 수리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희령 역시 이 연쇄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만을 비롯한 광역1팀이 용의선상에 오른 AS 기사 차 정후의 작업실을 덮치는데, 그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다. 앞선 피해자들처럼 요골동맥이 절단되어 죽은 채로. 그가 스스로를 살해한 걸까?

그가 나를 옥죄어온 '시선'일지도 모른다

광수대는 차정후를 연쇄살인마로 지목하고 그의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진범이 따로 있다고 판단한 두만은 희령을 선배 경찰인 선우현 과수팀장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수사를 이어간다. 객관적인 증거만 놓고 보면 차정후가 진범에 가깝지만, 두만은 자신을 위협하던 야구 모자를 쓴 남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희령은 선우현의 집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낀다. 그는 희령과 같은 식물을 키우고, 같은 디자인의 그릇을 사용하며,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본다. 그의 집은 마치 희령의 집을 복제한 것 같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희령은 선우현이 자신을 오랫동안 옥죄어온 정체를 모를 '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증폭되던 공포가 폭발하려는 순간, 선우현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다.

절박한 사람만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

더 이상 놈을 추적할 단서가 없어 수사는 난항을 거듭한다. 희령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해하던 가운데, 두만은 분실된 차정후의 휴대폰이 켜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호가 잡힌 기지국은 선우현의 아파트가 있는 곳. 두만은 다급히 선우현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린다.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한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은색 총알, 찾았어요? 그럼 방아쇠를 당겨요. 탕!"

절체절명의 순간, 두만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리볼버의 방아쇠를 당기는데...

자신을 위협하는 연쇄살인마를 쫓던 형사 강두만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한 발의 총알을 발사한다



DRAMA

리볼브

Revolve

이종관

드라마 판권 계약

<현장검증> 작가의 차기작

베트남 Lightbooks Joint Stock Company

번역 출간



DRAMA

환

Reborn

김시안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스토리마켓 선정

미스터리 스릴러

가장 행복한 순간, 과거로부터 한 아이가 찾아왔다

유명한 셸럽 부부이자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인 지영과 석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사이에 전생을 기억하는 인중 없는 아이, '환생아'가 태어난다. 지영은 불안에 흔들리고, 석훈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전생의 기억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아이는 다섯 번째 생일날, TV에서 인구소멸지구로 소개된 정회마을을 보고 '우리 집'이라며 첫 발화를 한다. 폐허가 된 마을에 찾아간 지영과 석훈은 스스로를 '없는 사람'이라 칭하는 미연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미도를 만난다. 그리고 20여 년 전, 이곳에서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몰살당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코모도도마뱀은 먹이를 놓치지 않는다

독한 성격 탓에 '코모도도마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고미도. 미도는 자신이 부재했던 시기에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20여 년 전, 마을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떼죽음을 당할 때 미도 역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기 때문이다. 혼자 분투하던 중 우연히 인중 없는 아이 기환을 마주친다. 미도는 이 사건의 중심에 기환이 있음을 직감하는데, 때마침 환생아 기환이 누군가에게 납치된다. 미도는 정회마을의 비극을 세상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

어쩌면 이것이 비극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환생아 기환은 납치된 지 일주일 만에 납치범과 함께 발견된다. 납치범은 기환이 20여 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한다. 미도는 납치범이자 좋은 이웃이었던 금자 아줌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미도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 날, 축하하기 위해 벌인 마을 잔치에서 아버지가 정체 불명의 고깃덩어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다는 것이다. 미도는 얼마 전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맡은 익숙한 냄새를 기억해낸다. 빈민가에서 싼값에 유통된다는 썩지 않는 가공육... 어쩌면 이것이 비극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인중 없는 아이가 숨기려는 전생의 기억은 무엇일까

기환이 태어난 뒤, 여러 사건에 시달린 탓에 지영과 석훈 사이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아이를 둘러싼 부부의 갈등이 극에 치달을 무렵, '환생아 기억 보존국' 윤태석 국장이 석훈을 찾아와 아이의 유치(乳齒)를 발치할 것을 은근히 권한다. 인중 없는 아이는 유치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전생의 기억을 잊지만, 강제로 유치를 발치하면 기억이 뒤섞여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석훈은 큰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한다. 죄 많은 어른들은 인중 없는 아이의 발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기억을 가진 아이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의식을 놓아버린다. 아이가 숨기려는 기억은 과연 무엇일까. 정회마을 사람들의 죽음과 아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제 참사를 둘러싼 모두의 죄를 밝혀야만 한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중(人中) 없는 아이들!
행복한 부부 지영과 석훈 사이에 불길한 기억을 가진 아이 기환이 찾아왔다

미스터리 스릴러

대한민국 0.01%만을 위한 공간 '로열타운'에서 발견된 변사체

1990년대, 남다른 혜안으로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엄청난 사업 성공을 이뤄낸 원세권 회장. 그가 세운 대한민국 상위 0.01%만을 위한 공간, 로열타운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본관 건물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 사건을 맡은 박 형사와 신현수 순경은 로열타운으로 출동한다. 최초 신고자인 보안팀장은 변사체의 신원을 묻는 박 형사에게 사흘 전, 본관 VIP 병동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로 추정된다고 답하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신현수가 아연실색한다.

모두가 사랑했던 소녀의 어두운 비밀

지문감식 결과, 변사자는 스무 살의 간호조무사 유섯별. 신현수는 같은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자란 섯별이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섯별이 자살했을 리 없으며 죽음의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애쓰지만 타살의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사건을 조사할수록 '밝고 명민하며 사랑스러웠던 소녀'의 이미지는 명품 카메라를 소유하며 분예 넘치는 취미를 즐긴 '절도 용의자'로 몰리게 되고, 원 회장이나 프리미엄 세대 입주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심지어 섯별이의 유품 속에서 '중이 마약'까지 발견되는데...

영결식장에 올려져진 죽은 자의 문자메시지

섯별의 절도 혐의와 관련해 박 형사는 로열타운 측의 인위적 조작을 직감하지만 새로운 증거의 부재로 수사를 지속할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부검을 마친 섯별의 시신이 로열타운과 이별을 고하던 날,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나는 죽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살인사건

박 형사와 신현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러던 중 섯별이의 출생과 관련한 의혹을 접하게 된다. 한편, 섯별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큰 의혹을 품었던 로열타운의 한 직원이 문자를 발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캐고 다니던 중, CCTV와 관련된 로열타운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과연 두 번째 살인은 섯별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섯별이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상위 0.01%만을 위한 공간 '로열타운'에서
'모두가 사랑했던'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다



웰컴 투 로열타운

Welcome to Royaltown

곽영임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양자

Yangja Project

조나연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28년 전 비밀 때문에 죽고 죽이는 하루를 반복하게 된 박양자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녀를 이 악몽에 가둔 걸까?

SF 스릴러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그것도 28년 전 모습 그대로

요절한 남편의 가업을 대신 물려받아 도자기 가마터 '정요'의 안주인이 된 박양자. 뒤옹박 팔자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그녀는 지긋지긋한 가마터를 정리하고, 인생 제2막을 펼칠 생각으로 들떠 있다. 바로 하버드 의대를 조기 입학하고 장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가 될 아들 정동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것.

그렇게 꽃길만 남은 그녀의 앞에 난데없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절대 마주칠 수 없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28년 전 분명히 죽었음 남편 남편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박양자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괴물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그녀에게 속삭인다.

“나 보고 싶었어?”

죽이고 죽어도 끝나지 않는 악몽

양자의 선택은 단 하나. 남편을 다시 죽이는 것. 어떻게든 28년 전 그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시체를 은닉해 보지만, 신이 벌이라도 내리듯 양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차라리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걸. 양자에게 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다. 분명히 죽이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면 다시 남편이 찾아오던 그 날 아침이다. 양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악하지만 그런 노력을 비롯듯 양자는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다시 깨어난다.

자꾸만 반복되는 하루.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양자는 28년 전 남편의 죽음부터 아들의 출생 비밀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치부를 낱알이 마주한다.

서서히 밝혀지는 악몽의 진실, 양자 프로젝트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있던 양자의 앞에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나타난다.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는다.

“당신은 지금 일흔여섯 번 죽었습니다. 남은 기회는 세 번뿐입니다.”

세 번의 기회 안에 살아남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을 맞는다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 동민도 자신처럼 반복되는 하루에 빠져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악몽에서 자신과 아들을 구할 사람은 그녀가 유일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민기치 않은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양자는 자신과 아들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스터리 스릴러

납치

늦은 밤, 차 사고가 일어났다. 범죄 심리학자 도경수는 힘겹게 차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납치됐다.

지금은 회색 벽면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감금돼 있다. 문을 향해 소리쳐봤지만 범인들은 대꾸도 없다. 얼마 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철문 하단에 있는 쪽창이 열리고 물과 먹거리가 들어온다. 도경수는 문밖으로 말을 걸어본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멀어진다.

용의자 프로파일링

도경수는 두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하나뿐이다. 대체 누구의 짓일까?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보복을 예고했다. 경찰 일을 그만두면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유명 범죄 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더 많은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간 만났던 범죄자 중 유력 용의자를 떠올린다. 한참의 고민 끝에 세 명 정도가 추려진다. 하지만 그분, 누구의 짓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탈출

감금된 지 사흘째가 됐다. 그동안 범인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건 범인들이 끼니 때마다 넣어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뿐. 오른쪽 어깨를 쓸쩍 돌려봤는데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차 사고 때 다친 어깨가 더 안 좋아진 모양이다. 일부러 어깨 쪽에 강한 충격을 가한다. 그리고 그날 밤, 보란 듯이 감시카메라를 향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사흘간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 범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도경수의 몸을 살핀 뒤 마취제를 투여하려 한다. 그때 도경수가 반격에 나선다. 결국, 그들을 따돌리고 좁은 공간에서 탈출한다.

범인의 정체

도경수는 산속에 있는 주택에서 빠져나온다. 차가운 산길을 정신없이 내려간다. 얼마 뒤 한 도로에 접어들다. 마침 차 한 대가 오고 있다. 그 차를 붙잡는다.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수석에 올라탄다. 그런데 차 안이 너무나 익숙하다. 이내 자신의 차라는 걸 눈치챈다. 고개 돌려 운전자를 확인한다. 운전자는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제야 도경수는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다. 순간, 얇은 주삿바늘이 도경수의 팔에 꽂힌다. 몸속에서 퍼지는 마취제에 정신이 흐릿해진다.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 하나가 선명히 떠오른다. 가족이 위험하다...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범인이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잔혹한 가면을 쓰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면식범

The Acquaintance

노효두

〈찾고 싶다〉 작가의 차기작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원형, 가상현실 게임에 빠져든다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혈안이 된 재벌 3세 원형, 바퀴벌레가 들끓는 임대주택 3층에 사는 소심한 공시생 원형. 어느 것이 진짜 원형의 모습일까. 원형은 바란다. 잘 맞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가족을. 원형은 바란다. 끈끈한 가족애를 지닌 화목한 가족을.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원형은 현실에 좌절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며 자신조차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다.

딸을 잃은 상원의 복수가 시작된다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 완벽한 삶에서 하나가 빠졌다. 미혼부였던 상원은 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사업마저 내팽개친 채 복수를 다짐한다. 가상현실에서 딸을 만나 세워둔 복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상원. 딸을 죽게 만든 그 아이, 그 아이를 만들어낸 가족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을 없애려는 상원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상원이 계획한 복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복수의 끝엔 외면했던 진실과 놀라운 사업적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원미의 꿈, 현실이 된다

빛나던 그 친구, 친해지고 싶었지만 친해질 수 없었던 그 친구의 이름은 지희다. 원미는 지희가 잘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좋아했다. 한편으론 지희를 부러워했다. 지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원미의 꿈은 단 한 사람, 지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원미는 질투와 선망을 품은 채 꿈을 실현해나간다. 원미는 영원한 꿈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과 잔인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 사이의 두 갈래 길에 놓인다.

가족이데아

Family Idea

장해림

러시아 AST 번역 출간

가상현실 게임 '가족이데아'에 빠져든 20대 공시생 원형 가족과 사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완벽한 세계 <가족이데아>의 실체를 마주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게임 <가족이데아>가 탄생한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 이상적인 가족을 만날 수 있고 현실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게임 속 세계,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게임 <가족이데아>. 이 게임의 이면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진실을 마주한 원형은 가상과 현실을 가로지르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수상한 의뢰로 시작된 상담, 연쇄살인마의 게임이 시작되다

“그 여자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자백을 끌어내 주십시오.” 범죄심리학 교수이자 상담심리사로 활동 중인 수영은 17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염석희의 상담사가 되어달라는 사적인 의뢰를 받는다. 의뢰인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 박태항. 그는 석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노린 거라고 믿고 있는데... 수영은 모종의 이유로 그의 의뢰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석희는 수영과의 상담을 게임으로 만들어 버리고, 죽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인 자백을 받아내야 했던 수영은 석희가 낸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 정답을 수배하기 시작한다.

내 딸이 연쇄살인마의 조력자라고?

네티즌의 도움으로 자백 게임을 이기고 순수히 석희의 살인 진술서를 받아낸 수영. 며칠 뒤, 한 남자로부터 묘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석희를 찾아간 수영은 그녀가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려 하지만 석희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듣게 된다. 수영과 아주 가까운 곳에 그녀의 조력자가 있다는 것. “염석희, 지금 내 딸 어딴어?”

열여덟 번째 피해자를 찾아라!

호송버스에서 탈출한 석희는 연남시로 도주하고, 도시는 봉쇄된다. 석희는 또다시 수영에게 게임을 제안한다. 어딘가에 숨겨둔 열여덟 번째 피해자를 제한 시간 안에 찾아낼 것. 살인마 곁에 있는 영지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은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세트장처럼 준비된 공간으로 끌려온 수영은 그 안에서 단서를 모으며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그러나 퍼즐이 맞춰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열여덟 번째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조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도 수사망에서 빠져나간 또 다른 살인자라는 사실이다.

순결한 피해자로 남을 것이냐, 살인자가 될 것이냐

석희는 수영을 이용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조직의 존재와 은폐된 살인을 폭로하고자 한 것. 그런데 석희의 수수께끼를 통해 열여덟 번째 피해자를 찾아낸 수영이 발견한 것은 딸 영지가 당한 끔찍한 일들의 기록이다. 석희가 지목한 열여덟 번째 피해자이자 영지를 착취해온 가해자를 맞닥뜨린 수영은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저 새끼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사지가 걸레짝이 됐는데, 저 울화가 어디로 튈 것 같니?” 평생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수영은 엄마로서, 영지를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사형 판결을 앞둔 연쇄살인범과 그녀를 상담한 범죄심리전문가 딸의 목숨이 달린 마지막 살인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된다



DRAMA

Zoom In

고도원

네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러시아 AST 번역 출간



증발된 여자

The Evaporated Woman

김영주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미스터리 스릴러

모든 것을 잃은 수완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회

아마추어 연극배우 '오수완'.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외모에 초라한 배경을 가진 스물하홉 살의 여자다. 기다리던 첫 캐스팅 기회가 찾아온 날, 동거 중인 남자친구는 그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다. 수완은 하필 임신까지 한 상태. 캐스팅 기회마저 놓치고 만 수완은 자포자기한 심경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필라테스 학원에 도착하는데. 우연히 마주한 대기업 이사이자 재벌가 며느리인 골드 회원 '허경진'은 돌아갈 곳 없는 수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그것은 바로 경진의 죽은 여동생 '허남경'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

우리 사이에 이제 비밀은 없어야 해요

막막한 현실에서 도망치듯 임신 사실을 감춘 채 경진과의 은밀한 계약에 응한 수완. 3개월간 경진의 전적인 지원하에 과거의 자신은 완벽하게 지우고 남경의 외모부터 걸음걸이, 습관까지 완전히 몸에 익힌다. 점점 편리하고 안락한 상류층 생활에 적응하며 남경으로 새롭게 태어난 수완은 독일에서 귀국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경진의 남편 준석 앞에 처음 등장하기로 한다. 그러나 수완이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된 경진은 계획을 취소하고, 궁지에 몰린 수완은 끝내 그녀와 지켜오던 선을 넘고 마는데.

'내 아이'를 지키려면, 경진의 무대 밖을 벗어나선 안 된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던 경진이 임신한 것으로 위장하고, 수완이 그녀의 여동생이자 비밀 대리모가 되기로 기묘한 계약을 다시 맺은 두 여자. 그러나 경진을 온전히 믿지 못한 수완은 은밀히 준석을 따로 만나고, 그가 친뒀에 빠져 아이를 유산하고 만다. 수완은 이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신을 여전히 '남경'이라 부르는 경진이 소름 끼칠 따름이다. 스스로 증발되어 타인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여자, 수완과 수완을 통해 증발된 삶을 되찾으려는 여자, 경진의 핏빛 욕망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위장과 위선,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힌 두 여자의 치밀한 심리 스릴러

나를 지워버린 그날 알았다. 나를 다시 되찾아야 할 이유를

경진의 본색을 알아차린 수완은 경악하며 모든 것을 돌이키려 한다. 그러나 '오수완'은 이미 경진에 의해 살인자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완전히 말소되어 버렸다. 이제 수완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은 오직 경진뿐.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완은 비로소 생존을 위한 연기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미스터리 스릴러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월 280만 원

가석방으로 막 출소한 여경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홉 살짜리 여자아이 해나의 발칙한 제안을 받고 때론 계약 대행 엄마로 대리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겨울이 끝나기 전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해나를 도우며 두 사람 사이에 애뜻한 정서가 생기지만 어쩐지 둘은 서로에 대한 질문 대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만 성실히 해내고 있을 뿐이다.

반복되는 10분의 침묵, 그리고 엄마의 죽음

출소 직후부터 발신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매번 10분의 침묵을 지키고 끊긴다. 그러던 어느 날 여경은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게 되고, 발신표시제한자의 정체를 추적하다 자신과 해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열두 살 여경을 버리고 집을 나간 뒤 9년 전 고급호텔에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엄마의 죽음과 갑자기 눈앞에 등장한 아홉 살 해나. 날 엄마라고 이모라고 언니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보호자에서 감시자가 되어버린 욕망

한편 가석방 중인 여경이 아홉 살 여자아이의 대행 엄마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담당 보호관찰관 창수는 두 사람을 살피던 중 해나란 아이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과 그 집에 현금을 가득 채운 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던 창수는 망설이다 결국 아이가 혼자 있는 집으로 향한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 누구의 아이도 되지 않기로 한 아이

갓난쟁이 해나는 중국집 요리와 함께 보육원으로 배달되었다. 끔찍했던 두 번의 파양을 겪고 세 번째 입양이 결정되어 누렸던 꿈같은 행복도 잠시, 사랑받기 위한 해나의 몸부림에도 양부모조차 해나 곁을 떠나버린다. 또다시 버려질 수 없던 해나는 양부모의 죽음도 저택에 숨겨진 비밀도 겨울 속에 꽂꽂 숨기지만 어쩔 수 없이 봄은 오고 있었다. 해나는 여경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데...

홀로 살아가는 9살 해나와 출소 후 해나의 계약 대행 엄마가 된 여경
아무도 몰라야 했던 그들에게 무서운 관심이 쏟아진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The Abandoned

변지안

위지웍스튜디오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KOCCA K-Story in Japan 선정
대만 TOHAN 번역 출간

DRAMA



향수에 젖다

Perfume & Nostalgia

이수진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미스터리 스릴러

완벽한 그녀의 비밀

아름다운 외모와 고상한 취미, 다정한 사업가 남편과 귀여운 아들까지 '다 가진 여자' 정태희. 건물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이라고 칭송받는 마제스티까지 입주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녀의 완벽함은 모두 거짓이다.

그런 태희의 앞에 니코틴이 든 향수와 함께 편지가 도착한다. 16년 전, 고향인 무억도에서 도망치며 버렸던 이름을 부르는 편지에 태희는 불안함을 느낀다. 과거를 깨끗하게 세탁한 줄 알았던 태희의 앞에 무억도 친구들이 나타난다.

무억도 친구들, 누가 향수를 보냈을까?

리더십이 있는 지혜, 통명스럽지만 의리 있는 명주, 귀엽고 해맑은 수림과 씩씩한 성격의 은영 언니까지. 친구들은 16년 전, 전학생 김세경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던 일을 태희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친구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대담하게 태희의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한다. 하지만 이들 중 태희에게 향수를 보낸 사람은 없다.

태희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친구들과 태희가 서로 협박을 시작하지만 잃을 것이 많은 쪽이 지는 법. 태희는 또다시 궁지에 몰리고 복수마저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죽었다던 세경이 돌아온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세경은 무억도 친구들에게 차례로 복수하고, 이번엔 태희의 약점을 잡아 서서히 그녀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다. 초조해진 태희는 세경과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혜와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무억도를 장악한 세경의 회사인 무도 관광을 조사하다가 수상한 요양원을 발견하는데. 지혜가 먼저 잠입하지만 연락이 끊기고, 태희는 뒤따라가려다가 남편에게 붙잡히고 만다.

향수(香水) 그리고 향수(鄉愁)

첫째, SNS를 하지 않을 것. 둘째, 개명을 할 것. 셋째, 모든 인연을 정리할 것! 남편은 태희가 결혼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녀를 통제하려 한다. 태희는 아들을 지키고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 대항한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정태희라는 이름을 버리고 무억도로 향한다.

그곳에서 태희는 향수를 보낸 진짜 범인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한다.

무억도에서 소녀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16년 만에 찾아왔다
내 목에 조일 올라미를 숨긴 채...

미스터리 스릴러

정체불명의 탐정

정상훈은 16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다.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는 전단지를 뿌렸지만 끝내 딸을 찾지 못했다. 2년 전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상훈은 다짐했다. 만약 딸을 찾지 못하면, 딸을 죽인 범인이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스마트폰 너머로 억양 없는 변조된 음성이 들린다. 상대는 자신을 고탐정이라 소개하며 대뜸 딸을 찾아주겠다고 한다. 며칠 뒤 상훈은 서울에 있는 한 공원에서 고탐정을 만난다. 노인으로 변장한 그는 16년 전 딸 진경과 함께 사라진 용의자를 알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탐정을 쫓는 여형사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 박진희는 미제사건 피해자 부모의 유품에서 찢어진 종잇조각을 발견한다. 종잇조각을 맞춰보니 한 장의 수입계약서가 완성된다. 계약서에는 미제사건 유력 용의자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큰돈이 거래된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다.

박진희는 피해자 부모와 계약을 체결한 '고탐정'이란 자를 찾는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한다. 이제 그만 추적을 포기하려 할 때, 그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미제사건 수사의 새로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찾아낸 용의자

고남준 머릿속엔 여러 개의 상자가 있다. 상자 속에는 강력 사건 용의자 몽타주와 실종 아동 얼굴 등이 담겨 있다. 남준은 언뜻 본 얼굴도 오래 기억하고, 얼굴 고유의 특징으로 동일인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남준의 눈에 들어온다. 머릿속을 뒤져보니 16년 전에 발생한 <정진경 양 실종사건> 용의자 얼굴과 동일하다. 남준은 며칠간 남자를 관찰하며 그가 범인임을 확신한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심하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범인을 찾은 거요?

사진을 받아든 정상훈은 온몸이 뜨거워졌다. 사진 속 남자는 16년 전 몽타주 속 그놈이 틀림없다. 그간 진경이 실종사건은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됐다. 만약 남자가 범인이 맞다면, 그는 틀림없이 피해자 부모인 정상훈의 얼굴을 알아볼 것이다. 사람 얼굴은 단순하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상훈은 그토록 찾아다니던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찾고 싶다

The Missing People

노효두

래몽래인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DRAMA



WEB TOON

기억 잃어주는 남자

Memory Man

라혜원

<내 도도한 항아리> 작가의 차기작
다온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로맨스 스릴러

사라진 기억, 수상한 약혼자

낮선 곳에서 눈을 떴다. 송하윤은 자신이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데 기억나는 건 그것뿐. 모든 기억이 사라진 그녀 앞에 약혼자가 나타난다. 국내 최고의 IT 기업 '휘성'의 후계자, 천재후. 그런데 하윤은 시간이 갈수록 그가 의심스럽다. 그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완벽하다. 아름다운 인공 섬, 중세 시대의 성 같은 별장, 완전무결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약혼자. 진실을 알기 위해 하윤은 자신이 당했던 사고의 실체를 쫓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과 맞닥뜨린다. 천재후가 알려주었던 그녀의 생년월일, 직업, 가족 관계도, 주소 등 모두가 가짜였던 것. 하윤의 의심은 이제 천재후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런 그녀에게 의문의 우편물이 날아든다.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이 들어있다. 그런데 신분증에 박힌 이름이 다르다. 한재경. 이게 진짜 나일까. 하윤은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본다. 집안에는 그녀가 천재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뒷조사를 했던 흔적이 가득하다. 송하윤이란 사람은 재벌 3세 천재후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었다는 걸 그녀는 깨닫는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온갖 증거들이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윤은 왠지 숨어 있는 비밀이 더 있을 것만 같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재후를 찾아가 본다. 아직도 재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싶다. 결국 재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하윤과 재후. 하지만 천재후의 주치의이자 그녀의 심리 치료를 도와줬던 남 박사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잔인한 진실을 알려준다. 그녀의 기억은 사고로 사라진 게 아니다. 누군가 그녀의 기억을 고의로 지웠다. 그리고 천재후의 회사 '휘성'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억 관련 인공 지능 연구이다.

기억을 잃어버린 여자의 기억을 찾아주려는 남자
그들이 반전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감성 스릴러 로맨스

진실의 문은 두 개다

천재후가 내 기억을 지웠다고? 하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재후와 함께 지냈던 인공 섬의 별장으로 향한다. 그곳은 사실 휘성 그룹의 인공 지능 연구소였다. 자신이 그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하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은 천재후를 그토록 철저하게 조사했던 걸까? 자신은 송하윤인가, 한재경인가? 아직 진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문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비밀을 밝혀야 한다.

미스터리 스릴러

홈 스위트 홈

이혼 후, 딸 수아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은수는 반복된 몽유병 증세로 귀국을 결심한다. 3년 만의 귀국에 은수와 수아 모두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향하는데, 어디에도 은수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다. "일이 생겨 당분간 집을 비울 것 같다"고 말하는 부모. 하는 수 없이 은수는 부모가 없는 집에서 수아와 함께 생활을 시작한다. 홈 스위트 홈. 안식처가 되리라 생각한 그곳에서.

사랑으로 나를 키워준 부모, 그들이 내 아이를 유괴했다!

어느 날, 수아를 집에 두고 마트에 다녀온 은수는 수아가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패닉에 빠져 딸을 찾으러 다니는 은수에게 도착한 메시지. 수아를 데려갔다는 부모의 연락이다. 놀란 은수가 재빨리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 은수의 부모. 은수는 연이어 도착한 수아의 사진을 보며 안심한다.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은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처음 보는 사람이 은수에게 다가와 아는 체하고, 경비원은 은수의 것이라고 낯선 핸드폰을 건네고,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은수와 만났었다며 사진을 보여준다. 일련의 일들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된 가운데 부모로부터 한 통의 우편이 도착한다. '수아는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내용의 편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전화. 은수는 수아를 바꿔달라고 애원하지만, 부모는 다시 걸겠다고 전화를 끊는다. 은수의 상상은 자꾸만 위험한 쪽으로 기울고, 고민 끝에 은수는 전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누구인가?

전남편 연호와의 만남을 통해 듣게 된 충격적인 진실. 은수는 수아를 데려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딸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수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와 마주치고, 그녀를 쫓지만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만다. 남겨진 흔적을 따라 추적을 시작한 은수와 연호. 두 사람은 사건의 시작점이 은수의 어린 시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잃어버린 과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딸을 데려간 이들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그녀는 누구인가? 딸을 되찾기 위해선 모두를 의심해야 한다!

이혼 후 3년 만에 귀국한 어느 여름. 딸이 사라졌다
용의자는 바로 나를 키워준 부모, 그들이 내 아이를 유괴했다!



DRAMA

언노운 피플

Unknown People

김나영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판권 계약
<붉은 열대어> 작가의 차기작



피아노가 울리면

When the Piano Rings

김동하

〈윤석사냥꾼〉 작가의 차기작

【 피아노가 울리면, 살인이 시작된다
천재 피아니스트와 사이코패스의 숙명적 대결! 】

꿈을 보여주는 살인마, 사르파 살파

백동우는 익명의 전화를 받고 이태원의 레즈비언 클럽으로 간다. 클럽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자신의 매니저 윤솔과 함께 있다. 그리고 사르파 살파라 불리는 사이코패스 정신과 의사, 최원장의 실체가 드러난다.

미스터리 스릴러

예술가의 경련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 입성한 한국인 피아니스트 백동우. 절정에 이르던 연주는 왼손의 경련으로 중단되고 만다. 백동우가 자괴감에 빠져 대기실에 있는 사이 수상한 사내가 대기실에 찾아온다. 그는 자신이 백동우의 팬을 유괴했다며 팬의 목숨을 구하려면 두 달 안에 카네기홀에서 재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사라진다. 최근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백동우는 귀국을 서두른다.

아내의 실종

돌아온 집에는 아내가 없다. 백동우는 아내의 유일한 친구 정율미의 남편인 곱슬머리와 만난다. 그를 통해 아내와 정율미가 함께 여행을 갔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다음 날 정율미가 익사체로 발견된다.

연쇄자살? 연쇄살인?

최근 아내가 정율미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들은 백동우는 아내가 정율미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실종 직전 아내의 통화내역에 있는 정율미, 그리고 사르파 살파. 그리고 연쇄자살로 위장된 연쇄살인사건들.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모두 백동우의 연주회를 다녀온 직후 사망했다는 점이다.

아내의 동성애

자신의 공연 이후 사망한 피해자들로 인해 살해용의자 혐의가 드리운 백동우. 아내의 SNS를 살펴보게 되면서 아내가 정율미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정황을 파악한다. 어쩌면 정율미의 남편도 정율미가 가한 협박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백동우는 어렵사리 곱슬머리의 핸드폰을 손에 넣게 된다. 마침내 확인하게 된 동영상 속에는 그의 아내 하지하와 정율미의 성애장면이 담겨있다.

미스터리 스릴러

34살의 몸을 가진 23살 정신의 여자

병실에서 눈을 뜬 연영은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는다. 11년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한 달 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연영이 생각하는 것은 옥상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었다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뿐인 가족이자 동생, 수경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다. 혈혈단신인 연영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은 동생의 절친한 친구 민서의 엄마인 상미였다. 수경이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연영을 납골당에 데려가고, 갈 곳 없는 그녀가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상미는 연영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퇴원해서 상미의 집으로 간 연영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범인보다, 수경이 자살을 택한 이유를 먼저 파헤치기로 한다. 오래전 민서의 친구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하는데, 민서와 수경이가 사실은 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은 언제부터 갈라진 걸까? 학교를 찾아가고,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가며 수경이 자살한 이유를 조사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형사는 수경의 유서를 보관하고 있지만 보여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한다. 진실을 파헤칠수록 미심쩍기만 하다.

범인의 그림자

연영은 휴면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약 두 달 전 누군가 휴면 계좌를 해제하고 잔금을 확인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니, 자신의 이메일은 휴면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다. 누군가 계좌를 열어보고 이메일까지 그녀를 뒷조사한 것이다. 11년 전 옥상에서의 범인은 아직도 연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그녀를 쫓아오는 그림자. 그리고 밝혀진 11년 전의 범인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인물이었다.

또다른 살인, 드러나는 진실

연영이 조사차 만났던 민서의 친구 중 한 명인 선이 살해당한다. 살해당하기 전 본인이 직접 쓴 유서가 발견되고, 거기에는 고백록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거기서부터 수경이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고,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 11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여자
자신을 죽이려 한 범인을 응징하러 나선다! 】



깨어나지 말 걸 그랬어

The Day I Disappeared

김하림

K스릴러 작가 공모전 대상 수상
KOCCA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선정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이레 I-Re

김달리

K스릴러 작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KOCCA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선정

미스터리 스릴러

최고의 요양원 '산티'의 초대

남자친구 도훈과의 불같은 사랑으로 임신을 하게 된 17세 여고생 이레.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레 앞에 도훈의 엄마 서경이 나타난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다면 아이를 낳아도 좋다고 허락한다. 어차피 임신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기도 무리라고 여긴 이레는 고급 요양 시설인 '산티'에 들어간다.

치유의 정원, 유기농 식사, 명상과 개인 교습.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아름다운 공간에 들어선 첫날. 이레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보고 놀라 방으로 도망친다. 산티의 직원은 이레에게 일주일 안에 도망치라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다.

정체불명의 존재, 더미들

멋대로 움직이는 눈자위, 흉측한 수술 자국, 말을 잃어버린 채 유령처럼 숨어 다니는 그들! 뭔가를 단단히 잘못 본 게 틀림없다! 이레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어떻게든 산티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저녁을 먹고 연못을 구경하던 이레는 잉어들 사이에서 떠다니는 시체의 팔을 발견한다. 놀란 이레는 산티의 이사장인 서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서경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레가 실은 임신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망상증에 걸렸다고 말한다.

몇 번의 탈출 시도 끝에 상처만 입은 이레.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서경의 집무실에 침투해서 서류를 훑쳐보다가, 막연했던 예감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일주일 뒤, 나도 저들처럼 될 것이다.

비밀의 문이 열린다

산티는 평범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레는 태워지기 직전의 더미에게서 아래로 내려가라는 단서를 얻는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따라 발견한 연구소. 한편, 서경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이레를 없애기로 다짐한다. 연구소에 들어간 이레는 이곳에서 뇌 수술 실패로 만들어진 더미의 실체를 알게 된다. 마침내 조우한 서경에게, 왜 하필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셨냐고 묻는다. 이레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산티에서 벌어지는 진짜 일들은 무엇일까? 이레는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서경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임신한 여고생 이레, 납친 엄마가 운영하는 비밀 요양원 산티에 들어가다

미스터리 스릴러

20년 만의 재회

영도가 엄마인 청옥을 20년 만에 만난 곳은 한 대학병원의 암센터였다. 오랜 세월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온 두 사람. 청옥은 살 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엄마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영도가 오래도록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인데, 청옥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걸 위해 영도는 청옥의 인생을 되짚으며 '그 물건'을 찾기 시작한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평범한 취준생 호연은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오래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 준미에게서 날아온 편지였다. 20년 만에 딸을 찾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심지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이기까지 하다. 준미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 호연. 호연은 친모가 살인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것도 잠시, 준미로부터 미셀을 만나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먼 길을 돌아

호연은 단서를 얻기 위해 20년 전 준미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 파헤치며, 미셀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한편, 영도도 청옥의 물건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오래전 청옥과 함께 살았던 고향에 내려와, 그곳에서 청옥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먼 길을 돌아 결국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미셀이 있었다.

살인사건의 전말

20년 전 준미는 정원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그가 사는 저택에 가정부로 잠입했다. 정원은 준미를 강간해서 임신하게 만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악질적인 남자였다. 그런데 정원의 아내, 이나가 자신도 남편을 증오했고 있다며, 느닷없이 준미의 복수 계획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죽이기로 약속한 날, 준미가 발견한 건 정원과 이나 두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들이닥치는 경찰. 준미는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는다.

진실의 끝에

청옥은 죽음의 문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준미는 2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다. 그리고 영도와 호연은 드디어 시간 속에 파묻혔던 진실을 알게 된다.

오래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로부터 날아든 편지 한 통!
그녀는 20년 전 살인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비행엄마

Bad Mom

이지은

드라마 판권 계약
K스릴러 작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DRAMA



사라진 나라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Empire

이성진

K스릴러 작가 공모전 당선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팩션 스릴러

역사에 풍문으로 남은 미제 연쇄살인

“근래에 서양인들이 영아를 납치하여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이를 납치하여 잔학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서양인을 알고 있는 자는 관아에 고하라”

1888년 6월, 조선 왕실은 세간에 돌고 있는 영아 살인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포고령을 내렸다. 개화의 거센 물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정말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고종은 다시 어명을 내린다.

“조사 결과 서양인들이 영아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모두 낭설로 밝혀졌다. 향후 이런 풍문을 입 밖에 내는 자들은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또한 풍문에 휘둘러 서양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중벌을 내릴 것이다”

조선 왕실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것일까?

누가 아이들을 아홉 조각으로 자르는가?

미국 공사관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는 찰리 룡의 가방에서 수상한 필름이 발견된다. 필름 안에 있는 두 아이는 얼마 전 누군가에게 납치당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아이들이다. 특별 수사관 김대정은 찰리 룡을 조사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그를 풀어준다. 이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살인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아이를 납치해 정교하게 아홉 조각으로 잘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둔 것이다. 그러자 조선 백성 사이에서는 잔악한 이 행동이 서양인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성난 백성은 서양인이 운영하는 고아원, 성당, 병원 등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끈질긴 수사 끝에 김대정은 의심이 가는 인물 몇 명을 찾는다. 그러나 범인을 확정하기 직전, 고종은 이 사건 자체를 무마시킨다. 백성이 서양인을 공격하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한양에 서양 군대를 주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대정은 수사 기록을 왕실에 모두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23년 후 범인에게서 온 상자

고종이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언급을 금한 탓에, 23년 전 일어났던 영아 연쇄 살인사건은 직접 관련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풍문이라 여긴다. 김대정 역시 어명을 따라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범인이 수사관 김대정에게 보내온 상자에는 당시 사건의 피해자처럼 아홉 조각 난 인형이 들어 있었다. 범인은 어쩌서 당시 수사관이었던 김대정에게 상자를 보낸 것일까? 김대정은 상자 속 단서를 토대로 23년 전에 묻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간다.

개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던 구한말 조선
서양인 영아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팩션 스릴러

심령 스릴러



마귀 The Devil

전건우

K스릴러 작가 공모전 당선

외지인의 등장, 그리고 실종되는 사람들

겨울이 되면 눈에 파묻혀 고립되어 버리는 강원도 산골 마을 소북리. 첫눈이 내릴 무렵, 소북리 위쪽에 자리한 붉은 별장에 외지인이 찾아온다. 누구도 외지인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실종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실종된 현장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이 계속 발견된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소북리의 비극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 가출이라 여기던 사람들도, 실종이 계속되자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혀 수색을 시작하는데... 하지만 소북리에는 이런 말이 내려온다.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아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외톨이 문제가 소년과 말단 순경, 악과 대면하다

어릴 적 겪은 사고로 인해 불길한 일을 감지해내는 능력을 가진 문제아 소년 선우, 그리고 노력 끝에 순경이 된 소북리 출신 말단 형사 동수. 두 사람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쫓던 중 마주치게 되고, 이내 힘을 합친다. 두 사람은 사건의 배경에 외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선량한 얼굴의 외지인은 불 안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서서히 소북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우는 그 외지인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귀신과 말을 튼 여자, 최영선

한편, 외지인 주위를 맴돌던 선우와 동수는 낯선 여자와 마주치게 된다. 자신을 무녀라고 소개한 최영선은 어머니 대부터 마귀를 쫓아왔고, 그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간 마귀가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데리고 집단 자살한 32년 전 사건에 대해 알려준다. 똑같은 사건이 소북리에서도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영선. 세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외지인이 기거하는 붉은 별장으로 향하려 한다.

마귀의 뒤를 쫓는 무당, 마귀의 존재를 알아챈 소년,
그리고 마귀와 맞서 싸우는 말단 순경의 추적 심령 스릴러

다시 돌아왔으나 전과 같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실종됐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돌아온다. 그들은 그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력에 넘친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32년 전 일어났던 사이버 종교 집단 자살 사건은 현재의 소북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그리고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



FILM

시스터 Sister

이두은

바른손 영화 판권 계약
KOCCA K-Story in Japan 선정
일본 문예춘추 번역 출간
2022 SIBF <다시, 이 책> 선정
태국 AMARIN 번역 출간

스릴러 드라마

밀리언달러 키즈, 사건의 시작

장이는 10년 전 연예인 부모와 함께 출연하는 육아예능 프로그램 <밀리언달러 키즈>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스타였다. 엄마의 사고사로 졸지에 방치된 자매가 헤어진 건 벌써 십 년 전. 동생은 아빠와 남고 언니는 외조부모를 따라 떠나면서 자매는 연락이 끊긴다. 여고생인 동생 장이가 포르노를 찍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언니 선이는 십 년 만에 다시 집을 찾는다. 그리고 동생이 아빠 없이 8년 넘게 혼자 살아온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장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선이는 장이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에 직면한다. 지방의 정신병원에 감금된 아빠. 집에 몰래 설치된 수십 대의 CCTV. 장이를 사랑한다는 사이코 청년의 테러. 장이를 계속 훑쳐봤다는 수상한 노숙자 노인. 장이에게 포르노 찍기를 강요한 동급생 아이들. 동생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온라인 닉네임 치타.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장이의 엄마들!

선이는 동생의 주변을 맴돌던 젊은 여자를 추적하다가 동생의 팬사이트를 발견한다. 진실의 실체를 더듬어가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8년 동안 장이에겐 늘 엄마가 있었고, 그들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 엄마들의 정체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들에게 흠뻑 빠진,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랜선맘들이었다. 어린 장이의 팬덤으로 랜선맘들이 생겨났고, 장이가 방치된 후 랜선맘들이 온라인을 넘어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

선이는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내장이 엄마들에게 대한 최종 단서를 얻는다. 장이의 엄마를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드러나는 끔찍한 학대의 증거들과 랜선맘의 은폐를 위해 장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무서운 음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다!

포르노를 찍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사라진 여동생 그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육아예능 프로그램의 허상과 어두운 진실

학원 스릴러

다시 찾아온 D클럽의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맞아 D클럽 회원들은 작년에 촬영이 중단된 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동아리 회장 최진영의 별장으로 다시 모인다. 워크숍 첫날,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주인공 연서는 얼굴을 베인다. 한 아이가 테이블 아래 분명 뭔가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다들 헛것을 봤다고 치부한다.

뺨줄에 목이 걸려 죽을 뻔한 연서

다음날 아침, 1학년생 홍의정이 갑자기 쓰러진다. 쓰러진 의정을 보고 아이들은 패닉에 빠진다. 그때 누군가 음료수 안에 독이 들었다고 소리친다. 연서는 깨진 유리잔에서 흘러나온 얼음을 몰래 주워 방에 있던 화병에 넣고 꽃을 관찰하기로 한다. 꽃병 안 해바라기가 완전히 시들어 있는 걸 발견한 연서. 그 순간 복도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발자국을 따라간다. 그리고 코너를 도는 순간 천장에서 내려와 있던 뺨줄에 목이 걸린다. 죽을 뻔한 연서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민호에게 구출된다. 그날 밤부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태풍, 산사태 그리고 실종

밤 장면의 촬영을 하던 도중, 저택의 문을 열고 진흙범벅이 된 관리인 지수가 뛰어 들어온다. 지수는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유라가 산사태로 사라졌다고 외친다. 아이들은 유라를 찾기 위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숲 속을 뒤흔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들개들의 습격을 받고 저택으로 피신한다. 지수는 태풍과 산사태로 저택은 고립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다. 아이들은 의정의 사고와 유라의 실종 범인을 지수라고 의심한다. 지수를 방에 가둔 아이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어디선가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작년에 죽은 연희가 돌아왔다고 두려워한다. 이때, 방에 갇혀 있던 지수가 두려움에 떨며 소리친다. 방에 뭔가가 있다며 자신을 꺼내달라고 외친다. 지수가 있는 방문을 열려는 순간 커다란 굉음과 저택이 흔들리면서 모두 정신을 잃게 된다.

고립된 깊은 숲 속 외딴 산장에서 벌어지는, 일류 사립고 아이들의 끔찍한 복수극

지난 여름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정신을 차린 아이들이 저택을 덮친 흙더미에 무너진 방을 뚫지만 지수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한편, 저택으로 쓸려온 흙더미 아래 죽었다고 생각했던 강유라가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모두 유라를 구조하지만 깨어나지는 못한다. 그날 밤, 수렵 총을 들고 나타난 지수는 유라를 인질 삼아 아이들을 위협한다. 그 와중에 진영과 지수의 갈등이 폭발하고, 작년 워크숍에서 죽음을 맞이한 연희에 대한 참혹한 내막이 드러난다.



D클럽과 여왕의 여름

D-Club and The Last Summer

박에스터

부산국제영화제 Book to Film 선정



빨간 모자

Red Riding Hood

김지연

부산국제영화제 Book to Film 선정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친구에게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친구 할머니 집을 찾아간 소녀
누가 할머니고 누가 늑대인가?

미스터리 스릴러

사냥꾼

기혁과 경미는 사업에 실패하고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연락을 끊고 지내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고, 시골에 있는 수자를 찾아갔지만 수자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다. 기혁은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욕을 퍼붓는다. 기혁과 경미는 수자의 집을 떠나려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는데, 수자가 목을 맨 채 숨겨 있다. 혼란 속에서 기혁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살 현장을 강도 살해 현장처럼 꾸민다.

늑대

한참 후에 두 사람이 그 집을 빠져나오는 광경을 수자의 친구인 정임이 목격한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수자가 살해당한 것을 보고는 충격에 빠진다. 정임은 그 두 사람이 짓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임은 기혁과 경미를 살해하는 데 그들의 아들인 민호가 가담하도록 수를 쓰고 청부살해를 계획한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기혁은 빨리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지만 수자의 죽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혁은 수자의 죽음을 확인해줄 사람으로 딸 민주를 수자의 집으로 보낸다.

할머니

정임은 민주가 친구인 현미와 함께 수자의 집을 찾아오자, 기혁과 경미를 더 증오하게 된다. 민주에게는 아무 말 않고 자신이 수자인 척한다. 민주는 아주 어릴 때를 빼고는 수자를 만난 적이 없으므로 정임을 할머니라 생각한다. 기혁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당황한다. 정임이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내 협박하자, 정임이 시키는 대로 경미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인 민호의 손에 의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민주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현미와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돌리고 잠적한다.

빨간 모자

현미는 자신의 보증금을 들고 갑자기 사라진 민주를 찾으러 수자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할머니가 뛰어나와 자신을 반기며 민주라고 부른다. 현미는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수자의 집에서 자신이 민주처럼 살기로 한다. 뒤늦게 현미에게 연락을 해온 민주는 현미가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말하지만 현미는 민주가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노라 말한다. 다음 날, 현미는 산책을 나간 할머니의 뒤를 밟았다가 숲에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는데...

범죄 스릴러

기억을 잃은 자

이수인 경감은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로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연쇄살인마를 쫓는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해 시력과 기억을 잃는다. 때문에 현장을 분석해 자신이 쫓던 연쇄살인마를 검거하려면 한지수 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수인 경감은 연쇄살인마의 사건을 분석하며 기억을 잃기 전의 자신이 어떻게 그를 쫓아갔는지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메시지가 있는 연쇄살인마

프로파일러 김현은 난항에 빠진 살인사건 수사에 투입되어 용의자들의 범죄를 입증하려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늘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는 범인으로 확실한 용의자들이 증거 부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에 절망한다. 그리고 경찰과 사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해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벌하고자 한다. 김현은 무죄판결을 받은 범인들을 그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재현해 살해하기 시작한다.

밝혀지는 진실

오대영 형사과정은 연쇄살인마 김현을 범정에 세우기 위해 한지수 형사와 치료 중인 이수인 경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이수인은 한지수 형사와의 세 번의 현장검증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 등으로 자신이 연쇄살인마 김현이라는 걸 추론해낸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살인사건들에 대해 마치 기억나는 것처럼 연기하며 연쇄살인마 김현에 맞춰 간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현장을 검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

진짜 카피캣

한지수는 실은 이수인이 기억을 되찾도록 해 연쇄살인마 김현으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끝냈음에도 수인이 기억을 되찾지 못했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안다. 수인이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 한지수가 꾸민 일이다. 한지수는 오대영 과정의 지시에 따라 이수인을 속여서라도 범정에 세우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수인의 기억이 회복되면서, 그가 흑시 방화사건의 용의자를 살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 두 사람은 진짜 카피캣을 쫓는다.

기억과 시력을 잃은 형사가 본능적인 감각만으로 모방 범죄 연쇄살인범을 잡는다



현장검증

On-Site Inspection

이종관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선정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인도네시아 PT Gramedia 번역 출간
대만 고보출판그룹 번역 출간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붉은 열대어

The Red Tropical Fish

김나영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2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아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인 남편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다

대숲에서 일어난 일

진실을 말해달라는 서린의 부탁에 희주는 대숲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한다. 열다섯 살의 희주를 강간한 두 명의 소년들은 한태현과 강준성이었다. 서린은 태현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냐고 묻지만 희주는 가만히 웃을 뿐이다.

이른 새벽, 서린은 낯선 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기절한다. 눈을 뜬 곳은 사방이 나무로 가득한 숲. 희주 또한 젊은 남자에게 잡혀 막 도착한다. 희주는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협박하는 윤성이, 자신을 강간했던 강준성의 동생임을 알게 된다. 대숲에서의 일을 보았다며, 그 강렬한 쾌락을 잊지 못한다는 윤성에게서 절망과 슬픔을 느끼는 희주. 위험한 순간, 서린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두 사람은 불빛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미스터리 스킬러

코마 상태의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추락 사고로 남편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졌던 서린은 2년 만에 병실에서 홀로 깨어난다. 추락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사고 이전 2년을 포함해 총 4년간의 기억이 소실된 상태다. 그런 서린을 찾아온 형사는 추락 사고가 아닌 남편 태현에 대해 캐묻는다. 의문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지고, 형사는 태현이 과거 있었던 자곡동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는 말을 꺼낸다.

허물어진 공예소

서린의 대학 친구이자, 태현의 남동생인 정호는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서린은 직접 자곡동 연쇄살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정호의 애인인 희주와 함께 태현의 공예소가 있던 곳을 찾아가지만, 관리인은 추락 사고 직후 정호가 공예소를 팔고 허물었다고 말해준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였지만, 사건에 대해 침묵하기만 하는 정호에게 의구심이 생겨날 무렵, 문득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떠오른다.

저는 그 사건의 생존자예요

자신을 생존자라 말하는 여자.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사건의 생존자인 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자곡동에서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희주의 차에 탄 서린은 기시감을 느낀다. 서린은 잃어버린 기억 속 목소리의 주인이 희주임을 직감한다.

희주의 의문스러운 말들. 점점 약해져만 가는 태현에 대한 신뢰.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정호의 기색이 심상치 않고, 서린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줍는다. 사진 속에 있는 건 기괴하게 여장을 한 태현의 모습.

미스터리 스킬러

죽은 엄마의 묘에 묻혀 있는 비지금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촌 부근. 이선은 아들인 준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채 마스크를 쓴다. 그녀는 매일 같이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연습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이선은 한성 병원의 차기 병원장인 남편이 자신의 엄마를 수술 중 고의로 죽인 것 같다는 정황을 포착한 이후, 죽은 엄마의 묘에 100억 원의 비지금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원자의 메시지

이선은 숨겨진 비지금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로 결심한다. 언제부터가 조용히 제 곁을 떠도는 낯선 이들을 감지하고 피하려 하지만, 눈앞에서 아이를 빼앗긴다. 이선은 남편이 사람들을 고용해 아이를 납치한 것이라고 경찰에게 호소하지만, 담당 형사인 진목은 오히려 이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

가까스로 발견한 아이의 근처엔 시체가 놓여 있다. 그 시체엔 이선의 머리카락과 지문 등이 묻어 있다. 모든 정황이 이선이 돈을 목적으로 살해했을 거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꼼짝없이 붙잡힌 이선에게 이 상황에서 빼내 주겠다는 어느 구원자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다.

100억 원의 미끼

이선은 메시지를 따라 움직인 끝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한성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당한 이들로, 숨겨진 비지금을 탈취하기 위해 모인 그룹이다. 이선은 틈을 타 그들을 이간질시키고, 끝내 우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이선은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100억 원의 돈을 미끼로 도주를 시작한다.

이선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던 형사 진목은 태도를 바꿔 이선에게 총을 겨누며 100억 원의 현재 위치를 묻는다. 숨겨놓은 아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진목뿐이다. 이선은 진목과의 싸움 끝에 가까스로 벗어나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맨다.

무덤 속에서 발견된 아이

아이는 바로 처음 100억 원이 발견됐던 무덤 안, 그 안에서 열이 끓는 채로 발견된다. 이선은 시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구해달라고 사정하나, 돈을 되찾게 된 시아버지는 이선의 부탁을 저버린다. 돈도, 아이도,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선은 결국 시아버지 저택에 불을 질러 모두 다 끝장 나는 파국으로 치달려 한다.

남편이 집도한 수술 후 사망한 엄마의 묘에 100억 원의 병원 비지금이 묻혀 있다 피로 얼룩진 자금을 들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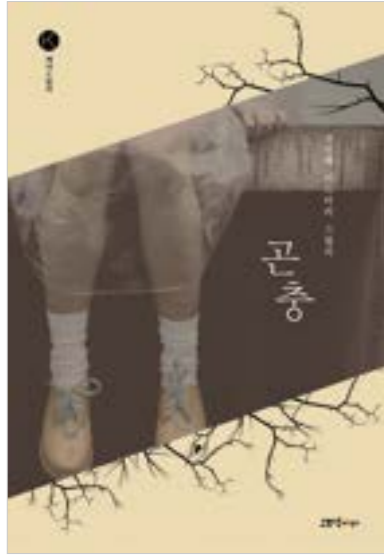


캐리어

Carrier

김혜빈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곤충 The Insect

장민혜

부산국제영화제 Book to Film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E-IP 관객상 수상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태국 SE-EDUCATION 번역 출간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말레이시아 Patriots Publishing 번역 출간

휴먼 미스터리 스릴러

시체로 돌아온 딸과 용의자 소년

현지는 3년 전 실종된 딸 예린을 찾기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단을 붙이러 다닌다. 어느 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신문 배달 소년 다인과 마주친다. 다인은 현지가 부착한 전단을 보자 도망친다. 현지는 형사 기철에게 딸이 사망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딱정벌레에 주목한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딱정벌레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년 다인에 대해 제보 받는다. 한편, 현지는 다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익명의 편지를 받는다.

또 발견되는 소녀의 변사체

법정에 선 다인. 검사는 엄마와 여동생이 동반자살하고 난 후, 다인이 시신에서 생기는 딱정벌레에 집착해 수집해왔다고 말한다. 사건 현장의 기온과 습도가 표시된 두 번째 익명의 편지를 받은 현지. 그녀는 예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충의 생장 시간으로 시신이 다른 곳에서 옮겨졌음을 알아낸다. 또다른 소녀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다인은 불구속재판을 받게 된다. 현지는 갈 곳 없는 다인을 집으로 데려온다.

피해자와 용의자와의 동거

현지는 다인에게서 사건의 열쇠를 얻고자 하지만, 다인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현지는 다인의 해박한 딱정벌레 지식에 놀란다. 다인의 딱정벌레는 불이 나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는 녀석이다. 다인은 죽게 된다면 불길 속에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진범은 누구인가?

현지는 다인의 딱정벌레가 환각제의 특정 성분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진범을 찾는다. 다인은 고아가 된 후에 만난 조아저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재판 도중 두 번째 소녀를 죽인 것을 알게 된다. 현지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인은 현지를 위해 사라진다.

살인으로 딸을 잃은 미혼모!
살해 용의자 곤충 소년을 만나 진범을 추적한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

현지는 3년 전 예린을 조아저씨에게 데려간 것이 다인임을 알게 된다. 다인이 조아저씨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게 된 현지.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살인 미수 누명까지 썼던 다인은 인질이 된 현지를 구하기 위해 조아저씨를 숲으로 유인한다. 숲속에서 다인과 조는 불길에 휩싸이고, 수많은 딱정벌레가 떼를 지어 화재 현장으로 날아간다. 현지는 불길을 쫓아 달려간다.

범죄 스릴러

가면무도회

J그룹 3세 조성주의 청계산 산장에서 파티가 열린다. 30여 명의 초대 손님뿐 아니라 호스트와 진행요원까지 모두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고 있다. 아홉시가 넘은 시각. 바텐더로 있던 여우 가면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 파티가 끝나고 인질극이 시작된 것이다.

인질극의 시작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산장 현관 앞 15인승 승합차 하부에 다량의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협상 담당자 허완은 인질범과 대화를 시작한다. 인질범은 자신을 마스터라 부르라고 하며, 30여 명의 인질을 데리고 있다고 말한다.

석방

두 번째 통화에서 마스터는 몸값을 낼 수 있는 인질 15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준다. 그는 몸값으로 5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요구한다. 다음 날 낮, 인질 가족이 구입해온 다이아몬드를 경찰이 산장에 건네준다. 마스터는 다이아몬드를 숨겨 나가는 것에 동의한 여자 10명을 1차로 석방한다. 그리고 후에 총 네 차례에 걸쳐 25명을 석방하지만, 이들이 지나도록 7명의 인질은 빠져 나오지 못한다.

청계산장의 재판

마스터는 남은 7명의 인질을 피고로 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엄포한다. 그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초유의 공개 재판을 전국으로 송출한다. 재판을 통해 다루지는 사건은 9년 전 일어난, 여고생 민지영 집단 성폭행 살인사건. 이미 범인이 밝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스터는 진범은 피고 다섯 명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진실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 진압팀은 무력 진입을하기로 결정한다. 인질 두 명은 죽고, 나머지 다섯은 부상을 입었지만 구출해낸다. 마스터는 이미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상태였다.

끝나지 않은 심판

며칠 후 서울대병원. 살아남은 인질들이 병원 특실에 누워 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병원 지하 시신 안치실에서 올라온 이동침대가 조성주의 입원실로 들어선다.

최상류층 자제들의 쾌락적 범죄에 여동생을 잃은 남녀
이들이 8년을 준비한 복수가 산장의 인질극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청계산장의 재판 Hostages Trial

박은우

미국 유니버설TV 옵션 계약
KOCCA 스토리공모대전 우수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 Story to Film 선정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KOCCA K-Story in Japan 선정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운석사냥꾼

Meteor Hunter

김용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선정

미스터리 스릴러

밤하늘에 떨어진 운석과 사라진 딸

어느 날 구와마을에 운석이 떨어지고 마을엔 운석사냥꾼과 외지인이 들끓는다. 운석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희령과 면수 부부는 딸 별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별이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끊긴 곳은 우이지 저수지. 부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만 시골 경찰의 태도는 미적지근하다. 전직 기자 면수는 직접 카메라와 취재 수첩을 가지고 별이를 찾아 나선다.

16년 전 희령의 비밀

별이의 실종 경로를 추적하던 중 면수는 저수지에서 약초꾼을 만나고 그의 태도에서 몹시도 꺼림칙한 기분을 느낀다. 한적한 시골 마을은 어느새 수상한 곳으로 바뀌고 면수는 16년 전 구와마을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과 마주하는데, 부인 희령이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란 것을 알게 된다. 당시 방화 용의자는 장로 전종만과 사이비교도 황상태. 희령은 진범을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장로의 달콤한 제안에 황상태가 불을 질렀다 거짓 증언을 한다.

별이의 흔적과 용의자들의 죽음

면수는 황상태가 희령에게 복수심을 품고 별이를 유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황상태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황상태는 화상 때문에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부부는 전장로의 하수인인 최집사가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최집사의 축사로 찾아가는다. 그곳에서 김밥 한 덩어리와 개 목줄 그리고 운석을 발견한다.

용의자였던 약초꾼, 황상태, 최집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그들을 만났던 면수가 오히려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황상태에게서 취득한 사진을 희령에게 남긴다. 그것은 죄책감을 느낀 희령이 황상태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황상태의 딸이 커다란 개와 함께 개집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었다.

「운석이 떨어지던 날, 16년 전 마을에 벌어진 끔찍한 집단살해 사건을 다시 마주하다」

드러나는 전종만의 실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죽도록 불을 질러라. 그렇지 않으면 딸이 죽을 것이다.”

전장로는 구와마을에 떨어진 운석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16년 전처럼 운석사냥꾼들과 마을 주민들을 불로 정화할 계획을 세운다. 희령은 전장로의 집에서 결박된 채 눈을 뜬다. 희령의 손에 들린 리모컨은 별이와 교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 한쪽만을 살릴 수 있다. 16년 전 황상태가 함정에 빠졌던 것처럼 이젠 희령이 딸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몰살시켜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mystery

미스터리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이전에 알았던 사실을 모두 무너뜨리는 반전 드라마가 숨 실 틈 없이 몰아칩니다. 고즈넉이엔티의 미스터리 소설은 평범한 삶에 내재된 어두운 미로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 감춰진 감동과 휴머니티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리 작품목록



동물농장

김이은

재벌가의 비자금 천역을 빼돌리기 위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 공룡기업과 싸우는 루저들의 유쾌하고도 기막힌 사기극



하인학교

김이은

벼랑 끝에 몰린 한서정은 하인학교에 입학한다. 하인으로 살아온 삶을 버리고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라한의 버튼

홍단

복수를 원하는 인간들을 찾아다니며 아라한은 유혹한다. '버튼을 누르시게, 증오하는 자에게 3천만 원어치의 불행을 내려줄 테니!'



코인

방현희

가상화폐 코인이 대폭락하고 천재 개발자 현수가 사라졌다. 발레리나 현지는 오빠 현수를 찾는 과정에서 폭락 사태의 비밀을 마주한다.



호러 픽션 나이트

반고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의 등짝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엿보는 공포의 감각



돌림판 작가 허아른의 소설 분투기

허아른

단어를 넣으면 소설이 나온다. 독자가 주는 단어로 태어나는 신개념 소설 탄생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정세진

독창적인 설정과 충격적인 상상력의 조합. 우리를 놀라게 할 정세진의 두 번째 세계



정말일까?

기민세

미래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제 전화를 받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정세진

숨겨둔 비밀을 들려주세요. 1억 원의 가치가 될 만한 치명적인 결말!



꿈 죽어도 힙합

정재환

세계 멸망이 코앞이어도 재미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정재환 작가의 반전 넘치는 이야기. 웃음과 서스펜스로 중무장한 요지경의 상상력을 만나다!



여섯 번째 2월 29일

송경혁

4년에 한 번, 그날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그때마다 수현은 진실의 모자이크 조각을 받았다



이선동 클린센터

권정희

귀신 보는 막 서른 된 청년 이선동이 유품을 청소해주는 클린센터에 유품 정리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뺨넘버

임선경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사람들의 등에 빛나는 녹색 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잔여 생존일. 나는 보는 자가 되었다



가려진 문틈의 아이

구혜경

서른 두 살의 젊은 파출부 남보민이 고급아파트 힐스타운에서 일하면서 얽히고설킨 세 집의 음모에 말려들어 간다!



피터 래빗 죽이기

이찬영

잔인하고 지능적인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지폐증 소년과 연쇄 살인범의 기상천외한 대결

불법 도박장의 잘나가는 매니저

명문대 휴학생 강태은. 집안이 망해 갓난쟁이 때 무일푼 엄마를 따라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엄마의 현자인 동거남이 태은을 성폭행하려는 바람에 엄마는 남자의 등에 칼을 꽂았다. 필리핀 감옥에 갇힌 엄마와 떨어져 한국에서 홀로 약삭같이 살아온 세월이 5년. 태은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은 불법 도박장에서 매니저로 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우라는 남자가 찾아온다. 그리고 태은의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지금은 어엿한 재벌그룹 마루의 회장이 된 최현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농장 프로젝트의 서막

선우의 아버지 또한 최현백의 만행으로 장애를 입어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이제 태은을 게임의 말로 내세워 복수를 시작할 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선우가 짜놓은 계획대로 마루그룹 최씨 일가로 잠입하려는 태은. 이어 최현백에게 가족과 재산과 희망을 잃은 피해자들이 속속 동물농장 프로젝트의 멤버로 모인다. 남편을 잃은 태은의 모친과 권모술수에 능한 태은 모의 필리핀 감옥 동기 손정희, 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불법 도박장 사장 이관석, 마루그룹에 기술과 노하우를 빼앗긴 천재 앱 개발자 유창수와 이도형. 선우의 지휘 아래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모두 함께 동시에 움직이지만, 또 누군가는 은밀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동물농장 앱의 정체

마루그룹에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인 모바일 게임 앱 '동물농장'은 선우의 지시로 유창수와 이도형이 개발했다. 여러 동물 캐릭터가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고 약당 돼지를 잡아 상금과 선물을 받는 스토리의 게임. 동시에 태은에게는 '김선우 호출 버튼'이다. 태은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동물농장 앱 화면에 떠오르는 부스터를 누르면 언제나 선우가 달려와 뒤처리를 한다. 그리고 선우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최현백의 차남 최재건에게 실권자인 아버지와 형을 누르고 마루그룹의 새로운 의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쇼케이스 아이템이기도 하다.

반전을 거듭하는 도박 게임

공략할 대상들이 정해졌다. 먼저 최현백의 둘째 며느리이자 미술관장 윤소희에게 딸 최현지를 무기로 거금을 뜯어낼 것이다. 최현백의 장남 최재곤의 와이프에게 아들의 병역 비리를 문제 삼아 그 두 배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낼 것이다. 그러나 동물농장 멤버들의 최종 목표는 1000억! 그러려면 장남 최재곤을 필리핀의 불법 카지노로 끌어들이야 한다. 지금부터 마루그룹이 돈세탁한 비자금 1000억을 감쪽같이 빼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재벌가의 비자금 천억을 빼돌리기 위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
공룡기업과 싸우는 루저들의 유쾌하고도 기막힌 사기극]



동물농장

Animal Farm

김이은

<하인학교> 작가의 차기작



아라한의 버튼

Arhat's Button

홍단

미스터리

요상한 도인과 더 요상한 버튼

개량한복을 입고 힙스터 헤드셋을 착용한 장발의 사내, 아라한. 그는 미움에 휩싸인 이들을 찾아다니며 싸구려 금동 버튼을 내민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미워하는 상대에게 3천만 원어치의 불행이 내려질 거라 유혹한다. 수상하지만 솔깃한 그의 제안에 만년 2등인 신인 미술 작가 은희는 고민에 빠진다. 늘 1등인 라이벌 작가 금희를 제치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지난날의 수모를 설욕하길 바라며 버튼을 누르는데……. 그 순간, 지독하게 리듬이 반복되는 볼레로가 울려 퍼진다.

지독한 증오와 더 지독한 업보

아라한의 버튼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KARMA(업보)'. 버튼을 누르면 미워하는 상대가 3천만 원만큼 불행해진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보처럼 누른 자에게도 불행을 내린다. 아라한은 다음 타깃으로 은희의 복수 대상이었던 금희를 찾아가고, 버튼은 이렇게 인연의 연쇄를 좋아하여 미워하는 자와 미움받는 자를 모두 찾아가고, 마음 깊이 품은 증오를 부정하던, 촉망받는 미술 작가 금희는 아라한이 내민 버튼의 유혹에 흔들린다.

잔혹한 선택과 더 잔혹한 굴레

금희 또한 자신의 가난을 조롱해온 성공한 젊은 사업가 주연을 떠올리며 버튼을 누르고 만다. 버튼이 놀리자마자 어슬렁거리던 마구니들이 달려들어 금희를 에워싼다. 업보가 내려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라한은 서둘러 돌아선다. 착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한다. 복수의 배턴은 금희에서 주연으로, 주연에서 원우로, 원우에서 지민으로 하염없이 이어진다.

미련한 인간과 더 미련한 존재

아라한의 버튼이 내리는 불행은 왜 하필 3천만 원어치인 걸까? 그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죽임을 당해 한을 품었기에 이승에 남았고, 세존에게 과업을 받아 '아라한'이 됐다. 그동안 과업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살아생전의 미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런 그는 처음으로 버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 지민을 만나면서 스스로도 미련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자신을 죽인 자를 찾아 나서는데……. 아라한은 마지막 과업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복수를 원하는 인간들을 찾아다니며 아라한은 유혹한다
“버튼을 누르시게, 증오하는 자에게 3천만 원어치의 불행을 내려줄 테니!”

미스터리

당신과 가까운 곳에

유명한 심령 스폿을 찾은 미스터리 동호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는 말에 재미 삼아 실제로 겪은 괴담을 이야기하는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제가 문틈으로 뭘 봤는지 아세요? 바로 물구나무를 서서 기괴하게 걸어가 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시체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놀림을 피해 외딴 화장실로 숨어든 일주. 화장실 벽에 적힌 낙서를 보고 무심코 답글을 남겼다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답장을 받는다. 누군지 모를 이와 주고 받는 필담. 그저 장난이었던 그 행동은 일주를 끔찍한 파국으로 이끄는 데…….

벽 너머의 소리

종이컵 전화기로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고생. 절친 진아를 위해 짝사랑 오빠를 도청하던 중 진아가 큰 위험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가진 거라고는 빛바랜 종이컵뿐, 과연 진아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과거로부터의 해방

매일같이 술을 들이붓던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고 나면 기억을 잃게 됐다. 그리고 눈을 뜬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알 수 없는 흔적을 발견하다. 하지만 그 흔적들이 이상하게도 뉴스에서 나오는 증거처럼 보인다. 술에 취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검은 짐승들

차에 관한 글을 쓰며 전국을 떠돌던 선비는 갑작스럽게 다친 종을 치료하려 산속의 한 마을에 머무른다. 마을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곳은 노인과의 아이가 없는 기이한 마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곳에 재앙의 근원이 있다.

제3의 종

열차 안에서 대뜸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는 초로의 남자. 반강제로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는 보답이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물갈퀴였네. 아내의 손에 물갈퀴가 생긴 거야.”

귀신은 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난 뒤부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꾸만 인기척이 난다. 나는 그것이 귀신이라 믿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측은하게만 여길 뿐이다. 참다못한 나는 귀신을 증명하기 위해 심령 스폿으로 유명한 폐병원을 찾아가기로 한다. 내겐 귀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의 등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엿보는 공포의 감각



호러 픽션 나이트

Horror Fiction Night

반고훈

베트남 Lightbooks 번역 출간



DRAMA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I Did My Best

정세진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몬스터유니온 드라마 판권 계약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스토리마켓 선정

독창적인 설정과 충격적인
상상력의 조합

우리를 놀라게 할 정세진의
두 번째 세계

미스터리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어려운 형편에 가족들에게 짐만 되다가 떠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다. 이제껏 가져본 적 없는 호화롭고 거대한 저택. 이제 이곳에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는데, 땅에서 스물여덟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안티 바이러스

나를 버리고 도망간 부모의 빚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할머니는 나를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무(無)의 존재로 길렀다. 올해 내가 아마 한 스무 살쯤 됐으려나……. 유일한 피붙이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내게 낯선 남자가 찾아와 말했다. 내가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고.

죽어도 좋아

마흔 평생 제대로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응수는 선애에게 첫눈에 반한다. 열렬한 구애 끝에 그녀의 마음을 얻어 결혼까지 약속했다. 행복하지만 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조용히 다가왔다. "저 여자가 전남편을 셋이나 죽이고 타년 보험금이 무려 13억이나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걸 알고도 사랑하는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다!

조작된 기억

나의 오랜 벗이자 동업자인 오태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놈이고, 방금 그에게 잔인한 복수를 마친 참이다. 속이 시원해야 마땅한 일인데, 어쩐지 개운치가 않다. 오태수가 정말 내 아내와 딸을 죽였을까? 내 아내와 딸은 정말 죽은 걸까? 아니, 오태수와 내가 친구 사이긴 했던가?

우리 별엔 왜 왔니

나는 지구인들의 몸을 빌려 외계인들에게 국내 관광을 시켜주는 여행 가이드 회사에서 일한다. 스무 마리의 외계인과 함께 투어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오늘 투어에 동행했던 외계인 하나가 은밀히 나를 불러냈다. "나, 일생일대의 소원이 생겼어."

지극히 사적인 세계

루시드드림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게임기를 손에 쥐었다.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계에 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친해진 한 유저가 내게 당부했다. "이곳에서 만난 유저와 절대로 현실에서 만나지 말라"고. 그런데 옆집에 저 남자가 꼭 게임 속 그 남자 같단 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너바나엔터테인먼트. 그곳은 대놓고 인기 가수들을 모방해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들을 육성하는 곳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월드스타 BTX를 모방한 VTX로 월드투어 무대에 서는 것. 최선을 다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 무대, 어찌해야 할까?

미스터리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딸을 납치했다며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낸 납치범. 그는 부모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큰 비밀을 하나 요구하는데……. 부부는 1억에 맞먹는 어떤 비밀들 털어놓을까.

인터뷰

국내 경제 시장을 통째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전략가. 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10년을 모두 알고 있으니깐."

어쩌면 운이 좋아 우연처럼

행운을 맞닥뜨리면 딱 그만한 크기의 불행이 따라붙는 이상한 운명. 그리고 찾아온 다시 없을 일생일대의 행운, 그녀를 만났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만큼의 불행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행운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적

어제 2층에 주차해둔 차가 지하에 가 있고, 어제 마트에서 사다 둔 새 우유가 갑자기 절반이나 줄어 있다. 누군가, 내 삶을 도둑질하고 있다.

산 지들의 땅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황폐해진 땅. 거기 홀로 사는 사내는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사람들의 물건을 주문 받아 찾아주는 대가로 살아간다.

나를 버릴지라도

갑자기 납치되어 섬으로 끌려온 은별과 해영. 빛도 없는 작고 좁은 방에 갇혀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두 소녀의 기적 같은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지만 나의 시간은 멈췄다

어린 모습에서 늙지 않는 하이랜더증후군에 걸린 열여덟 소년. 입양 가지 못해 줄곧 보육원에 있는 소년은 여섯 살인 척 위장해 입양될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알 만큼 알아버린 그는 여섯 살인 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숨겨둔 비밀을 들려주세요
1억 원의 가치가 될 만한 치명적인 걸로!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I'm Not Such a Bad Person

정세진



DRAMA

하인학교

Servant School

김이은

드라마 판권 계약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튀르키예 Nemesis 번역 출간

미스터리

문 너머, 세상의 바깥

한서정은 최고급 리조트 솔라즈를 외부와 구분 짓는 측백나무 숲 한구석으로 향한다. 좁디좁은 수풀 사이를 파고들어 어딘가 음산해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선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깊은 지하로 내려가자 눈앞에 육성급 호텔처럼 화려한 공간이 펼쳐진다. 그곳은 하인학교. '세상의 바깥'이라 불리는 곳. 하인처럼 살아온 이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곳. 돌아갈 곳이 없는 한서정은 하인학교에 입학한다.

거짓된 삶, 새로운 세상

한서정의 삶은 단란했다. 부유했던 집안은 망했고, 가족을 전부 잃었다. 이후 과거를 숨기고 명문대생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그 거짓된 삶마저도 모조리 무너졌다. 사기, 횡령, 살인 혐의를 받게 된 것. 한서정이 갈 곳은 어릴 적 친구 이진욱이 알려준 하인학교뿐이었다. 하인으로 들어가 주인이 된다. 오직 일에만 살아남는다. 하인학교 학생들의 목표는 재벌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우고 주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하니까. 한서정은 하인학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하릴없이 그곳에 스며든다.

지하에서 고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인학교 학생들은 재벌인 타깃을 전방위로 분석하고 타깃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섭렵한다. 가학적인 방식까지 동원되고 뒤쳐진 학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 잔혹한 과정을 견뎌낸 단 한 명만이 재벌이 될 기회를 얻는다. 나 날이 부서지며 견디던 사이, 한서정과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던 강유진이 사라진다. 그리고 한서정은 이진욱이 교장의 심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인지 한서정을 돕는 이진욱. 그의 조연대로 한서정은 강유진을 찾기 위해 교장실에 숨어든다.

욕망의 끝, 거대한 힘의 실체

교장실에서 한서정은 곧바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졸업생 전금희에게 들킨다. 한서정에게 호기심이 생긴 전금희는 베일에 싸인 방의 문을 열어 한서정을 들여보낸다. 그곳에서 한서정은 하인학교의 비밀을 마주한다. 학생들을 정말 재벌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하인학교에 숨겨진 힘의 실체. 한서정은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일 등으로 졸업해야만 한다. 삶을 뒤집을 방법은 그것뿐이니까.

벼랑 끝에 몰린 한서정은 하인학교에 입학한다
하인으로 살아온 삶을 버리고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미스터리

코인이 무너졌고 그가 사라졌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K-코인이 폭락했다. 천재 개발자 현수는 종적을 감췄다.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관련 기업들은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그날부터 현수의 유일한 가족 현지의 주변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한다. 그 탓에 발레 콩쿠르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습에 집중하지 못한다. 오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니 오빠가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것은 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던 중 또 한 사람, 제리라는 남자가 현지에게 찾아온다.

진실과 거짓은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비트대마왕 제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제리. 현수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이며, 현재는 동업 관계이고, 현수를 찾으려면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반신반의하는 현지. 두 사람은 현수의 방에서 무수한 CCTV 화면을 발견한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토록 경계한 걸까. 현수의 또 다른 동업자였던 케이파운데이션 개발팀 팀장 안성철은 제리에게 거래를 청한다. 값은 톡톡히 치를 테니 현지를 자신의 앞에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성철. 제리는 성철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어떤 거짓말은 운명에서 나와 세상을 떠돈다

제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현지는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무리를 마주한다. 반사적으로 뒤돌아 달아나는 현지. 어렵게 도망친 뒤 정체 모를 무리의 추적을 피해 고대하던 콩쿠르를 무사히 치른다. 제리는 현지를 다시 만나 해명하고, 현지는 현수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기에 한 번 더 제리와 함께하기로 한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현수가 살던, 자살을 시도했던 옛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현수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다. 이내 이것들이 현수가 남긴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남겨진 흔적을 따라 그가 있는 곳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는 뉴스가 퍼진다. 두바이에서 블록체인의 '위버먼 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것. 제리와 현지, 성철은 그것이 현수가 비밀리에 준비해오던 프로젝트라는 걸 알아챈다. 현지와 제리는 현수를 찾아 해외로 간다. 시시각각 바뀌는 현수의 메시지에 따라 추적자들을 따돌리며 이동하는 두 사람. 그사이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를 만나 위기에 처하고, 이전과는 수준이 다른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현수의 행방. 현지는 끝없이 깊은 의문에 빠진다. 이 거대한 사건이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리를, 현수를 믿어도 되는 걸까?

가상화폐 코인이 대폭락하고 천재 개발자 현수가 사라졌다.
발레리나 현지는 오빠 현수를 찾는 과정에서 폭락 사태의 비밀을 마주한다.



코인

Coin

방현희



돌림판 작가 허아른의 소설 분투기

허아른

미스터리

프랑스 인형과 여행하는 남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 무심코 쳐다본 옆자리에는 40대 남성이 프랑스 인형을 안고 있다. 인형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다. 저 인형의 눈, 나를 보고 있다.

마시멜로는 28개

시급이 센 생동성 실험에 참가했다. 방에는 나만 앉아 있고, 옆방에서는 ‘딱’ 하고 뭔가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한 남자가 들어와 마시멜로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내 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말한다.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찻찻한 마시멜로, 나는 이것 먹어야 하는 걸까?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갔다가 매우 부유해 보이는 사람의 지갑을 얻었다. 지갑에 꽂혀 있는 건, 딱 봐도 좋은 아파트 카드키. 마스크에 모자까지 단단히 쓰고 간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집 주인이 나오면 돌려주고, 아니면 빈집을 텅대 계획은 완벽하다. 이거야말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인면분

업산이라 불리는 이 산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똥이 있다. 사람들은 그걸 인면분이라 부른다. 산을 뒤흔치고 뒤흔쳐 겨우 찾아낸 인면분. 인면분을 찾은 놀라움도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쫓아오기 시작한다. 이제 이 산을 탈출해야 한다. 근데 이 산, 조금 덥고 어지러운 거 같다.

아이스크림의 불문율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조용하고 푸근하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딸이 학교를 갔다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사주는 사람은 따라가도 된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도 된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 같이 말한다. “아이스크림은 괜찮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만 되는 걸까?

단어를 넣으면 소설이 나온다
독자가 주는 단어로 태어나는 신개념 소설 탄생

미스터리

한 통의 전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 중인 24살의 수진, 어느 날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20년 후 미래의 자신의 딸,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전화에 수진은 황당해하지만 이내 장난 전화로 치부해버리고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의 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던 지연의 전화는 약속한 날이 되자 다시 걸려오고 수진은 놀라며 다시 그 전화를 받는다. 장난 전화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 애쓰지만 오히려 미래에 수진이 유학에 실패하고 교수가 되지 못한다는 지연의 말을 듣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수진을 물들이는 전화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에 몇 년간 이를 준비해온 수진에게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수진은 슬슬 지연의 말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수진은 절친인 한나를 비롯한 친구들, 남자 친구인 혁건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지만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전화가 계속될수록 수진의 혼란만 가중된다. 혼란 속에서 어느새 지연의 전화는 수진의 일상 전반을 물들이게 되고 수진은 지연의 전화를 더 이상 장난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엄마, 아빠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수진이 여전히 지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지연은 더 큰 폭탄을 터트린다. 수진이 어떻게 유학에 실패하고 왜 교수가 되지 못하는지, 결혼 후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지연은 딸의 입장에서 말해준다. 그동안 삶이 힘겨웠는지 울음을 터트리는 지연 앞에서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외친다.

“엄마, 남자 친구랑 헤어져. 아빠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엄마 본인의 인생을 살아.”

미래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제 전화를 받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정말일까?

이별하고 유학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라는 지연의 말에 수진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지연의 전화가, 수진의 미래가, 지연의 말들이 정말일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던 중 준비하던 독일 유학 합격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수진은 선택의 순간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지연의 전화는 정말일까? 지연이 말한 미래의 모습은 정말일까?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말일까?

Could It Be True?

기민세

STORYUM X NOVEL 공모전 수상
러시아 ROSMAN 번역 출간



곧 죽어도 힙합

Even if I Die Soon, Hip-Hop

정재환

미스터리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다단계의 최고봉 레드 다이아를 노리는 지선, 다 깔아놓은 판이 하필이면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으로 이지러진다. 지선은 화를 참지 못해 급기야는 직접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잠깐, 범인인 연쇄살인마가 다름 아닌 내 이웃이라고?

형사 3이 죽었다

범인 3은 촬영장으로 가던 중 형사 3이 농약을 탄 촬영 소품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흥흥한 촬영장, 어딜 가나 사람들은 죽은 형사 3의 이야기뿐인데, 범인 3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인공이 의심스럽다. 어쩌면 내게도 주인공이 될 기회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창고

싸이코 박 부장의 놀림에 대머리라고 소리쳤다가 창고 청소를 맡게 된 정 프로. 몇 년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창고의 끔찍함에 소리치는 것도 잠시, 창고를 뒤지면 뒤질수록 박 부장의 과거가 드러난다. 온갖 괴소문을 몰고 다니는 박 부장, 분명 이곳에는 그놈을 혼쭐내줄 단서가 있다.

네버 체인지

어느 날부터 복권방에 나타나 석원에게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여자 귀신, 속는 셈 치고 돈을 거니 믿을 수 없는 역전극이 펼쳐진다. 문돈으로는 문돈밖에 못버는 법. 석원은 아내를 위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전 재산을 베팅하려 한다. 이 귀신의 말대로 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고백하는 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구울이 이 도시에 나타난 날, 재진은 오늘에야말로 선후에게 고백하겠다고 마음먹으며 활을 쥔다. 더는 미룰 수도 없고, 차여도 괜찮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래. 오늘은 고백하는 날이다!

곧 죽어도 힙합

혐오가 만발한 2058년, 음악 쇼에 참가할 선수로 동이면 힙합 황제 석재가 선택된다. 하지만 그날 의문의 청년 은호와 함께 석재를 죽이려는 비밀 결사단이 석재를 찾아오며 자신이 하필 힙합과 세계 멸망 사이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위태로운 가사 위 마무리는?

웃음과 서스펜스로 중무장한 요지경의 상상력을 만난다!

미스터리

비극은 절실함의 결실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4년. 전역 당일, 수원역에 내린 수현은 우연히 불법 콜택시를 타게 된다. 집에는 빛과 중병에 걸린 엄마뿐인 불우한 현실. 수현은 무배라는 불법 콜택시 기사를 도움으로 불법 콜택시를 몰며 생계를 잇는다. 자신의 생일인 2월 29일, 수현은 포커방에서 현채라는 유저와 채팅을 하게 된다. 권총을 갖고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수현은 현채를 만난다. 약속장소에서 자신을 현채라고 밝힌 여자는 수현에게 권총을 보여준다. 둘은 본능처럼 차를 훔쳐 타고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습격해 현금 3억 원을 탈취한다. 그러나 이들이 쓴 총에 맞아 은행원 한 명이 숨진다.

4년마다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공범

현채는 수현과 헤어지면서 돌아오는 2월 29일에 만나자고 하지만, 수현은 그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은행을 털 돈을 밑천으로 해 수현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고, 은행 강도 사건은 미제로 남는다. 2008년 2월 29일, 수현은 현채와 만났던 장소를 지나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만난다. 총을 들고 온 현채는 수현에게 돈을 요구한다. 2012년 2월 29일, 자유로에서 다시 만난 현채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만, 이번엔 거절한다. 며칠 뒤, 자유로에서 차 사고로 한 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 비극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후 수현은 2월 29일이 돼도 약속장소에 가지 않지만, 현채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예감에 뒷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던 중 현채가 지독한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난다. 자유로에서 숨진 이는 범죄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였으며, 수현도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현은 현채를 찾아 나서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다.

4년에 한 번, 그날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그때마다 수현은 진실의 모자이크 조각을 받았다

현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20년 2월 29일. 제 발로 찾아온 현채가 수현에게 총을 겨눈다. 수현은 현채를 제압해 차 트렁크에 넣은 뒤, 차와 함께 호수에 수장한다. 며칠 후, 누군가의 신고로 호수에서 차가 발견된다. 그러나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 다른 이의 시신, 현채와 관련된 범죄의 또 다른 가해자였다. 수현은 그 시신을 몇 년 전 자신과 무배가 호수에 수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한다. 이 일로 무배가 수현을 오해하게 되면서 이전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파국으로 치달는다. 그런데, 내가 죽인 현채는 어디에 있는 거지?



여섯 번째 2월 29일

Leap Year

송경혁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판권 계약



이선동 클린센터

Mr. Lee Clean Center

권정희

라이브 뮤지컬 제작
 KOCCA 스토리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
 대만 고보출판그룹 번역 출간
 인도네시아 Gramedia M&C 번역 출간



미스터리

영안실에서의 면접

영안실, 울리는 핸드폰 알람 소리에 '내'가 눈을 뜬다. 오전 무렵 '바이오 클린 센터'라는 업체에 유품정리사로 면접을 보러 간 일이 지금 영안실로의 면접까지 이어졌다. 면접은 보러 왔으나, 시체를 보는 일이 괴롭다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만두는 젊은 청년이 많았다는 이유로 사장은 나를 행려인 시체가 있는 영안실로 밀어 넣었다. 그렇게 영안실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 나는 '클린센터 유품정리사'로 취직하게 됐다. 귀, 신, 보, 는.

과거의 기억과 조우하다

고심 끝에 시작한 나의 정규직은 클린센터 사장의 '유품 먹튀'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고독사한 연희동 할머니 침대 밑에서 발견한 골드바를 들고 틈사장 때문에 취직한 지 보름 만에 나는 다시 백수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우연찮게 클린센터 보름 선배이자 눈치 없는 놈, 김정규와 함께 유품정리 일을 시작하게 된다.

호기롭게 시작한 유품정리 일은 매 순간 순탄치 않았고, 잊고 살았던 과거로 나를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던 강동철 형사. 그가 내 인생에 다시 등장하고 자살로 죽기까지 고작 걸린 시간은 한 달 남짓. 그는 내게 악몽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 청산가리로 죽음을 맞이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딸 보라까지 출연시켜 내 기억을 계속 흔들었다.

풀리지 않는,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

'이선동클린센터'. 정규 선배가 파 온 명함 한 통으로 나는 어느덧 클린센터의 사장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영혼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는 유품정리 일을 시작하게 됐다. 고단한 삶, 은밀했던 삶, 고독한 삶 그리고 슬픈 삶 등 다양한 삶의 이면들을 죽음 앞에서 만나며 차츰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 그러던 중 보라의 집요한 주장대로 동철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 동철 형사의 죽음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살해당한 것일까? 동철 아저씨는 왜 죽은 것일까? 누가 죽인 것일까? 죽은 영혼들은 나에게 무얼 부탁하고 싶었던 걸까? 내가 죽은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귀신 보는, 막 서른 된 청년 이선동이 유품을 청소해주는 클린센터에 유품정리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미스터리

보는 자가 되었다

평범한 대학생 이원영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는다. 그 자신도 죽음 직전까지 가는 부상을 당했으나 용케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난 원영에게 이상한 것이 보인다. 사람들의 등에 저마다 다른 녹색의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이다. 오직 원영에게만 보이는 백넘버. 하루가 지나면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 원영은 곧 백넘버가 그 사람의 남은 생존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백넘버가 1이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그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원영은 그렇게 '보는 자'가 된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온다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나 모두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의 날'이다. 그러나 원영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다. 원영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원영이 알지 못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넘버다.

백넘버가 없는 사람

원영은 어느 날 카페에서 백넘버가 붉은 1로 점멸하고 있는 커플을 보게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의 사고를 직감한 원영은 당면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들은 원영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는다. 공포에 질린 원영 앞에 백넘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원영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인간이 죽음에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이라는 그의 경고는 섬뜩하기만 한데...

보는 자의 선택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으나 자신의 운명만은 알 수 없다면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원영은 과연 운명을 뒤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사람들의 등에 빛나는 녹색 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잔여 생존일. 나는 '보는 자'가 되었다



백넘버

Back Number

임선경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대상 수상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러시아 AST 번역 출간



가려진 문틈의 아이

The Child Behind the Door

구혜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서른 두 살의 젊은 파출부 남보민이 고급 아파트 힐스타운에서 일하면서
엄히고설킨 세 집의 음모에 말려들어 간다.

한서아 구출 작전

주변에서 수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지며 보민은 무언의 위협을 느낀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안에 떠밀려 진실을 쫓기 시작하면서, 보민은 서아를 구출하기 위한 유경과 서우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다 504호의 김이서도 이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민은 세 집을 오가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동시에 유경과 서우 그리고 이서 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걸 느끼는데... 보민은 이 음모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미스터리

부촌 아파트 힐스타운의 수상한 세 집

할머니와 둘이 사는 서른 두 살의 파출부 보민은 부촌 아파트 힐스타운의 세 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다. 504호에는 젊은 동물병원 원장 김이서가 혼자 살고 있으며 803호는 얼굴도 보지 못한 수수께끼의 남자가 살고 있다. 804호에는 한승조, 이유경 부부와 기숙사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한서우, 여섯 살 딸 한서아가 있다. 그런데 이 세 집, 전부 어딘가 수상하다. 504호 김이서는 뭔가를 숨기고 있으며, 804호는 집 전체에서 시시때때로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803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황량하기만 하다. 어느 날 803호를 청소하던 보민은 우연히 발코니 선반 뒤에 감춰진 문을 발견한다. 비밀 공간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보민은 애써 모른 채 돌아서는데.

804호 집주인 한승조는 딸을 감금하고 있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베테랑 파출부, 보민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피고용인으로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보민은 세 집의 수상한 사정을 모른 척하며 일에만 집중한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804호로 출근한 보민의 앞에, 그 집의 아들 서우가 나타난다. 서우는 서아가 아빠에 의해 감금당하고 있으며, 보민이 오는 날엔 빼돌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804호에서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는 사실 한승조의 감시 수단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보민은 거절한다.

그러던 중 보민은 803호에서 우연히 804호에 있던 것과 같은 물건을 줍는다. 실수라 판단하고 물건을 804호로 돌려놓은 보민에게 804호 집주인 한승조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들 서우가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한승조는 그때부터 왜인지 보민을 죄여 오기 시작한다. 보민은 직감적으로 803호와 804호가 서아의 문제로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스터리

증언 능력이 없는 목격자

5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자폐증에 걸린 소년 은총은 우연히 연쇄 살인 사건을 목격한다. 하지만 증언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뒤, 따로 나와 살던 은총의 누나 은혜는 우연히 SNS 동영상으로 동생의 구조 신호를 보게 된다. 위협을 직감한 은혜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해묵은 엄마와의 불화와 냉담한 동생의 반응에 상처만 입는다.

낮선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

은혜는 집에서 며칠 쉬어 가려는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수상한 남자가 주변을 맴돌고, 온 가족이 집을 나섰다가 돌아와 보면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집 앞 편의점 CCTV를 확인해보니 2주 동안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 인터넷 설비 기사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은혜의 등에 잡자기 소름이 짝 돋는다. 인터넷 설비 기사가 집에 들어가는 영상은 있지만 나오는 영상이 없다. 은혜는 집으로 달려간다. 은혜의 가족은 일주일 동안 낯선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침입자의 실체, 암호로 가득한 일기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은혜의 머릿속엔 온갖 의문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순간, 은혜는 낯선 자의 공격에 의해 기절하고, 엄마와 은총은 납치된다. 정신을 차린 은혜는 엄마와 은총을 구하기 위해 집안에서 단서를 찾는다. 우연히 발견한 동생의 일기 속에는 은총이 목격한 살인범과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호의 형태로 적혀 있어, 은혜는 암호 풀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된다.

침묵의 소년이 소리 없이 말하는 놀라운 비밀

은혜는 동생의 일기를 통해, 은총이 살인마와 힘겨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은총은 자신의 편과 살인마의 편이라는 구도를 마블 영화의 캐릭터들로 표현해놓았다. 아이언맨부터 헐크까지. 은총은 아이언맨이고, 은혜는 헐크, 살인범은 캡틴 아메리카다. 그녀는 진짜 살인범을 찾기 위한, 생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 동생 은총의 언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 은총은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해간다.

잔인하고 지능적인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자폐증 소년과
연쇄 살인범의 기상천외한 대결



피터 래빗 죽이기

Killing Peter Rabbit

이찬영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대만 고보출판그룹 번역 출간

태국 AMARIN 번역 출간

러시아 EKSMO 번역 출간

Faction



케이팩션

역사소설에서 스릴러, 미스터리가 결합된 팩션으로 진화를 이루어낸 고즈넛이엔티 팩션은 영화계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즈넛이엔티가 만드는 역사 팩션 작품들은 곧 사극 영화의 흐름을 예고하고 역사의 상상력과 스릴러 장르의 고난도 결합은 고즈넛이엔티의 강한 자부심입니다.

케이팩션 작품목록



국본

서자영

계유정난 20년 후, 두 명의 왕자가 단 하나의 권좌를 놓고 수양의 손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국본의 게임이 시작된다.



생의 찬미

서자영·강현

한국 대중음악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사의 찬미' 신드롬의 진실, 오랜 믿음 뒤에 가려진 가수 윤심덕의 진짜 '생'을 찬미하다!



직필

주진

빈사의 지경에 빠졌다가 십여 년 만에 깨어난 유배지의 사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깨어나자 경국대전 반포를 둘러싸고 권력자들의 암투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삼개주막 기담회4

오윤희

듣고 기록하던 기담에서 직접 겪는 기담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선노미의 기담 홀로서기!



감찰무녀전

김이삭

조선을 뒤흔든 두박신 사건, 이들은 정말 신을 좇았을까? 전직 감찰공녀 이자 신기 없는 무녀 무산의 괴력난 신 수사 활극



삼개주막 기담회3

오윤희

조선을 벗어나 청나라까지 국경을 넓혀가는 삼개주막 기담회! 압록강에서부터 열하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청을 넘나드는 기담이 펼쳐진다



한성부, 달 밝은 밤에

김이삭

목역산 동굴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사인의 시신 여섯 구, 연쇄살인을 파헤치는 조선 검시관 아란의 기이한 사건 일지



삼개주막 기담회2

오윤희

삼개주막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기담회! 과짜 선비들과 특별한 손님의 오싹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원경

서자영

왕조를 세우고 왕을 만들고 왕을 길렀지만 이틀 석 자 남기지 못한 여인, 조선 최고의 킨메이커 원경왕후의 사랑과 도전



삼개주막 기담회

오윤희

방방곡곡 신비한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삼개주막,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담이 펼쳐진다



조선의 왈가닥 비바리

천영미

창졸간에 부모를 잃고, 형제들마저 떠난 섬에 홀로 소녀 김만덕. 조선시대 대판 빨강머리 앤이 일궈내는 탐라 땅의 놀라운 기적



전쟁의 눈

박은우

이순신을 암살하려는 도깨비 난자 요미와 이를 막으려는 비밀 낭청 장호준의 암투를 다룬 첩보 스릴러



조선의 등 굽은 정원사

천영미

백성을 위해 길러낸 굽은 소나무와 불굴의 정원사가 피워내는 감동적인 교감



안시성

배상열

가장 위대했던 당태종 이세민과 베일에 가려진 고구려 영웅 양만춘. 창과 방패 같은 그들이 정면으로 격돌한다!



노량

박은우

철수하려는 왜군, 구원병으로 와서 웨방만 놓는 명나라군, 전쟁 이후가 두려운 임금과 조정의 견제 세 개의 적을 두고 이순신, 노량에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다



충군

제성욱

전쟁으로 피해를진 조선에 발생한 화란인(네덜란드인) 연쇄살인사건. 윤민호 종사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한산

김동하

반격의 서막, 한산대첩의 사실감 넘치는 전투와 긴박한 추격전



이방원 정도전 최후의 전쟁

허수정

사병 혁파를 앞두고 숨 가쁘게 펼쳐지는 이방원과 정도전의 마지막 결전



명량

박은우

기적 같은 승리, 명량해전의 박진감 넘치는 재구성



상해임시정부

정명섭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식민지 청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눈물겨운 투쟁



명당

백금남

'명당'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수싸움! 조선시대 자축이 통째로 흔들린다. '명당을 차지하는 자, 곧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궁합

백금남

'인생에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남편 될 사람인데 내가 골라야지! 환상의 궁합을 찾기 위한 송화옹주의 궂바탕 탐색전이 시작된다.



관상

백금남

역사의 격랑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려는 욕망의 군상들을 관상학으로 다스린다! "누구의 얼굴에 조선이 들었는가!"



도리화가

임이슬

시대의 금기를 깨트리고 조선 최초 여류 명창이 된 소리꾼의 이야기



DRAMA

국본

The Crown Prince

서자영

드라마 판권 계약

역사 픽션

왕과 역적의 종손이 뒤바뀌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그날,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종손이 거의 동시에 태어난다. 수양이 손자를 찾으러 절에 도착했을 때 김종서의 심복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김종서의 아기를 남기고 수양의 아기를 데려간다는 내용이었다. 충격에 빠진 수양과 한명회는 사건 현장을 은폐하고 비밀에 부친다. 한명회는 도망자의 하찮은 계략으로 치부하지만 수양은 마음이 흔들린다.

두 명의 왕자, 하나는 왕이 되고 하나는 역적으로 죽는다

그로부터 20년 후, 도성에는 왕과 역적의 종손이 뒤바뀌었다는 벽보가 나붙는다. 수양이 월산군, 현의 책봉을 계속 미루면서 소문은 조정에서도 사실처럼 굳어진다. 여기에 한명회의 딸 해주가 신문고를 올려 신우라는 수양의 진짜 손자가 따로 있다고 밝힌다. 드디어 궁에는 신우와 현, 두 명의 왕자가 입궐하게 되지만, 수양조차 누가 자신의 종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결국 신료들은 왕재 시험을 통해 보위에 오를 왕자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올리고, 전대미문의 시험이 시작된다. 시험의 결과로 하나는 왕이 될 것이고, 하나는 역적의 자손으로 죽게 될 것이다.

왕재 시험이 정치 싸움으로 번진다

왕재 시험이 시작되자, 조정에선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과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된 젊은 신료들이 파를 나눠 원하는 왕자를 조직적으로 밀어준다. 한명회 중심의 공신들은 조종하기 수월한 현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젊은 관료들은 공신들에 휘둘리는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지지 기반이 없는 신우를 지원한다. 수양은 왕재 시험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현보다 형(문종)과 아버지(세종)의 모습을 닮은 신우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다.

“자, 이것이 나의 진짜 복수다”

한명회는 왕재 시험이 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를 버리고 동생인 혈(찰산군)을 꼭두각시로 세우는 새로운 판을 짜려 한다. 혈을 보위에 올려 자신의 둘째 딸을 결혼시키려는 것이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의 생모인 윤덕을 불러 설득한다. 궁에서 쫓겨났던 수모를 겪었던 그녀는 입궐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결국 한명회의 계획을 허락한다. 자신을 지지하던 한명회와 모친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된 현은 분노하고, 신우는 자신이 진짜 수양의 손자일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권좌의 문턱에 선 두 왕자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를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할아버지 수양이 그랬듯이 역모에 가담하는 현과 진짜 복수에 나서는 신우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계유정난 20년 후, 두 명의 왕자가 단 하나의 권좌를 놓고 수양의 손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국본의 게임이 시작된다!

역사 픽션

사관, 다시 깨어나다

실록 편찬에 참여한 민수영은 자신이 예전에 작성한 사초의 내용이 왕의 형제가 연루된 역모 사건의 실마리라는 것을 알고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피하기 위하여 사초를 훔쳐낸다. 그리고 그 죄로 유배형을 받은 민수영. 그는 유배지에서 피습당해 빈사 상태가 되었다가 십여 년 만에 다시 깨어난다. 그러나 자신을 돌봐주는 노파가 어머니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내, 이정. 민수영은 친근히 대하는 이 정에게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정은 그에게 ‘민수영’이란 이름만 가르쳐줄 뿐 그 무엇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느닷없이 깨어진 평화

민수영은 이정에게 자필묵을 가져다달라 청하고, 자필묵을 받은 후부터 닥치는 대로 기록을 남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파는 민수영이 자고 있는 아침에 민수영이 기록을 남긴 종이를 이유로 설명해주지 않고 아궁이에 모두 태워 버린다. 느닷없이 깨어진 평화. 그러던 차에 이정이 집으로 찾아와, 그 노파는 민수영의 어머니가 아니며, 과거에 민수영과 비슷한 병세를 앓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해준다. 민수영은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 선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무언가 찾기 위해 뒤진 듯 짐은 흐트러져 있고 노파는 사라져 버렸다. 이정은 민수영을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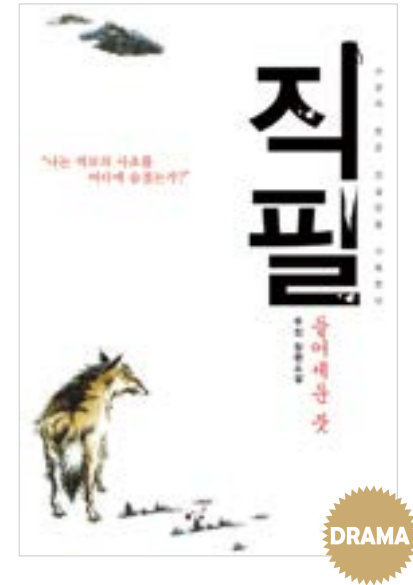
사라진 기억의 실마리

이정의 정체는 바로 왕의 형 월산대군. 월산대군은 수영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노비 춘비가 민수영을 찾는 사람이 있다며 민수영에게 그의 주소를 넘겨주고, 수영은 몰래 집을 빠져 나온다. 그렇게 만나러 간 이는 민수영의 친구라고 하는 조명환. 조명환은 민수영이 묻는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해주고는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다.

빈사의 지경에 빠졌다가 십여 년 만에 깨어난 유배지의 사관 그가 깨어나자 경국대전 반포를 둘러싸고 권력자들의 암투가 시작된다!

사초의 행방은 어디로

수영은 노비 춘비가 기억을 잃은 수영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그를 곁에서 돌봐줌을 알게 된다. 비로소 춘비가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수영. 그녀는 민수영에게 비녀 속에 숨겨놓았던 사초를 보여준다. 사초의 내용은 월산군의 역모. 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치기로 한다. 월산대군 노비들의 눈을 피해 배에 무사히 타지만, 아내는 어느새 사라지고, 수영은 둔탁한 것에 머리를 맞고 기절한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는 중이었다. 아내의 비녀 속에 숨긴 사초는 이제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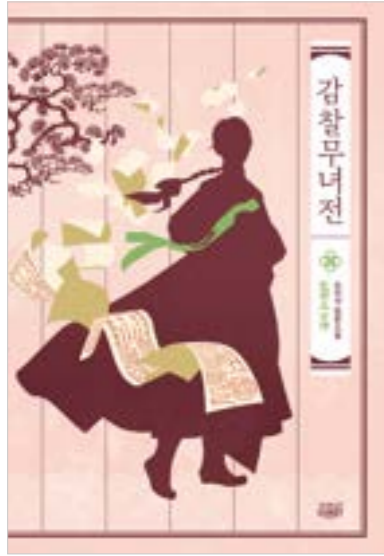
DRAMA

직필

The King's Code

주진

래용래인 드라마 판권 계약
부산국제영화제 Book to Film 선정



감찰무녀전

The Detective Shaman

김이삭

【 조선을 뒤흔든 두박신 사건, 이들은 정말 산을 좇았을까? 전직 감찰궁녀이자 신기 없는 무녀 무산의 괴력난신 수사 활극 】

역사 픽션

조선에서 제일가는 사기꾼 무녀

신병이 걸린 척해 공에서 탈출한 전직 감찰궁녀 무산. 판수 돌맹과 함께 벽사를 핑계로 탐관오리에게 사기를 치며 살던 그녀에게 비밀스레 교지가 전해진다. 얼마 전, 도성과 경기를 뒤흔든 두박신 사건을 몰래 조사하라는 왕명이다. 신기도 없는데 괴력난신을 무슨 수로 조사하지? 군왕 기만죄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무산은 신병을 앓는 양반 서자인 설랑을 꼬드겨 함께 사건을 수사한다.

두박신 그리고 급살 사건

양성 지역의 마을 신이었던 두박신이 어떻게 도성과 경기 땅까지 널리 퍼졌을까? 설랑과 사건을 조사하던 무산은 두박신 소문이 활인원에서 일어난 급살 사건 때문에 빠르게 퍼졌다는 걸 알게 된다. 감찰궁녀 시절에 닦은 실력을 발휘해 급살 사건이 사실은 살인 사건이라는 것까지 파헤친다. 그러던 중 가장 의심스러웠던 구로 무녀가 활인원 한증막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그들이 뒤쫓던 건 신이 아닌 종이였다

무산은 조사 끝에 죽은 구로 무녀와 손을 잡은 매골송이 있다는 걸, 그리고 배후에 장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모든 건 다 종이 때문이었다. 조선은 주기적으로 명나라에 종이 공물을 보냈을 뿐 아니라 두 해 전 '자치통감'을 30만 권이나 제작해 종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박신에게 종이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종이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종이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종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터. 장의사는 종이를 만들 수 있었다.

마지막 굿판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지만, 이제껏 자신이 위에서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무산. 어째서 왕은 일개 무녀인 자신에게 두박신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을까? 무산은 자기가 감찰궁녀였기에 그런 줄 알았다. 하나 아니었다. 자신이 무녀이기 때문이었다. 역불송유라고는 해도 불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에 위에서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이제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녀 무산을 내세웠다. 이대로 바둑판 위에 놓인 바둑알이 되지는 않겠어! 두박신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국무가 되게 생긴 무산은 바둑알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사기 굿을 준비한다.

역사 픽션

상처를 품은 아란, 검험 산파가 되다

부모를 죽인 원수인 판한성부사의 서녀가 된 아란. 복수를 원했던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검험 산파가 되고 밤낮으로 시신을 검험하면서 희생자들의 사인을 규명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부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검안(檢案)이 발생한다. 불이 난 목역산 동굴에서 시신 여섯 구가 발견된 것. 아란은 사헌부 감찰 윤오, 한성부 판관 한석과 함께 목역산 사건을 조사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안개에 뒤덮인 듯 모호하기만 하다. 그런데 시신 중 한 구가 권세가 병판의 외아들인 허청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모두의 시선이 한성부를 향하게 된다. 아란은 신분이 탄로 나는 위험을 감수하며 조사에 몰두하고 사건의 중심에 허청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목역산 사건에 관한 소문과 진상

유가족과 관련자의 침묵에 사건 조사는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양 땅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괴뢰희(인형극)를 통해 목역산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다는 것. 미궁에 빠져있던 아란은 곧장 괴뢰희가 상연된다는 목역산으로 향한다. 괴뢰희를 본 아란은 허청이 병조 승여사를 이용해 인간 장사를 했다는 것과 다른 다섯 피해자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된다. 아란은 곧장 괴뢰희를 상연한 사람을 찾기 위해 무대 뒤로 가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이어 알 수 없는 자에게 가격을 당해 정신을 잃게 된 아란.

증거를 없애려는 자와 증거를 찾으려는 자

병판은 아들 허청의 죄를 감추기 위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모두 없애려 하고, 판한성부사는 모종의 이유로 병판과 손을 잡는다. 아란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곧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사실 판한성부사가 아란을 서녀로 들인 데에는 다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란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곧 추포령이 떨어진다. 판한성부사가 그녀를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사건의 전말에 숨겨진 또 다른 전말

누명을 벗기 위해 세종을 찾아간 아란. 그녀는 물증과 증인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세종은 병판과 판한성부사를 붙잡는다. 하지만 판한성부사가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는 죄는 여전히 증명해내지 못한 아란. 사적 복수와 합법적 처벌 사이에서 다시 갈등하던 그녀는 괴뢰희를 상연한 사람이 허청을 죽인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범인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란은 그래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까?

【 목역산 동굴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사인의 시신 여섯 구 연쇄살인을 파헤치는 조선 검시관 아란의 기이한 사건 일지 】



한성부, 달 밝은 밤에

Lady Coroner in Joseon

김이삭

드라마 판권 계약
SBA 한류문화콘텐츠 씨앗심기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
한국문학번역원 원역원고지원사업 선정
프랑스 Matin Calme 번역 출간
러시아 AST 번역 출간



원경

Queen Wongyeong

서자영

역사 픽션

개경 제일의 여인 민자경

여흥 민 씨 가문의 수장인 민제의 자식들 중 제일 잘난 자경은 개경 바닥에서 최고 재녀로 유명하다. 인물, 재주, 머리, 학문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기에 청혼한 사내가 벌써 여럿이지만 그녀는 모두 성에 차지 않아 거절한다. 과연 그녀가 어떤 사내랑 혼인할지 모두가 궁금해하던 때, 자경이 혼인을 발표한다. 상대는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과의 혼인에 개경 바닥은 술렁인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내

가문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택도 없이 부족한 방원을 자경이 선택한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 자경은 자신만만하다. 자경은 출중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계집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 싫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 자경이 생각하기에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은 이성계 가문의 똑똑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자경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원을 기필코 최고의 자리에 올리겠다고 다짐한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만

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며 자경은 꿈과 점차 가까워지지만 자경의 큰 꿈과 달리 방원의 꿈은 성계의 다섯째 아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형들을 제치고 세자가 될 마음 같은 건 추호도 없고, 그저 제 어머니 한 씨가 왕비로 추존되기만을 바란다. 그를 바탕으로 큰 꿈을 꿨던 자경은 크게 실망한다. 하나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다.

제 형들이 아닌 강 씨의 아들 방석이 세자가 되면 그 꼴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할 방원이었다. 방원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강 씨가 제 아들을 세자로 세우도록 만들어야 했다. 한편 자경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른 채 강 씨는 정돈전까지 끌어들이 성계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자경의 예상대로 쟁쟁한 형들을 다 제치고 배다른 동생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방원은 대단히 분개한다.

권력을 얻고 사랑을 잃다

자경은 방원의 모친 한 씨를 언급하며, 칼을 들어야 한다고 방원을 설득한다. 자경은 방원에게 장자방인 하륜을 붙여주고 친정 식구들을 움직여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리하여 방원은 일생 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성계에게 천하 불효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무인정사를 일으켜 승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경이 만든 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 여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음을 깨달은 방원은 크게 좌절하고, 자신이 속은 만큼 갚아주겠다고 차갑게 돌아서는데……. 자경은 과연 사랑과 야망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왕조를 세우고 왕을 만들고 왕을 길렀지만 이름 석 자 남기지 못한 여인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 원경왕후의 사랑과 도전

역사 픽션

현해탄의 정사 그리고 사의 찬미

1926년 8월 4일 새벽, 윤심덕과 김우진이 바다에 뛰어들어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현해탄의 정사'를 알린 기사는 경성 일대를 휩쓴다. 동아일보 기자 남상철은 심덕이 절대로 자살할 인물이 아니라며 길길이 날뛰다. 한 순간에 짝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상철은 심덕의 죽음을 부인하며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나 점점 미궁에 빠진다. 그러다 윤심덕이 죽기 직전 녹음한 음반 '사의 찬미'가 발매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현대의 스캔들에 힘입어 죽음기가 동나고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란의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뒤

상철은 심덕의 생애 자신도 모르던 이면이 무수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혼란에 빠진다. 심덕이 작사자로 표기된 것에 의혹을 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다. 그러다 우진의 아내 점효에게서 우진의 유서를 받아 읽은 뒤, 심덕이 저 스스로 생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굳은 믿음을 놓는다. 상철은 심덕의 죽음을 실감하며 무너져 내린다. 이윽고 심덕의 마지막을 오롯이 마주하기 위해 '사의 찬미'를 발매한 일동레코드가 있는 오사카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딘가 수상쩍은 남자, 마에다 테츠와 만난다.

생사를 뒤엎는 거대한 기획

청산학원 시절, 운명적인 상대를 기다리던 문학도 테츠는 관비유학생 자격으로 학교에 들어온 윤심덕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테츠는 심덕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덕은 달랐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 갇혀 살 수 없었다.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두 사람의 사랑은 심덕이 보다 넓은 세계로 발을 디디게 되면서 끝났다. 성악도가 된 심덕은 만인의 연인이 되었다. 심덕과의 이별로 만신창이가 된 테츠는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다. 훗날, 테츠는 관동대학살을 목도한 기억을 되짚으며 생사를 뒤엎는 거대한 '기획'을 꾸민다.

생의 찬미와 죽음의 노래

1923년은 윤심덕의 해였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유연애론자'임을 선언한 신여성에게 몰렸고 심덕이 펼치는 공연은 전부 매진되었다. 하지만 얼마 뒤 대중들은 심덕에게서 시선을 거뒀다.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클래식에서 관심을 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생활고는 거듭됐고, 바닥으로 떨어진 명성은 다시 주위 담기 어려웠다. 그런 심덕 앞에 테츠가 나타나 '사의 찬미' 음반 취입을 제안한다. 죽음을 위장해 음반을 성공시키자는 것. 절망의 문턱에 선 심덕은 마지막으로 날아오르리라는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한다. 그 이면에 어떤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한국 대중음악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사의 찬미'신드롬의 진실
오랜 믿음 뒤에 가려진 가수 윤심덕의 진짜 '생'을 찬미하다!



생의 찬미

Hymn of Life

서자영, 강현

〈별안간 아씨〉작가의 차기작



삼개주막 기담회4

Strange Story Club at Samgae Inn4

오윤희

역사 픽션

홀로 떠나는 또 다른 모험의 시작

청나라 사행길에서 뜻밖의 커다란 사건을 겪은 선노미는 연암에게 작별을 고하고 홀로 조선으로 돌아온다. 청나라까지 다녀왔기에 조선에서의 홀로서기는 내심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싹짓돈마저 다 쓰고 무일푼 신세가 된 선노미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긴 초로의 승려가 자기네 암자에서 며칠 머물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선노미는 당장 그를 따라나선다.

지옥도

선노미를 암자로 데려간 승려 우생(愚生)은 두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 둘째, 머무르는 동안 절대 본당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 선노미는 우생의 당부를 지키며 암자에서의 생활에 차차 적응해 간다. 그런데 함께 암자에 머무르는 식객 춘식과 영달이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이 사라진다. 영달은 춘식이 자신을 내버려두고 떠났다며 길길이 뛰는데 정작 다음 날 춘식조차 자취를 감춘다. 같이 있던 사람이 둘씩이나 사라지자 선노미는 점점 암자에 머무르는 게 불안해진다. 영달이 사라진 날 한밤중에 흰옷을 입은 귀신 같은 여자가 춘식의 방앞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던 장면을 목격한 데다, 본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는 우생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궁금증을 못 이긴 선노미는 들어가지 말라는 본당 문을 열어젖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보름달 마귀

떠돌다 만난 사당패들과도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된 선노미는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살인범으로 몰린다. 다행히 오작인 병오가 도와줘 누명을 풀게 된 선노미는 한동안 병오네 집에서 신세를 진다. 병오의 말에 따르면, 마을엔 언젠가부터 보름달이 뜬 밤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마귀의 소행이라며 그를 '보름달 마귀'라 부른다고. 그런데 보름도 아닌 어느 날 밤, 보름달 마귀가 마을에서 힘깨나 쓴다는 갑식에게 덤벼들었다가 붙잡힌다. 마귀는 눈코입이 없는 밋밋한 나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붙잡힌 마귀는 그 가면이 자신을 쓰라고 유혹했다고 털어놓았다. 가면 이야기를 들은 선노미는 깜짝 놀란다. 그 가면은 언젠가 삼개주막을 찾은 손님에게서 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가면'이었기 때문이다.

듣고 기록하던 기담에서 직접 겪는 기담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선노미의 기담 홀로서기!

역사 픽션

모험의 시작

선노미는 가족들이 머무르는 삼개주막을 떠나 드디어 청나라 사행길에 오른다. 하지만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연암 나리의 상전인 정사 어른은 어렵기만 하고, 하인 장복과 창대는 어쩐지 선노미를 서먹하게 대한다. 큰맘 먹고 집을 떠나왔는데 무리에 섞이지 못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선노미.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선노미에게 '첫사랑' 소녀가 나타나 조언을 해주는데...

압록강 뱃사공

오랫동안 퍼붓던 비가 그쳐서 일행은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면 드디어 조선을 떠나 청나라 초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던 연암은 노 젓는 사공에게 말을 걸고, 그것을 계기로 강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연결해 주는 사공 주매에게서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작고 폐쇄적인 고향 마을을 떠나 뱃사공이 된 주매는 어느 날 한 쌍의 남녀를 배에 태우게 된다. 외모가 평범한 여자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어딘지 모르게 오싹한 젊은 남자. 침묵 속에서 배를 젓던 주매는 남자의 지시로 강 한가운데서 배를 멈춘다. 저만치서 여자의 시선이 떠내려오고 있다. 아마도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인 모양이다. 시선이 점차 배 가까이 다가오자, 배 안에 타고 있던 여자가 놀라 숨을 들이킨다. 주매는 여자의 시선이 쫓는 곳을 따라간다. 물 위에 떠 있는 여자의 시선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여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붉은 비단의 저주

사절단 일행은 온갖 고생 끝에 청나라 심양에 도착한다. 숙소에 도착해 여독을 풀고 있는데, 여든이 넘는 노인 하나가 찾아와 조선인 사신들을 뵈기를 청한다. 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는 노인은 오래전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 인질들의 후예였다. 박명원과 연암을 대면한 노인은 품 안에서 정성 들여 지은 버선 한 켤레를 꺼낸다. 그의 증조할머니가 손수 지었다는 버선이다. 그는 증조할머니의 유언이라며 그 버선을 130여 년 세상을 떠난 민회빈의 무덤에 바쳐달라고 간청한다. 민회빈은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온 소현세자의 아내로, 조선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인 인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어째서 이 버선을 바치려 하느냐는 사절단의 물음에 노인은 자신의 증조할머니 향이 민회빈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고 고한다.

조선을 벗어나 청나라까지 국경을 넓혀가는 삼개주막 기담회!
압록강에서부터 열하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청을 넘나드는 기담이 펼쳐진다



삼개주막 기담회3

Strange Story Club at Samgae Inn3

오윤희



삼개주막 기담회2

Strange Story Club at Samgae Inn2

오윤희

역사 픽션

기담회의 시작

한강 마포나루 인근 삼개주막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리려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과 그의 주선으로 모인 '좀 특이한' 선비들. 주모의 큰아들 선노미가 그들에게 주막에서 접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노미가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모조리 기억하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간파한 연암이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개주막 기담회'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

가면 속 얼굴

'복쇠'라는 이름의 남자는 잡귀를 쫓는 '나례' 행사에 쓰일 가면을 팔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왔다. 복쇠는 숙박객들에게 짐보따리에 든 가면을 보여준다. 그중엔 맨얼굴처럼 맛있는 나무 가면도 하나 섞여 있다. 사람들이 가면엔 관심을 보이자 복쇠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린다. 다음 날 복쇠는 짐꾸러미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복쇠는 '그 가면이 없어졌으니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 그 무렵, 나례를 여는 박 대감집 안마당에서 하인 하나가 사당패들이 부러놓은 짐 속에서 맛있는 나무 가면을 발견한다. 가면은 달콤한 목소리로 하인을 유혹한다. '나를 써, 나는 너야. 하인은 흘린 듯 가면을 집어든다...

춘추관의 괴문서

기담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사관(史官) 종호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호가 겪은 기이한 일을 전하고 싶어 기담회에 참석했다. 춘추관 사관이었던 원호는 홀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춘추관에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침입자의 정체를 엿보던 원호가 마주친 것은 처참한 피투성이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한 남자다. 남자는 원호의 기척을 눈치채고 홀연히 사라진다. 책상 위엔 얇은 책자 하나가 남아 있다. 연한 자색 표지에, 아무런 제목도 적히지 않은 책자다. 한 장을 넘겨 보니 '읽되,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기분이 나빠져 그냥 책장을 덮으려던 원호는 문득 뒷장에 쓰인 글을 발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연암과 선노미의 새로운 여정

선노미는 연암이 청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렇게 기담회는 중지되는 걸까. 실망한 선노미에게 연암은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함께 청에 가자는 놀라운 제안을 한다. 둘의 기담 여행은 이제 주막을 벗어나 더 먼 곳을 향하게 되는데...

삼개주막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기담회!
괴짜 선비들과 특별한 손님의 오싹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역사 픽션

이야기가 모여드는 곳, 삼개주막

한양 도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0리 정도 떨어진 마포나루에 위치한 삼개주막. '마포'의 또 다른 명칭인 '삼개'에서 이름을 따온 이 주막엔 나루터에서 일하는 뱃사람, 소금과 젓갈 등을 취급하는 상인, 하룻밤을 묵어가기 위한 보부상들로 언제나 북적거린다. 손맛 하나는 탁월하지만, 애교 없고 무뚝뚝한 주모 김씨를 주축으로 주막 허드렛일을 하는 큰아들 선노미, 주방일을 돕는 두 딸 복이와 옥이가 주막을 이끌어간다. 주모네 네 가족이 구심점이 된 삼개주막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기이한 이야기가 모여드는데...

배우자 얼굴을 그려주는 노인

어느 여름날 땅거미가 질 무렵, '팔생'이라는 이름의 보부상이 주막을 찾아온다. 일을 마치고 밥을 한술 뜨러 온 팔생은 우연히 주막 단골손님인 장쇠 일행과 어울리게 된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겪은 기이한 일을 들려달라는 장쇠의 요청에 팔생은 주저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만난 신기한 노인에게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어디서 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노인은 그림 도구를 챙겨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생계를 잇는다. 이것만 보자면 어느 평범한 화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노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서도 그 배우자 얼굴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낸다는 것.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간 팔생도 노인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그려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노인은 모종의 이유로 팔생의 청을 거절한다. 그리고 밝혀지는 노인의 과거 그리고 팔생의 극단적 선택. 노인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기담, 연암 박지원을 만나다

팔생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삼개주막을 거쳐 간다. 젊은 날 저지른 실수를 가슴에 묻어놓고 사는 방물장수 할멈, 집안 간의 원한 때문에 혼이 나가버린 도련님을 모시고 온 하인, 머느리를 열녀로 만들려는 시댁 식구들의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젊은 선비... 기억력이 탁월한 선노미는 일하는 틈틈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둔다. 그런 선노미의 재능을 알아본 어느 괴짜 선비가 선노미에게 '기담회'를 제안한다. 예전에도 동료와 함께 삼개주막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선비의 정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노미는 선비의 제안을 수락하고, '삼개주막 기담회'는 본격 막을 열게 된다.

방방곡곡 신비한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삼개주막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담이 펼쳐진다!



삼개주막 기담회

Strange Story Club at Samgae Inn

오윤희



조선의 왈가닥 비바리

The Peculiar Pixie of Joseon

천영미

〈조선의 등 굽은 정원사〉 작가의 차기작

역사 픽션

유쾌 발달한 꼬마

물로 나간 아방을 기다리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꼬마는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다. 툭 튀어나온 이마에 커다란 눈망울을 지닌 아이는 잠녀(潛女)보다 더 자맥질을 잘하고,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껍질로 예쁜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눈을 반짝이며 밤잠을 못 이루는 꼬마는 마을에서 못 말리는 장구로 유명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버려진 아이

배를 타고 나간 아비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아이는 걱정스레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떠내려온 널빤지 위에 아버지 배의 격군 장씨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다. 나주를 출발한 배가 풍랑에 침몰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은 공동 장례를 치른다. 아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넋을 잃은 어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갑자기 나타난 삼촌은 아이를 기방에 맡긴 채, 사내아이 둘만 데리고 물으로 향한다.

좌충우돌 기방 생활

버려진 건 슬프지만, 열심히 제 밥값을 해 보겠다고 다부지게 말하는 꼬마는 그렇게 창졸간에 기방 생활을 시작한다. 아이는 버려진 조개껍데기로 반짝이는 물건을 만들고 그 재주를 인정받은 후, 기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이는 기녀들을 위해 촉촉하고 향기나는 조두를 만들어 보겠다고 불철주야 실험을 거듭하다가, 정작 본인 얼굴을 도깨비 형상으로 만들어 모두를 기함하게 하는 사고뭉치다. 양반들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만들던 그녀는 새로 부임한 제주 목사의 큰아들과 박찬성의 횡포로 갑자기 기적(妓籍)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탐라 최고의 객주 운영과 대기근

만덕에게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다. 만덕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짝을 후려치다가도 그녀가 곤경에 처하면 똑똑 문제를 해결해내는 행수기녀 월향이. 평소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지만, 만덕의 부탁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주는 육손이. 만덕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라치면 어김없이 지팡이로 그녀의 정수리와 등을 사정없이 강타하지만 정성스레 솔 빛는 법을 가르치는 양춘이. 평생 대목장으로 살다 면천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웬 생똥맞은 아이를 만나 듣도 보도 못한 객주를 짓게 되는 방만이. 그렇게 투닥대며 정겹게 모여 살던 곳 탐라에 유례없는 기근이 든다. 이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궁리하던 만덕은 방만에게 부탁한다. ‘배 한 척을 사다달라’고.

창졸간에 부모를 잃고, 형제들마저 떠난 섬에 홀로 소녀 김만덕
조선시대판 빨강머리 앤이 일궈내는 탐라 땅의 놀라운 기적

역사 픽션

꼭추 아기의 탄생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허은수. 남부러울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로 꼭추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의 기이한 형상에 집안 형제들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조롱하는 분위기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에 절대 얼굴을 비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당한다. 쓰이지도 못할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성현의 말씀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냐는 학당 동무들의 질타와 조롱에 큰 상처를 받고, 어머니의 정원으로 찾아든 그는 마음껏 꽃과 나무들을 돌보며 위안을 삼는다.

꼭추 허은수의 장원급제와 상림원 탄핵

은수는 뜻밖에 들어온 혼사 제의에 펄쩍 뛰지만, 온전한 마음을 지닌 이와 백년 가약을 맺게 되어 좋다는 아내 최아영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원앙같이 오순도순 지낸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과거 시험 응시를 권유받은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출사를 결심하고,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차지한다. 그러나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온다. 춘향대제에서 찬관관의 일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국가의 큰 제사를 망친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왕실의 정원을 관리하는, 천하디천한 동산바치 일을 전담하는 상림원으로 탄핵된다.

괴짜 왕, 조선을 바꿀 천리마들을 만나다!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벌이는 괴짜 왕. 그의 침소인 강녕전에선 늘 재미난 일들이 벌어진다. 백성의 기근을 해결해 보겠다고 갑자기 초가 살이를 시작한 왕 때문에 온 조정은 발칵 뒤집힌다. 비단 금침을 내뽕개치고, 꺼끌꺼끌한 짚뿔 위에서 잠을 청하던 왕은 자신을 도와 새로운 조선을 이끌어 갈 세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 꼭추 허은수, 의관 전순의,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여인 화가 최아영. 왕은 이 인재들을 발견한 기쁨에 버선발로 깨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은 은수에게 추운 겨울에도 백성의 먹거리를 길러낼 수 있는 온실을 구상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온실 축조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전대미문의 계획을 발표한다. 바로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굽은 소나무를 길러내라는 밀명을 내린 것이다. 천자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죄명이 덧씌워지면 왕실의 안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그러나 부왕을 쫓 빼 닮은 안평대군이 부왕의 천리마들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며, 그들을 지켜주면서 왕의 가장 미더운 조력자로 활약하게 된다. 그리고 왕과 그의 천리마들은 좌충우돌하면서도 뚝심 있게 난관들을 헤쳐나가는데...

백성을 위해 길러낸 굽은 소나무와 불굴의 정원사가 피워내는 감동적인 교감



조선의 등 굽은 정원사

The Hunchback Gardener of The Joseon Dynasty

천영미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최우수상 수상



노량

Noryang

박은우

역사 픽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1598년, 명나라군은 조선에 당도해 조명연합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이순신도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수군을 조직하게 된다. 한편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풍신수길 사망 이후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유일한 퇴로인 해상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명연합군의 지휘부를 접촉한다. 그러나 이순신에게 번번이 막히며 성에 고립되고 만다.

전선들

명나라군은 사로병진책을 통해 조명연합군을 넷(동로, 중로, 서로, 수로)으로 나누어 각각의 적을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순신도 진린과 함께 수로군으로서 서로군과 협세하여 순천왜성을 공격하기로 한다. 그러나 서로군의 육군 도독 유정은 왜군과의 밀약을 통해 뇌물을 받고 공격에 나서지 않고, 진린은 조선수군에 방해만 되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

울산, 사천, 순천 등에 왜성을 쌓고 버티던 왜군은 사천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탈출로를 확보하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조선에 주둔하는 왜군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그는 고니시의 구원요청을 받고 고민하다 결국 노량으로의 출전을 결정한다.

조정에서는 선조가 조선과 일본을 넘나드는 '이문욱'이라는 간자를 이용해 이순신을 제거할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

최후의 바다, 노량

순천왜성의 고니시는 본국으로의 귀환을 위해 협상을 가장하여 명나라 장수 유정을 뇌물로 포섭한다. 또한 진린과 이순신에게도 협상을 제안하지만 이순신에게 거절당한다. 진린은 왜군의 뇌물에 관심을 보이며 바닷길을 열어주려 하나 이순신의 각오를 꺾을 수는 없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단 한 놈의 왜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마침내 1598년 11월 19일 새벽,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일본 연합 함대를 관음포로 유인하며, 최후의 일전 노량해전이 시작된다.

「철수하려는 왜군, 구원병으로 와서 휘방만 놓는 명나라군, 전쟁 이후가 두려운 임금과 조정의 견제 세 개의 적을 두고 이순신, 노량에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다」

역사 픽션

구원요청

도성 함락, 임금의 몽진, 궤멸 직전의 경상도 수군. 이것이 왜란이 발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조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한 와중에도 남해의 이순신만은 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경상우수군의 구원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은 옥포, 합포, 적진포 전투에서 승리하고 본영으로 돌아온 상태다.

머지않아 또다시 경상우수군의 구원요청이 날아들고, 위기감이 고조된다. 처음으로 조선 수군에 패배를 맛본 왜군 또한 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수륙병진의 계획을 실행한다.

불안한 출정

2차 출전을 앞두고 전라좌수영으로 경상지역 피란민들이 몰려든다. 그런 피란민들을 예의주시하며 뒤따르는 자들이 있다. 도쿠가와로부터 이순신에게 접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진송과 그의 수하들이다. 명의 사절단으로 위장한 왜군의 밀정 진송은 피란민들 속에 자신의 수하를 숨겨 전라좌수영으로 잠입하게 한다.

한편 피란민들을 통해 사천에 왜성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마음이 급해진다. 이순신이 출전하자 진송의 무리는 황제의 친서를 들고 유유히 좌수영으로 입성한다.

드러나는 음모, 신우대

세 척의 귀선을 첫 실전에 투입한 이순신은 2차 출전에서도 연승을 거듭한다. 그러는 사이 수영에 잠입한 진송은 이순신의 가족을 이용해 이순신을 회유하라는 추가 지령을 받고 이순신의 식솔이 사는 곳을 알아낸다. 진송은 조선에 들어와 있는 왜의 자객단 신우대에 그 정보를 넘기고 이순신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한산, 격동하는 바다

이순신은 소수정예의 추격대를 꾸려 아산으로 급파한다. 그러는 사이 도성을 탈환하고자 복상하던 6만의 삼도군왕군은 패배해 흩어지고, 이순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왜의 수군은 병력을 응집시키기 시작한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의 식솔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악재의 연속. 묵묵히 수영을 지키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순신에게 기다리던 소식 대신 조정의 출전명령서가 도달한다. 이순신은 엄습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출전 태세를 갖춘다. 지금껏 냉철한 판단력으로 연승을 거듭해온 이순신, 그는 격동하는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반격의 서막, 한산대첩의 사실감 넘치는 전투와 긴박한 추격전」



한산

Hansan

김동하

영화 <한산> 연관 소설



명량

Roaring Currents

박은우

에스24,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영화 <명량> 연관 소설

역사 픽션

백의종군 이순신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연달아 조선에 패한 왜. 그들은 최대 걸림돌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고자 반간계(거짓 정보로 적의 첩자를 역이용하는 계책)를 이용한다. 시기심에 눈이 먼 원군과 선조는 왜의 계략에 놀아난다. 이순신은 임금을 업신여긴 죄, 나라를 등진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죄, 임금이 불러도 오지 않은 방자한 죄 네 가지 누명을 쓰고 파직, 투옥된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순신은 죄인의 신분으로 출옥한다. 이순신에게는 백의종군(벼슬이 없는 말단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참전이라는 별이 내려진다. 죽이지 않은 대신이었다).

밀정과 까마귀부대

이순신은 아무런 군사적 보호도 없이 9명의 군관만을 대동하고 남하한다. 그리고 그들을 몰래 따라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왜군 밀정이었던 준사다. 그는 순천까지는 용케 몰래 그들을 쫓아왔지만, 결국 사로잡히고 만다. 그리고 얼떨결에 이순신의 머리를 베어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을 실행하고 만다. 이순신은 그를 죽일지 않고 부대에 합류시킨다. 그리고 이순신의 죽적을 쫓는 또 다른 이들. 그들은 이순신의 복귀 소식을 들은 왜군 암살 첩보대, 까마귀부대였다. 그들은 조선인으로 분장하고 이순신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서서히 그에게 다가간다.

아직 남은 열두 척의 배

이순신을 대신해 원군이 지휘한 칠천량해전. 결과는 아군의 전멸이었다. 겨우 남은 배는 열 척 남짓.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다. 심지어 남은 배는 경상우수사 배설의 도주로 사라진 실정. 남해안에 배를 숨길 수 있는 포구는 수백 군데! 이순신 장군은 일행을 나누어 12척의 군함과 쇠사슬을 찾도록 지시한다. 왜군은 나머지 배마저 없애기 위해 해안을 훑기 시작한다.

명량, 전쟁의 서막

이순신은 남행하며 흩어진 군대를 모으기도 하고 첩보도 확보하지만 추격하는 정예 군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 오는 까마귀부대의 가공할 전력을 상대하며 이순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육전에서는 남원성이 함락되고, 고흥반도에는 수백 척의 왜군 대선단이 정박해 대공세를 준비한다. 이순신은 초라한 포구 앞에서 다시 자문한다. 이것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적 같은 승리, 명량해전의 박진감 넘치는 재구성

역사 픽션

유령 병사의 출몰

1596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 조선은 이순신 장군을 주축으로 한 수군의 선전으로 일방적인 패배에서 벗어난다.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선전관 장호준은 여전히 바빴다. 선전관이란 직책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 창원도호부에 간 장호준은 병사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바로 죽은 사람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 비밀 낭청도 겸하고 있는 장호준은 그가 밀정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초상화를 그려 그 유령 병사를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알아낸 그의 이름 석자 정수봉. 장호준은 가짜 정수봉을 쫓기 위해 진주성으로 간다.

가짜 정수봉의 의도는?

장호준은 가짜 정수봉이 머물다 떠난 진주성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으며, 장군의 시위(호위)로도 이를 정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가짜 정수봉은 장군을 해하거나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장호준은 혼란에 빠진다. 이 첩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낙오병들을 모두 모아 돌아가려는 건가, 아니면 세력을 규합해 후방을 교란시키려는 것인가?

배신한 간자를 찾아라

장호준은 가짜 정수봉의 정체가 남자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방군관 정미호로 분한 왜군 시마즈를 찾아간다. 왜군에 심어놓은 부하로부터 정미호가 일본과 접선하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시마즈와의 대결에서 이기지만 가짜 정수봉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한다. 그리고 부산으로 향하는 장호준. 부산은 왜군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고, 적지 중의 적지였다. 그는 선전관의 자격으로 부산왜성의 성주 모리 요시나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일본에서 온 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강화조약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거라 여긴 요시나리는 장호준을 돕는다.

이순신을 암살하려는 도깨비 남자 요미와
이를 막으려는 비밀 낭청 장호준의 암투를 다룬 첩보 스릴러

도깨비 남자의 역추적

장호준은 일본에 눈도깨비라는 별명을 지닌 남자가 있으며 오사카 성에서 조선으로 급파된 암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한편 암살자 남자 요미 역시 추적자인 장호준의 존재를 알고 역추적하지만, 비밀 낭청이기에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서로를 서서히 알아갈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칼의 그림자가 겨누는 상대는 조선 수군의 통제사 이순신으로 정조준되는데...



전쟁의 늪

Shadow Warriors

박은우



안시성

The Fortress

배상열

영화 <안시성> 연관 소설

역사 픽션

운명의 접촉과 속명의 마찰

고구려에 의해 멸망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나라. 이를 계승한 당나라를 사상 최강으로 조련한 이세민은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한다. 살벌한 당나라의 대군이 요동을 향해 쇄도할 때 안시성의 분위기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다. 을지문덕의 휘하에서 싸워 수나라를 격파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마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성주. 그랬던 그가 노쇠한 나머지 운신조차 하지 못했던 탓이었다. 게다가 그의 아들로서 성주를 세습 받아야 할 양만춘은 지나치게 젊은 데다, 전쟁의 경험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평양에서 고구려를 지배하는 연개소문과 대신들은 물론, 누가 보아도 양만춘을 믿기 어려웠다.

붕괴 당한 신앙과 잉태되는 위기

연개소문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고구려인은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신앙과도 같은 확신의 중심에 버티고 선 것은 요동성. 그러나 수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요동성은 이번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함락당하고 만다. 보고를 받은 안시성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죽고 만다. 요동성의 패배는 안시성과 평양뿐 아니라 전체 고구려를 아득한 절망으로 추락시켰다. 이세민은 요동의 마지막 보루인 안시성을 함락시킬 것을 명령한다. 해일과 산사태가 합쳐진 것 같은 진격에 맞서 양만춘은 전투준비를 갖춘다. 그러나 적어도 30만을 기분하게 초과하는 적에 맞설 안시성의 병력은 겨우 4만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을 처음 맞는 양만춘은 부하들의 신임조차 받기 어렵다. 천하무적에 빛나는 이세민의 창을 막아내기에 양만춘의 방패는 어린아이가 만든 것처럼 엉성하고 무력하기만 하다.

양만춘의 전쟁이 시작된다

양만춘을 믿기 어려웠던 부하들은 외부의 지원을 고대한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파견하자 부하들은 기뻐 날뛴다. 그러나 양만춘은 "절대 외부에 기대지 말라"고 일갈한다. 부하들이 조금도 납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양만춘은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끝낼 것이니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싸우라!며 투지를 불태운다.

가장 위대했던 당태종 이세민과 베일에 가려진 고구려 영웅 양만춘
창과 방패 같은 그들이 정면으로 격돌한다!

양만춘이 예측했던 대로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지원할 뜻이 없었다. 연개소문이 보낸 자는 옹맹하게 싸우던 지원군의 선봉군이 적의 포위망에 빠진 것을 보고도 철수하고 만다. 연개소문에게 버림받은 부하들이 싸울 용기를 잃었지만, 양만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다. 양만춘에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역사 픽션

첫 번째 살인

1655년 3월 1일 새벽 3시, 청계천에서 사체가 하나 발견된다. 윤민호 종사관은 새벽 시간 갑작스레 사건 현장으로 불러 나온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니, 화란인(네덜란드인)이 아닌가. 화란인은 훈련도감 소속인데다가 온 백성의 주목을 받는 서양인. 윤민호 종사관은 오늘이 지나면 우포청을 떠나 훈련도감으로 소속을 옮기지만, 원칙대로 제일 처음 신고를 받은 자신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포청의 포도대장 김상봉은 그에게 대신 오늘 하루 안에 범인을 잡아오라고 이른다. 그리고 윤민호가 경내를 나서는데, 초검을 맡은 김익선이 달려온다. 그는 화란인이 목에 쏘려 죽었다는 말을 전한다. 뒤 이어 찾아온 화란인 안스 벨테브레는 발견된 시신이 안토니 안스이며 그가 어제 저녁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서

안토니 안스가 살았던 가회방까지 찾아가는 수사팀.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도감의 나졸이 안토니 안스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스 벨테브레는 뭔가 석연찮게 숨기는 구석이 있고 윤민호는 누군가 그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이상한 점을 느낀다. 윤민호는 안토니 안스의 방에서 서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한자도, 언문도 읽을 줄 모르는 화란인. 안스 벨테브레는 그가 얼마전갓출 비(備), 들 거(擧)자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다. 윤민호는 단서를 찾기 위해 서책의 인쇄와 공급을 맡고 있는 도서관으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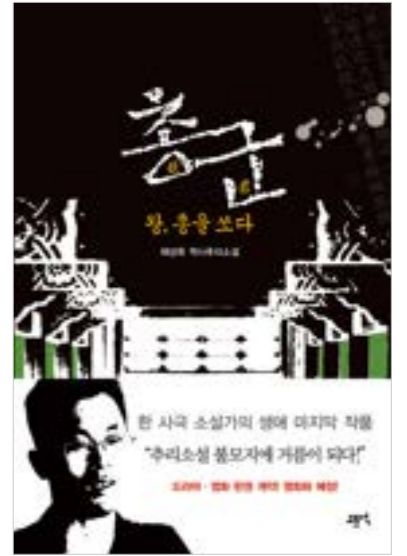
비거록(備擧錄)

도서관에서비거록이란 서책을 찾아낸 윤민호. 비거록을 대출한 사람은 두 명으로, 사간원 헌납 김조년과 동부승지 박안제 대감. 책은 사라지고, 김조년은 해남으로 유배를 가고, 박안제는 근래 조정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윤민호는 문득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서책을 관리하는 사령은 안토니 안스가 장신구를 주면서 출납부에 기록하지 말라고 부탁해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윤민호는 어제 바로 기록을 알고 빌려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남호련이라는 화란인.

전쟁으로 피해를진 조선에 발생한 화란인(네덜란드인) 연쇄살인사건
윤민호 종사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범인의 그림자

남호련이 사는 곳은 적선방. 윤민호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이 없고, 안에서는 거친 비명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윤민호는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간다. 그 찰나, 누군가 옆문을 통해 튀어나가고 방에는 금발의 머리를 풀어헤친 화란인 하나가 가슴에 칼을 맞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총군

The King Who Shot a Gun

제성욱



이방원 정도전 최후의 전쟁

The Last Battle

허수정

TV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연관 소설

역사 픽션

한밤의 은밀한 바둑

태조 7년(1398년). 어느 밤, 이성계가 신하 남을을 불러 바둑을 권한다. 이성계는 남에게 왕자들을 수도 한양에서 내쫓으라고 명한다. 자신의 수족 삼봉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전에 정안대군 이방원을 한양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성계는 정도전이 이방원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으며, 한양에서 먼저 내쫓지 않고 사병 혁파를 실시하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정도전의 계획

남은은 왕이 내린 명을 받고 정도전을 만난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사병을 움켜쥐고 있는 이때, 보란듯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남은은 정도전에게 이성계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그는 이미 이방원이 반역을 일으킬 명분과 시기를 놓쳤다고만 생각한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활용하여 조선을 건국시켰으니, 이방원을 활용하여 요동 정벌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방원의 무력과 육공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남은은 정도전 몰래 이방원을 척살할 계획을 세운다.

조용히 웅크린 산

이방원의 수족인 조영무는 정도전 일파에게 견제를 받아 충청도 도절제사로 간다. 그리고 또 다른 수하 하륜 또한 충청도 관찰사로 보내진다. 양 팔을 잘랐으니 화를 낼 법도 한데, 이방원은 침착하다. 하륜을 조영무의 근처에 보낸 것은 만에 하나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방원의 아내 민씨 부인은 정도전의 계획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도전에게 한방 먹일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움직일 때는 우뢰처럼 거세어라

민씨 부인은 사대부 아낙들이 모여 다과회를 하고 있는 남을의 첩 집에 쳐들 어간다. 초대되지도 않은 자리에 가서 꼬투리를 잡고 남을의 첩을 모욕한다. 그리고 첩이 너무 한다고 한마디를 하자, 집 밖으로 뛰어나가 그녀를 대군 부인을 능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방원이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이방원은 그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정도전을 만나러 간다. 가벼운 술자리 그리고 다툼. 이방원은 정도전에게 자기만족으로 나라를 주무른다고 도발하고, 정도전은 부하들을 불러 언제든 이방원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왕자의 난으로부터 8일 전의 일이었다.

사병 혁파를 앞두고 숨가쁘게 펼쳐지는 이방원과 정도전의 마지막 결전!

역사 픽션

불타버린 씨앗들

1918년 11월, 미국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 은 상하이를 방문해 파리 강화 회의에서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에 청년 여운형은 파리 만국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청원하기로 결심한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모인 젊은 지식인들은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에 보내기로 한다.

길 없는 길 위에 서다

김규식은 만국강화회의에서 열강들에게 독립을 청원하려면,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원한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가 말한 증거란 조선인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과 그에 대응하는 일본의 탄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신한청년단은 조선과 만주, 일본 각 곳으로 흩어져 만세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힘쓴다.

폭풍의 붉은 그림자

1919년 1월, 고종의 승하 소식이 들려오고 일제는 이에 대비하여 독립운동을 저지하고자 한다. 삼엄한 감시와 모락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의견충돌과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신한청년당의 노력으로 인해 해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한편, 여운형은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기 위한 배표를 구해보지만, 인도양으로 가는 여객선의 표는 매진되고, 대서양으로 가는 여객선 표만 남은 상황이다. 대서양으로 가게 되면 일본을 거치게 되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를 감시하는 우리들도 함정을 파놓고 점점 다가오는데, 이를 발견한 정수메이는 여운형이 그들에게서 도망치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인도양 표를 바꿔주게 되어 극적으로 표를 구하게 된다.

신이 역사를 지나는 순간

각고의 노력으로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과 국내의 3·1 운동이 일어난다. 김규식은 파리로 도착해 각국 대표들에게 국내의 상황을 알리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 논의를 위해 여운형을 비롯한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고 치열한 협상 끝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소식이 전해지자 독립운동에 뜻을 품은 많은 지사들이 상해로 들어오게 되고, 그중 김구 선생이 목격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식민지 청년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눈물겨운 투쟁!



상해임시정부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정명섭



명당

Feng Shui

백금남

영화 <명당> 소설판

역사 픽션

효명세자. 그리고 죽음의 뒷자리

모두가 명당이라 주장하는 효명세자의 뒷자리를, 뱀이 따리를 뜯 모양의 흉지라 주장하는 지관 박재상. 하지만 나머지 신료들과 관의 주장에 따라 효명세자는 그 자리에 묻히고, 장동 김씨의 작상 김좌근은 명당을 점치는 능력으로 자신의 권세를 위협할까 무서워 박재상 일가를 몰살시킨다. 천운으로 살아남게 된 박재상. 김좌근의 손에 온 가족을 잃은 그는 오랜 시간 명당을 공부하며 '명'으로 김좌근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다 자신과 뜻을 함께 하게 될 몰락한 왕족 '흥선군'을 만나는데. 세도가 김좌근을 상대로 한 협력관계를 맺는 박재상과 흥선군. 세도가를 향한 두 남자의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된다!

장동 김家の 뒷자리

효명세자의 왕위를 물려받은 현종. 그는 자기 아버지의 뒷자리가 정말 명당인지 알아보고 싶어 한다. 박재상이 흉지라 주장하던 그 자리를 파보니 관에는 물이 차 있고 뱀들이 따리를 뜯고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이다. 박재상은 백자 옆이 진짜 명당인데, 봉분은 없지만 뒷자리의 흔적이 있다며 파헤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김좌근의 복수를 위해 이제껏 수소문하고 다녔던 김좌근의 부친 김조순이었다. '명당'을 사이에 둔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아직 전설로 내려오는 천하대명당 '이대천자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권력의 가랑이를 기어다니는 왕족, 흥선군

몰락한 왕족 흥선군. 그는 삼청골의 개망나니 왕족으로 불렸다. 상갓집에서 술 먹고 깡판치기를 일삼는 그는, 장동 김家の 텃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망나니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술과 계집질에 빠져 산다. 비록 장동 김家の 기세에 눌려 그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고 있지만, 박재상의 아버지 박풍수는 흥선군의 얼굴에 섬섬광처럼 스쳐가던 빛, 그의 본모습을 알아챘다.

그리고 박풍수가 김좌근의 손에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박재상이 흥선군을 찾아온다. 그는 박재상과 천하대명당을 이용하여 김좌근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명당'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수 싸움! 조선시대 지축이 통째로 흔들린다
'명당을 차지하는 자, 곧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

역사 픽션

가뭇을 막아야 한다. 국혼을 하거라!

온 나라에 가뭇과 흉년이 이어지고 왕의 근심이 깊어졌다. 신하들은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룰 혼인이 필요하다고 총언한다. 이에 따라, 왕은 송화옹주를 혼인시키기 위한 부마 간택령을 내리고, 간택 접수서는 부마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사내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아무와 결혼할 수는 없는 일! 부마 간택을 위해 조선 최고 역술가 서도윤을 불러들여 최고의 궁합을 찾으라 명한다. 그리하여 추려진 네 명의 부마 후보. 이제 이들 중 누구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지만 찾아내면 되는데... 결혼할 상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송화옹주. 과연 그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할 사내는 누구인가?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송화옹주, 남편만은 내 손으로 찾는다!

친애하던 원빈이 송화옹주를 낳다 운명을 달리했다. 어미를 죽인 것과 같은 송화옹주를 곁에 두고 살 수 없었던 왕은 궁밖으로 쫓아내 사가에서 살게 한다. 그렇게 송화옹주가 사가에서 산 지도 19년, 어느날 왕이 급성 해소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관감은 왕의 병세가 나으려면 수의 기운이 강한 송화공주를 옆에 두어야 한다고 일러준다. 병세가 낫지 않으면 크게 꾸짖을 것이라 엄포를 놓고 왕은 송화옹주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다. 한참 더위와 가뭇이 심해져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던 시기였다. 음과 양의 조화로 비를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는 신하의 조언에 따라 왕은 역술가를 불러 송화옹주와 궁합이 잘 맞는 부마를 찾아 국혼을 준비한다. 가뭇의 해갈을 위한 혼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직 송화옹주와 부마의 음양 궁합뿐. 그래도 얼굴은 먼저 봐야지! 정해진 부마 후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송화옹주는 몰래 궁을 빠져나간다!

『 "인생에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남편 될 사람인데 내가 골라야지!
환상의 궁합을 찾기 위한 송화옹주의 궤략 탐색전이 시작된다 』

위대한 궁합, 진짜 정해져 있는 걸까?

가뭇 해소를 위해 억지 국혼을 해야 하는 송화옹주는 궁을 몰래 빠져나와 부마 후보들을 직접 만나며 진정한 인연을 찾으려고 한다. 제대로 된 부마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정해진 부마 후보들은 제각각 혼인을 하기엔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송화옹주는 권력과 지위가 아닌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내를 만날 수 있을까?



궁합

The Princess and the Matchmaker

백금남

영화 <궁합> 소설판



관상

The Face Reader

백금남

영화 <관상> 소설판

역사 픽션

조선땅 최고의 천재 관상가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고 관상쟁이 '김내경'. 깊은 산골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한양에 가서 큰 돈을 벌어보자는 연흥의 제안에 처남 팽헌과 함께 한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용한 관상쟁이로 소문이 자자해지고, 사헌부에서 인재등용을 도우라는 김종서의 제안을 받아 궁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국가의 흥망을 결정 지을 '역적'을 가려내라는 명이 떨어지고, 위기 속에서도 반역을 꾀할 '이리의 상', 수양대군을 찾아낸 내경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 속으로 뛰어든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수양대군의 잔혹성

문종은 아심한 밤, 은밀히 자신의 동생들인 수양, 안평, 금성의 관상을 봐달라 명한다. 그들이 다른 이의 머리를 밟고서 위로 올라가려는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수양대군의 관상에서도 반역의 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책략가 '한명회'를 등에 업은 수양은 교묘히 다른 이를 수양으로 착각하도록 해 자신의 관상은 노출시키지 않은 것. 굶주린 호랑이 같은 살기를 눈에 띄고 나타난 수양대군은 왕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힐 준비가 되어 있다. 뒤늦게 수양대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내경은 그 자의 관상을 '이리의 상'이라고 한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리, 수양대군.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치던 최고의 관상쟁이 '김내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거스를 수 없다는 운명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그런 운명의 순리를 거스리기 위해 목숨까지 걸며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향해 간다. 마치, 세상에 정해진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바꾸어 보겠다는 열망을 드러내는 순간, 얼굴도, 상도 그리고 역사도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관상'은 김내경이 개개인의 얼굴에서 온갖 해, 바람, 나무, 산 그리고 우주를 읽어내는 듯하지만, 정작 그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는 읽지 못함을 보여준다.

역사의 격랑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려는 욕망의 군상들을 관상학으로 다스린다! “누구의 얼굴에 조선이 들었는가!”

사극로맨스

우연히 들은 심청가에 마음을 빼앗기다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방에 남겨진 고아 진채선. 어느 날 저잣거리에서 우연하게 심청가를 듣게 된다. 채선은 몇 달 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낀다. 심청가를 부르던 신재효는, 어린아이가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모습을 보고 채선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울고 나면 또 웃게 될 거라고, 그런 게 바로 판소리라고 말하면서. 그 후로 채선은 소리꾼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다. 그러나 여자가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채선은 타고난 성별 때문에 자신의 꿈과 한 발짝 멀어진다.

판소리 학당 동리정사 일원이 되다

어린아이에서 소녀로 성장한 채선은 남장을 한 채 동리정사로 찾아간다. 판소리 학당 동리정사는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지 않는 곳. 채선의 쪽 뿐은 소리는 시험을 보러 온 어느 사내보다 시원했다. 채선은 '진채석'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동리정사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동리정사에 들어오고 보니 저잣거리에 나가 공연은 하지 않고, 양반네들 앞에서 공연하고 호사놀음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채선은 이 일로 재효와 다투고 동리정사를 나가버린다.

남장여자 소리꾼 들통나다

채선이 나가고 난 후, 재효는 공연에 자꾸만 참견을 하는 오진사를 들이받는다. 그리고 모든 후원이 끊기고, 문하생들도 모두 동리정사를 떠나고 만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개최하는 경복궁 낙성연 판소리 대회에 나갈 사람도 없을 정도. 채선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동리정사로 돌아온다. 여자라는 이유로 재효는 그녀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끝내는 채선을 단오제 소리판에 내보낸다. 채선은 칠성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치지만, 연기 도중 채선의 갓끈이 풀려 얼굴이 드러나면서 여자라는 것이 들통나고 만다.

시대의 금기를 깨트리고 조선 최초 여류 명창이 된 소리꾼의 이야기

낙성연 판소리 대회에 도전하다

여자에게 판소리를 시켰다는 이유로 재효는 사또에게 벌을 받지만, 채선을 데리고 한양으로 갈 생각을 한다. 낙성연에 채선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어느새 다가온 낙성연 예선. 그러나 대회 접수를 하다가 여자인 걸 들켜, 나가보지도 못하고 채선은 대회에서 탈락하고 만다. 신재효는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 채선의 소리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청하다가 천주교 신자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채선은 그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데...



도리화가

The Sound of a Flower

임이슬

영화 <도리화가> 소설판



가족복원소

이필원

틀어진 관계를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가족복원소에 찾아와 가족을 복원해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물랭루주에서 왔습니다

최난영

이무 희망도 없는 2살 도희 의족을 하고도 파리의 댄서를 꿈꾸는 40살 윤을 만나 가장 어둡고 초라한 곳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카페 네버랜드

최난영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병혈 공무원 한연주, 사고뭉치 열혈 노인 4인방과 카페를 운영하게 되다



청년 주부 구운몽

강선우

본의 아니게 주부의 재능을 찾은 청년, 운동, 초록 대문집에서 시작되는 유쾌하고 몽클한 성장록



옆집의 비혼주의자들

김지서

서른셋 비혼주의자 수진과 네 여자의 파란만장 비혼 여성 공동체 결성기



요산요수

김지서

우연히 제각각 남한산성을 오르게 된 박씨네 네 가족, 그들의 기막힌 일탈과 환장할 파국



동화, 혜화

은연필

스토킹에 시달리는 무명 배우 혜화와 진짜 자신을 찾고 싶은 초짜 변호사 동화,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꿈과 자이를 찾아가는 두 사람의 우연하고도 낯선 여정



백일청춘

정해연

죽음 직전, 후회만 가득한 인생에 원하던 삶을 살 수 있는 백일이 주어진다? '기갈나게 살고 싶은' 고등학생과 '청춘이 그리운' 대기업 노년회장의 좌충우돌 영혼 체인지!



**우리 집에
엄마가 산다**

배경희

대학생이 된 엄마, 하숙집 아줌마가 된 딸,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역사사지 이해 프로젝트



환절기에 온 편지

김래임

70년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서른이홉 외할머니, 죽음을 앞둔 그녀가 남긴 기록과 숨은 비밀이, 2020년 스물일곱 손녀에게 전해진다



너의 버킷리스트

유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쌍둥이 언니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 갈수록 그 속에 담긴 언니의 비밀이 점차 밝혀진다!



수상한 간병인

오윤희

가진 게 없는 소녀와 더는 잃을 게 없는 노인은 서로에게 세상이 되어 주었다

드라마

‘소설이 주는 재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영상이 보인다’
소설의 언어와 영상의 언어,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완성도를 유지하는 고즈넉이엔티의 드라마 소설들은 한국 대중문학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참신한 소재로 발간하는 작품마다 영상화 판권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족복원소

Family Repair Shop

이필원

틀어진 관계를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가족복원소에 찾아와 가족을 복원해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

테이핑

엄마의 가족복원소 일을 가끔 거들며 지내는 고등학생 친구. 어느 날 초등학교 돌이가 이혼신청서 한 장을 들고 그가 지키고 있는 복원소를 찾아온다. 나빠진 부모님의 관계를 복원해달라는 돌이. 친구는 이혼한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거절하지만 돌이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결국 막무가내인 돌이의 의뢰를 마지못해 수락하게 된다. 난생처음 가족 아닌 가족을 복원하고자 하는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오래 기억될 늦여름을 보낸다.

가족 정리

수능을 치른 직후 가족복원소에 붙어 지내던 친구는 운전면허학원에 다니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MBS 기자 최유지가 필통을 맡기려고 복원소에 찾아오고, 필통에 담긴 유지의 꿈과 남보다 못한 자매간의 사연을 듣게 된다. 그 무렵 친구는 서서히 가족 복원 작업에 욕심이 생긴다.

세척 및 약품처리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래전 지갑을 맡기고 감감무소식이던 손님이 6년 만에 찾아온다. 전국 각지에서 신화, 전설 및 민담을 모으는 채집사인 그의 지갑에는 죽은 약혼자의 애정이 깃들어 있는 듯 기묘한 일이 생긴다. 한편 개와 산책하며 복원소 앞을 지나치곤 하는 파키스탄인 알리와 친분을 쌓는 친구. 알리의 의뢰로 그의 작은 개 행운이가 착용한 목걸이 수선을 맡게 된다.

드라이 및 코팅

가족복원소 옆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애순은 친구와 마주칠 때마다 꽃을 건네는 상냥한 할머니다. 그의 황혼 이혼을 둘러싸고 잠시 상가 안팎으로 소란스러워지나, 애순의 솔더백 복원을 맡은 친구는 작업에 집중한다. 복원소 간판 아래를 오가는 손님들의 사연이 쌓일수록 가족 만지는 일에 진지해지는 친구. 이대로 사는 일이 평탄하리라 생각했다. 연락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안경 파우치를 들고 찾아오기 전까지는.

드라마

물랭루주와 물랭루주

도희는 파리의 물랭루주 앞에서 뱃가루를 뿌리다가 프랑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는다. 20대 앳된 동양인 소녀가 먼 타국에서 탄자군으로 의심되는 가루를 훔날 리다 테이저건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결국 도희는 프랑스 경찰소속 특별조사관을 대면하기에 이른다. 프랑스 국민배우를 닮은 조사관은 도희에게 사건의 전말을 묻고, 도희는 통역에 기대 그녀가 기억하는 긴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파리의 물랭루주가 아닌, 한국의 지방 도시 M시의 사랑은행 사거리 2층의 낡은 물랭루주에 대해.

진흙탕 같은 현실의 무게

도희와 엄마 아빠. 가난하지만 불행하진 않았던 단순한 가정은 엄마의 자살 이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빠는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도희는 그런 아빠를 떠나 먼 곳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몸 돌 곳 마음 돌 곳 없던 도희는 친구 은정의 제안에 따라 월세 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은정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은정에게 도희는 '돈'이었고, 애인을 멋대로 자취방에 들여도 신경 쓰이지 않는 '짐짝'일 뿐이었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을 나온 도희는 그길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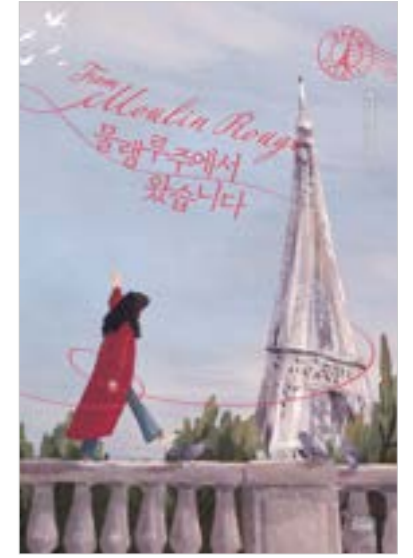
빨간 풍차 그리고 윤과 김

'의류 수선할 수 있는 자 환영' 문구에 이끌려 도희는 물랭루주를 찾았다. 드레스 전문 업체쯤 되려나 생각했던 그곳은 어설플 무대와 낡은 소파가 늘어서 있는 정체 모호한 라이브 바였다. 김은 이곳의 직원이었고,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한 윤은 열은 화장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차림이었다. 도희 그리고 윤과 김의 첫 만남이었다. 윤은 손님이 있든 없든 하루에 두 번 무대에 올라 강강 춤을 쳤고, 도희는 이 강강 춤을 위한 드레스를 수선했다.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스물한 살 도희, 의족을 하고도 파리의 댄서를 꿈꾸는 마흔 살 여자 윤을 만나 가장 어둡고 초라한 곳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물랭루주는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윤은 강강 춤을 사랑했고, 도희는 꿈을 사랑하는 윤의 모습을 동경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나 빛날 수 있구나. 먹고사는 게 삶의 최대 목표였던 도희에게 꿈이란 무의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희망하기만 했던 도희의 마음속 물랭루주도 잔잔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를 위한 드레스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졌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지리멸렬하고도 아릿했다. 치킨을 사 들고 온 단골손님이 문을 연 순간, 물랭루주에 찬 바람이 불었다.



물랭루주에서 왔습니다

From Moulin Rouge

최난영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



카페 네버랜드

Café Neverland

최난영

태국 Jamsai Publishing 번역 출간

드라마

찐피노여도 괜찮아

명확, 철저, 원리원칙이 기본인 미류동 주민센터 7급 공무원 연주. 그러나 동료들에게는 찐피노(찐피NO, 찐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라고 불리며 손가락질당하기 일쑤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제출한 노인복지 사업계획서가 덜컥 채택되고, 시장까지 주목하는 사업이 되면서 그녀는 졸지에 노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네버랜드'의 운영을 맡게 된다.

시기와 불만으로 동료 중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괜찮다. 이 일만 잘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니까.

문제 많은 노인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방해할 줄은 몰랐다. 카페를 같이 운영할 직원으로 이런 문제투성이 노인들을 추천하다니. 제멋대로에다 시비 걸기 일쑤인 만영. 우울증을 앓고 감정이 격해지면 배뇨 실수를 하는 석재. 무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뚝뚝한 준섭. 융통성 제로에다 사오정인 기복까지. 연주는 그들과 함께할 카페 운영이 막막하기만 하다.

커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커피도 안 되고, 하루 매출 2만 7천 원인 카페. 승진은커녕 해고를 안 당하면 다행이다.

미류동의 미래클

사람은 모두 한 가지씩 재주는 있다던가. 노인들은 점점 의외의 장기를 보이며 카페 영업을 돕는다. 오랜 교사 경험에서 우러나는 석재의 응대 실력, 손님들의 시선을 빼앗는 만영의 화투점, 말문을 잃을 정도로 맛있는 준섭의 요리, 그리고 한석봉 저리 가라 일필휘지로 적어 내리는 기복의 고민 상담.

연료로 다져진 특기와 연주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번창하는 카페 네버랜드, 로맨스와 액션, 드라마와 스릴러가 꿈틀거리며 대박의 향기가 난다!

행복 뒤에 숨겨진 그늘

하루 매출 2만 7천 원의 굴욕을 벗어던지고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상까지 받은 카페 네버랜드. 연주는 곧 승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카페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런 연주를 기다리는 건 지진이라도 닥친 듯 엉망이 된 카페의 풍경이다. 테이블은 다 뒤집혀 있고, 잔과 접시들이 엉망으로 깨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홀로 남아 카페를 정리하던 기복은 말한다. 만영은 석재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갔고, 준섭은 도망쳤다고. 사랑에 눈이 먼 만영의 질투로 준섭이 평생 숨기고 싶어 하던 비밀이 폭로되는데…….

찐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 공무원 한연주
사고뭉치 열혈 노인 4인방과 카페를 운영하게 되다

드라마

저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나요!

다소 유약하고 어리바리하며 구석구석 빈틈 많은 청년 운몽. 꿈이 뭐냐고 질문하는 세상에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간판으로 화답하며 물밑으로는 연극의 꿈을 키워왔다. 주린 배를 붙잡고 글을 쓰고 연출을 배우고 무대를 기획하며 청춘을 불살랐으나 돌아온 건 배반의 장미. 연극 선배 우찬희의 사기 행각으로 무일푼 백수로 전락했다. 먹튀 우찬희를 쫓던 비오는 밤, 차라리 남이면 좋았을 댁에 누나 재영과 운명적인 조우를 하고야 말았으니 운몽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렇게 찍혀버렸다. 바로, 초록대문집!

초록대문집의 주인이자 재영의 절친인 강서는 운몽에게 동거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얼결에 납죽 받은 운몽에게 새날이 열렸다. 대대손손 아들이 귀했던 구가네 종손 운몽에게 '주부'란 다음 세상에서나 취미 삼아 해볼 법한 장르였는데, '주부'와는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삶이었는데, 뜻밖에도 '주부의 재능'을 발견한 운몽.

청년 주부의 탄생

아들 지상주의 모친과 착한 세 누님들 덕분에 곱게 자라느라 접해보지 못했던 노동을 감격을 맛보게 된 운몽! 몸은 비록 고될지언정 손길 한 번 스친 후에는 확연히 달라지는 집안 살림들과 맛난 요리들에 부듯함과 보람이란 것이 몰릴 듯이 몰려왔고, 단조로운 노동이 주는 담백한 재미는 고달픈 만사를 잊게 해줬다. 운몽은 그렇게, 절대 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주부 9단'이라는 지점에 도달해버렸다.

바쁜 엄마 강서 대신 조모의 돌봄을 받던 연우는 조모께서 황혼의 독박 육아로 관절이 으스스해진 관계로 초록대문집에 오게 된다. 연우의 등장으로 살림과 내조와 육아의 삼합을 이룬 완전체 청년 주부가 탄생한다.

서른의 성장통

과도한 노동의 늪에 빠져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무대는 여기가 아닌데!' 현타가 오고, 누나 친구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강서 때문에 볼 빨간 사춘기처럼 설레기도 했다. 아들이 판검사가 되기만을 염원하고 계시는 모친이 떠오르는 밤이면 송구함에 잠 못 이루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주부 생활에 매진하며 글쓰기 재능을 불태웠다. 그런 운몽의 소소한 일상에 파문이 있다. 응징하리라 버리고 벌러왔던 우찬희와의 만남, 그리고 베일에 싸여 있던 연우의 생부 이준석에 대한 진실.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웃픈 몸부림을 치느라 뒤늦은 성장통을 겪는, 서른 살 운몽의 성장록이 펼쳐진다.

본의 아니게 주부의 재능을 찾은 청년, 운몽
초록대문집에서 시작되는 유쾌하고 몽클한 성장록



청년 주부 구운몽

Young Man Gu Unmong Became a Housemaker

강선우

스토리움 추천작 선정

문학나눔 도서 선정

대만 KADOKAWA 번역 출간

인도네시아 Baca Publishing House

번역 출간

태국 Bookdance Publishing 번역 출간

이탈리아 Adriano Salani 번역 출간



옆집의 비혼주의자들

The Single-minded Next Door

김지서

드라마

'느슨한 연대'의 재발견

미모보다는 지성을 추구하는 33세 중학교 국어교사 수진은 하나둘 결혼하는 주변 지인들을 보며 이리다 나까지 망혼(亡婚)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의식에 봉착한다.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결혼을 부추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러나 막연히 바라온 커리어우먼의 쿨한 싱글라이프를 현실화하기에 서울의 집값은 장난이 아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본 적이 없는 수진은 혼자 사는 삶이 두렵기도 하다. 가족이 됐을 때의 책임은 싫지만, 가족으로서 누리는 이익은 작은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수진은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를 재발견하고 '비혼 여성 공동체'를 설립해 남자 없이 잘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브런치에 연재, 인기 작가가 될 꿈에 잔뜩 부풀어 오르는데…….

결혼과 비혼의 손익계산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24평 신축 아파트에 당첨된 동갑내기 부부 소희와 민규. 둘은 시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댁에서 해준 가락동 49평 현대 아파트를 버어날 공리를 한다. 시중 은행 금리를 고려, 소희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가락동 현대아파트 재개발 인가가 떨어진 날, 드디어 월세 세입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33세 국어교사 수진과 33세 전직 스튜어디스 소희는 졸업 후 14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다.

행복한 그녀들의 비혼주의 공동체

수진은 부동산 카페에서 입주 희망자들을 모아 비혼(非婚)해서 행(幸)복한 웃음(笑)많은 여(女)자들의 첫 자를 따서 소위 '비행 소녀(非幸笑女)'를 결성한다. 공동생활의 기본적 룰은 집안일도, 공과금도, 월세도, 장 본 금액도 무조건 N분의 1! 그러나 '완전히 평등하고 온전히 평화로운 비혼 여성 공동체'를 꿈꿨던 수진의 바람과는 달리 생판 남 다섯이 모여 사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겉보기엔 베테랑 비혼주의자 같지만, 실제로는 다섯 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십 년 넘게 노부모 간병을 혼자 다 떠맡아온 47세 은혜. '독립=결혼'인 줄 알았지만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자 자의 반 타의 반,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 슬하를 벗어나 혼자 살게 된 43세 남희.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낮엔 자고 밤에 주로 외출하며 빨간색 BMW를 끌고 다니는 화려한 차림새의 37세 한나. 아파트에 매주 다른 애인을 데려와 하룻밤 하고 가게 하는 기행으로 사사건건 수진과 부딪히는 28세 프리터 승은까지.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서른셋 비혼주의자 수진과 네 여자의 파란만장 비혼 여성 공동체 결성기

드라마

정희

올해 스물아홉 정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운 좋게도 집 근처로 근무지를 배정받아 마을버스를 타고 15분만 가면 나오는 서울시 동남쪽 끝자락, 남한산성이 정희의 일터다. 졸업 직후 국문학 전공을 살려 파주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삼 년간 과로와 박봉, 왕복 네 시간이 넘는 출퇴근에 시달린 끝에 정희가 얻은 건 척추측만증과 인간혐오증, 12cm의 거대한 자궁근종뿐. 공시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 뒤늦게 공기업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공채에서 번번이 미역국을 마신 지 어언 삼 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자신의 빛나는 이십 대가 다가 있었다.

준희

정희보다 일곱 살 어린 남동생 준희는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배우 지망생으로 지금은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함께 연기수업을 들었던 눈꼴 시린 동기 김선우가 스타덤에 올랐단 소식을 들으며 자신도 빨리 관객들의 열광을 받는 스타 배우가 되리라 다짐한다. 일단은 라미네이트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중년 부부

두 남매의 아버지 박재수 씨는 올해 쉰여섯 살로 국내 유수의 침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졸인 박재수 씨는 두 놈을 다 대학공부까지 시켰는데 서른을 코앞에 둔 장녀는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이 계약직 신세에 시집갈 남자도 없으며 그 밑에 늦둥이 아들놈은 군대에 간 지금도 철모르고 영화배우가 되겠다며 칠렐레팔렐레하고 있어 근심이 깊다. 답 없는 박재수 씨와 삼십 년째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는 빠른 67년생 양띠 김희선 씨는 올해 쉰다섯이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를 배운 지는 삼 년쯤 됐고 딱 그즈음부터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백오십 정도 만지고 있다. 백 년 과장인 남편 박재수 씨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네 식구의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 막내의 예술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

그리고 바로 그즈음, 재수 씨와 희선 씨는 주말을 맞아 집 근처 남한산성으로 오랜만에 등산을 나가게 되고 각자 다른 이유로 (그러나 실은 같은 이유로) 산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재수 씨와 희선 씨는 매주 따로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며 근 삼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과 스릴을 느낀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 금기(禁忌)인데 자꾸 몸과 마음이 끌린다. 그리고 이야기는 산을 타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제각각 남한산성을 오르게 된 박씨네 네 가족 그들의 기막힌 일탈과 환장할 파국



요산요수

Dysfunctional Family

김지서



동화, 혜화

Donghwa & Hye-hwa

은연필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드라마

그래, 이건 연극이야

대극장 곳곳에서 꽃다발이 발견됐다. 모두 무명 배우 혜화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한 극단 동료가 그 꽃다발에 질려 크게 손을 다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혜화는 고대하던 배역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때를 맞춘 듯 혜화의 오피스텔에 누군가 침입한다. 침입자의 광기 어린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움푹달싹 못 하는 혜화.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현관에서 또 다른 우연한 기적이 들려온다.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다 사라진 것 같다. 혜화는 모든 게 어느 공연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며 연극 소품을 손에 쥘다. 그렇게 실제 연극이 시작되고, 다시 막을 내린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로펌 초임 변호사인 동화는 악인을 변호하며 회의에 빠진다. 어머니와 형의 뜻에 따라 살아온 탓에 동화는 매 순간이 공허하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낭만적인 책 속에서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어느 날, 동화는 갈 곳을 착각해 문이 열려 있는 이전 집 현관으로 들어선다. 머지않아 제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기분을 느낀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혜화는 번쩍 정신을 차린다. 연극이 끝나고 현실에 이르지 모든 게 낯설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현관에서 느껴진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이였을까. 혜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감각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뛴다. 그러다 동료에게 어느 먼 축제 현장에서 캐스팅 관련된 소식이 왔으며, 약속 장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는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5시간 뒤, 장소는 부산이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 혜화는 갈팡질팡하며 누군가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한 고급 차량이 혜화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선다.

누군가와 함께 떠날 수 있다면

동화는 문득 실수로 침입한 집에 책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그곳으로 향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에 사는 여자, 혜화를 본다. 동화는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돌린다. 그러다 자신을 찾아온 로펌 대표 변호사를 마주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급히 자리를 피한다. 혼란에 빠진 동화는 누군가와 함께 떠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차를 몰아 오피스텔 밖으로 나서고, 예기치 않은 순간 혜화가 차량 앞을 막아선다. 우연처럼 얽히고설키는 두 사람. 도망인지 도전인지 모를 긴 여정이 시작된다.

스토킹에 시달리는 무명 배우 혜화와 진짜 자신을 찾고 싶은 초짜 변호사 동화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꿈과 자아를 찾아가는 두 사람의 우연하고도 낯선 여정

드라마

65세 임환자 주식회 회장, 고등학생이 되다

평생 몸 바쳐 일하기만 한 SH물류 주식회 회장은 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눈을 뜬 곳은 저승이 아닌 웬 녀 새나고 좁아터진 방. 석호는 곧 자신이 열여덟의 김유식이라는 고등학생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내 몸은?” 곧장 자신의 아파트로 향한 석호는 추적 끝에 자신의 몸에 들어간 유식과 마주한다.

주어진 시간은 백 일뿐

“교통사고가 났어. 하늘로 봉 날았다고. 너무 억울했지. 품 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바로 그거대! 주식회 역시 죽음의 순간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렸던 청춘을 후회했다. 원하는 것을 이뤄보라고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일까?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에는 없던 몸에 새겨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백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회사를 지켜라!

이왕 바뀐 몸, 두 사람은 서로가 원하는 백일을 살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석호는 유식 덕에 고등학생의 생활을 즐겨보려 하고, 일진들의 시비에 걸려 위기에 도 봉착하지만, 석호가 노인 시절 취미로 배운 유도로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앞에 그늘이 드리운다. 둘은 SH물류의 사장이었던 김범주가 석호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유식이 석호의 몸에서 깨어난 뒤 헛소리를 한 걸 빌미로 '주식회'를 치매로 몰아 회장 자리에 앉을 속셈. 석호는 유식을 앞세워 김범주의 손아귀에서 회사를 지키려 한다.

백 일의 끝은 두 번째 죽음

주석호의 연륜과 유식의 순발력으로 함께 힘을 모아 김범주를 견제한다. 그리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후임자를 정했다고 생각한 순간, 유식은 죽을듯한 통증을 겪는다. 석호의 몸을 통해 유식은 돈만이 아니라 암세포까지 얻은 것. 상상도 못 할 통증에 유식은 패닉을 겪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자신들은 곧 죽게 됨을 실감한다. 유식은 자신은 암으로 죽더라도, 석호는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살 수 있으리라 판단해 자식만 보고 살아온 엄마를 위해 좋은 아들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마지막 백일을 선물 받은 그들은 정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 직전, 후회만 가득한 인생에 원하던 삶을 살 수 있는 백일이 주어진다?
‘기갈나게 살고 싶은’ 고등학생과 ‘청춘이 그리운’대기업 노년회장의 좌충우돌 영혼 체인지!



백일청춘

Youthful Hundred Days

정해연

《유괴의 날》 작가의 신작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우리 집에 엄마가 산다

My Mom Lives My Life

배경희

IMTV 드라마 판권 계약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KOCCA K-Story in China 선정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드라마

여기 꼭 닮은 엄마와 딸이 살고 있다

세상의 혈육이라고는 단 둘뿐인 엄마 순희 씨 그리고 딸 연화. 연화학숙 4층 주인 세대에는 여느 집 다정한 엄마와 딸 사이와는 조금 다른 그녀들이 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모녀이지만, 실상 삼십 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보호자였으며 친구였다. 마음만큼은 서로를 끔찍이 여기지만 표현에는 끔찍하리만큼 서툰 모습까지 꼭 닮은 두 모녀의 사이가 삐거덕 거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그때부터였다.

엄마, 순희 씨 Say...

스스로 강순희가 되어 버텨온 세월 51년이였다. 홀몸으로 안 해본 일 없이 세상에 하나뿐인 딸년 연화를 잘 키워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 입사시킨 사람이 바로 나 강순희다. 이제야 겨우 승통 트이며 사는 나에게 뭐? 암이란다. 차가운 수술실에 눕자, 처녀 시절 태아 초음파 사진과 대학 합격증을 손에 쥐고 평평 울다가 박박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던 합격증이 그렇게 다시 손에 쥐고 싶어졌다. 보여줄 사람도 없는 가슴 도려낸 게 뭘 대수인가 싶었던 생각보다 아리고 수치스럽다.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년이란 것이 걸핏하면 “내 인생이야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딸아이 앞에 대학 합격증과 보증금 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나도 이제 엄마, 하숙집 아줌마 안 해!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나는 이제 겨우 반 백살이다 이거야! 홀로서기 하는 신입생 강순희라 불러다오!

딸, 연화 Say...

살이 지칠 때면 늘 들려오는 엄마의 18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안다. 스무 살 꽃보다 아름다운 나이에 날 임신하고 여자 홀몸으로 이 나 이까지 키워준 것을. 그렇기에 나 또한 그 흔한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다. 백연화보다는 강순희의 착한 딸로 살아왔다. 누구의 딸이 아닌 나로 살아보고 싶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 치고 나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엄마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란다. 기가 막히다. 다 늙어서 무슨 대학? 게다가 뭐, 독립? 팔자에도 없는 하숙 아줌마를 하며 엄마 뒷바라지를 하라고? 어쩐지 청춘을 찾기 위한 엄마의 절박함이 나를 이곳 연화학숙에 주저 앉히고 말 것만 같아서 나는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다.

【 대학생이 된 엄마, 하숙집 아줌마가 된 딸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역지사지 이해 프로젝트 】

드라마

성공한 청년 CEO에서 망한 청년 사업가로

3D 피규어 제작업체 대표 봉수아.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성공한 청년 CEO’라는 수식어에 자부심을 느끼는 열정 가득한 오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이룬 성공에도 못 미더운 시선을 보낸다. 평범한 집안, 평범한 외모, SKY 출신은커녕 ‘IN서울’ 안에도 들지 못한 학벌에, 나이마저 스물일곱인 스펙. 그래서 뛰어난 능력 앞에서도 인정보단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잘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업이 어느 날부턴가 삐거덕거리기 시작 하더니, 그야말로 한순간에 쫓딱 망해버린다. 이제 그녀의 자리는 오너가 아니라 빚더미 위다.

어느 날 받아든 외할머니의 육필 원고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주기 위해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우디 A6을 팔고 나오는 날, 수아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전화의 주인공은 3선 국회의원이 임성혜 의원. 임 의원은 수아에게 외할머니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외할머니의 육필 원고를 전한다. 이른바 할머니의 자서전인 원고. 그 원고가 오랜 시간이 지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존재할 뿐, 함께한 추억 하나 없는 분인데...

1970년 봄날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집 나간 년, 동생 월사금 가지고 튼 도둑 년, 성질머리 더러운 년, 밖에서 애나 낳아온 년. 이 모든 말은 집안 어른들이 외할머니 은육을 가리켜 내뱉는 말이다. 수아는 소위 개망나니 같은 할머니 인생이 궁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족이라 원고를 버리기도 애매하고, 불면의 밤 수면제가 될까 싶어 조금씩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원고 속에서 뜻밖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한 여성과 만난다. 알지만 몰랐던 사람. 집안의 골칫덩이인 외할머니가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일 줄이야! 외할머니의 고군분투기가 그 어떤 자기 계발서나 힐링 서적보다 신선한 치유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고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밀을 발견한다! 이 비밀을 조용히 안고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 밖으로 꺼내놓아야 하는 걸까?

【 70년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서른아홉 외할머니
그녀가 남긴 기록과 숨은 비밀이, 2020년 스물일곱 손녀에게 전해진다 】



환절기에 온 편지

The letter of In-between Seasons

김래임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베트남 ShineBooks 번역 출간



너의 버킷리스트

Your Bucket List

유다은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베트남 ShineBooks 번역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쌍둥이 언니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 갈수록 그 속에 담긴 언니의 비밀이 점차 밝혀진다.

드라마

오늘의 운세

어느 날 갑자기 쌍둥이 언니 윤세아가 사라져버렸다. 패턴 잠금이 풀린 핸드폰과 3억 원이 들어 있는 예금 통장 그리고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동생 윤시아에게 고스란히 남겨 둔 채! 오늘도 윤시아는 그녀가 남기고 간 핸드폰 속 어플 '사자 성어로 보는 오늘의 운세'를 확인한다. 시아는 굳이 언니의 입력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떠난 언니 윤세아와 자신의 사주는 같았으니까. 과연 윤시아는 언니 윤세아가 떠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어긋난 순간

윤세아의 첫 남자친구이자 윤시아의 첫 사랑 이준호! 이준호는 윤세아와 고등학생 때 같이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찾기 위해 윤시아를 만나러 온다. 윤세아와 윤시아가 처음 어긋난 그 순간에 버킷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함께 찾아 나서는데...

언니 대신 버킷리스트를!

버킷리스트에 남겨진 언니의 메시지! 언니의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윤시아가 대신 이루면, 3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윤시아는 3억 원을 위해 언니의 버킷리스트를 대신 이루기로 결심하고, 이준호와 함께 언니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

버킷리스트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첫사랑 시원에게 고백하기. 두 번째, 연극 무대 주인공 되어보기. 세 번째,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 네 번째, 성을 가진 성주와 산책하기. 다섯 번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떠나기!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윤시아는 쌍둥이 언니 윤세아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언니의 숨겨진 비밀을 통해 둘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드라마

가진 게 없는 소녀

만 18세가 돼서 희망보육원을 나온 은수에게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아직은 어른들 보호가 필요한 나이건만, 사회는 은수에게 그 꼬리표를 달아주며 공식적이고,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끝내 버렸다. 그나마 버텨왔던 보육원과 달리 사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갑자기 '어른'이 돼야 하는 현실은 은수를 무겁게 짓눌렀다. 매달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다. 팍팍한 일상을 버티는 동안 은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 또래 아이들은 다들 좋은 부모 만나서 걱정 없이 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은수의 분노는 한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다. 제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꿴게 만든 노인에게로. 그래서 은수는 노인의 간병인으로 입주했다.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잃을 게 없는 노인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유,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가 가진 것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엔 모든 걸 잃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자유까지 잃었다. 종종 파킨슨병에 걸린 그는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가 삶에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삶의 의지를 모두 잃은 노인에게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온다. 간병인이 되겠다면서. 아직 애티도 벗지 못한 소녀는 무언가 공공이가 있는 것 같다. 노인은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는다.

아주 특별한 우정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은수는 자꾸만 노인을 용서하고 만다.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은수의 마음은 어느새 노인을 향하고 있다. 처음엔 연민인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난 뒤엔 자신들이 닮은꼴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지위와 세대는 달라도 저나, 노인이나 모두 외롭고, 고립된 처지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세상에 둘밖에 없다. 그런 은수의 마음은, 미처 몰랐던 노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확고해진다. 원래 계획했던 복수를 포기하리라고. 그런데, 노인은 은수에게 뜻밖의 부탁을 해온다.

가진 게 없는 소녀와 더는 잃을 게 없는 노인은 서로에게 세상이 되어주었다



수상한 간병인

Suspicious Caregiver

오윤희

〈삼개주막 기담회〉 작가의 차기작



홀론
제레미 오

최고의 우주인 루크, 다크홀 탐사 중 80억 개의 평행 지구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다. 원래 살던 지구가 붕괴되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찾기 위한 루크의 숨막히는 여정이 시작된다.



화성탈출
제레미 오

화성 탐사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국 최초의 우주인들. 실종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2차 대원들의 시공을 넘나드는 사투



다크사이드
제레미 오

미지의 영역 달의 뒷면에 불시착한 한국의 첫 유인 우주선 인류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한 우주인들의 생존기



보이저
제레미 오

심우주에서 갑자기 멈춰선 채 이상한 구조 신호를 보내오는 보이저 1호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억km를 향해 할 유인탐사선이 쏘아진다



**해피 메모리 투게더:
2023 SF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유파랑, 조예나, 민이안, 강엄고아, 김상윤, 강태준, 유나무

현실감 넘치는 SF적 상상력을 만나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줄 예리한 일곱 가지 시선들



가난한 사랑의 미래
이아타

가난한 노동자 오감은 인공지능이 일으킨 반란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스타인 스카이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레드 플래그
박한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레드 플래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또 하나의 가족이 되다



오프
윤설

사랑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미래, 인터넷이 끊긴 재앙의 밤, 유일하게 연결된 이들은 사랑을 시작한다



디타람브
전현규

인류의 파란치런 가상 세계 디타람브, 가장 안전한 세상에 감춰진 가장 위험한 비밀들



베이츠
이아타

모든 식량이 다국적기업의 소유가 된 미래,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다국적기업 베이츠의 비밀을 파헤친다



홀린
장래이

오염된 지구에서 몸을 포기하고 가상 존재로 초극할 것을 주장하는 박범재와, 그에 맞서 죽어가는 존재를 지키려는 박재희의 인류 명운을 건 대결



향연
강물결

사형수의 뇌에 인체를 이식받아 다시 탄생한 '재생인간'. 그들이 다시 살해당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장르문학상
수상작품집 2:
행운을 빌어요**

최난영, 홍선주, 이찬영, 이준형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 환상과 열정, 우연과 희망이 가득한 유토피아



**메타버스 장르문학상
수상작품집 1:
러브 플레이어스**

조혜린, 이성민, 전현규, 임종현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 메타버스 디스토피아 세계가 열린다



메타

무궁한 상상과 현실이 결합하는 지점.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세계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메타는 가상세계까지 확장된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메타버스 기반 장르소설입니다. 현실 그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발걸음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홀론

Holon

제레미 오

SF

80억 개의 지구들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우주인이 된 루크는 하늘에 생긴 구멍 '다크홀'을 탐사하는 비밀 임무에 참여한다. 세 명의 동료 우주인과 함께 고도 1,700킬로미터에 위치한 다크홀을 통과하는 순간, 동료 우주인들은 모두 의식을 잃어버리고 루크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진짜 세계를 발견한다. 눈 앞에 펼쳐진 80억 개의 지구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각각의 지구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의식이 탈출한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지구를 탈출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 라마

바둑판처럼 펼쳐진 80억 개의 지구 위에는 거대한 우주선 '라마'가 있다. 불가항력으로 이 우주선에 도킹한 루크는 20대의 젊은 안내인 안나를 만나게 된다. 각자의 지구를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들은 선택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채, 이곳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나는 루크가 살고 있던 원래 지구는 붕괴되었다며 그가 이곳에 정착해 살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루크는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것을 약속한 어린 딸 엠마 생각뿐이다.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이 머무르는 서로 다른 세상들

이곳에서 루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우리의 '의식'은 각자의 주인인 지구에서 활동하고, '무의식'은 주인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산재해 있다는 것. 이 우주선은 각자의 지구를 탈출한 의식들만이 머무는 일종의 '각성된 세계'였다. 겉으로는 완벽한 평화와 수평적 체계를 유지하는 이곳은 엄격한 규칙과 철저한 라마의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혹독한 며칠을 보낸 그는, 딸의 진짜 의식이 살고있는 '엠마의 지구'를 찾아가리라 결심한다. 이를 눈치챈 세력들은 그의 일탈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온갖 추격과 방해로 루크는 가까스로 이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다시금 도착한 지구. 이 곳은 누구의 세계인가

새롭게 도착한 지구는 자신이 자라온 곳과 별반 다름없어 보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지구에 '두 개의 의식'이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지구의 '의식'과 그 주인을 따르는 무의식들은 루크를 이방인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 루크는 가까스로 자신의 옛날 집에 도착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과 아내는 없었다. 루크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무의식 세력들을 피해 루크는 또다시 이 지구를 탈출한 방법을 모색한다. 80억 개의 지구, 그리고 그중 단 하나에만 존재하는 딸의 세상. 루크는 과연 딸의 지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당신의 지구는 붕괴되었습니다!”
딸이 있는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인 루크의 숨막히는 여정

SF

인류 최초의 화성유인우주기지

2035년. 민간우주기업과 다국적 연합의 오랜 노력 끝에, 인류는 마침내 100여 명의 우주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화성유인우주기지를 완성한다.

2037년. 대한민국의 첫 화성탐사대원을 태운 마스익스플로러 1호가 3개월의 항해 끝에 올림푸스 화산 남서쪽에 도착한다. 우주기지 해성에 도착한 탐사대원들은 첫 임무로 기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웬디 동굴 탐사 도중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된다.

화성연합사령부

화성연합사령부는 즉시 구조팀을 웬디 동굴로 급파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연락을 받은 화성연합사령관 캐롤 하든 중장은 수색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종결할 것을 지시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실종자 수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내의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는다. 결국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화성탐사에 추가 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2차 화성탐사대를 즉시 화성으로 파견하여 자체 수색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2차 화성탐사대원들의 파견

2038년 7월. 마스익스플로러 2호를 타고 화성에 도착한 세 우주인들은 먼지에 뒤덮인 채 방치되어 있는 해성 헬터에 도착한다. 경계심 가득한 태도로 한국 우주인들을 맞이한 화성연합사령부의 타일러 윌리스 대위는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진 뒤, 한국 우주인들의 해성 헬터 출입을 허락한다. 세 사람은 화성의 모든 시설과 무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공지능 에이미의 도움을 받아 사라진 1차 탐사대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화성 탐사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국 최초의 우주인들
실종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2차 대원들의 시공을 넘나드는 사투

드디어 발견된 그들

같은 시각,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지 밖으로 나선다. 인류의 화성 탐사가 본격화된 이후, 세종과학기지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화성 환경에서의 인류 생존을 위한 전초시험기지로 전락했다.

송민규와 주변 기지의 대원들은 남극의 얼음 속에서 거대한 금속 상자를 발견한다. 전민철 대장이 조심스레 금속 상자에 다가가자마자 상자의 한쪽 끝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 나오며 천천히 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내 활짝 열린 상자 속에서 실종된 한국 우주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모두 동사한 채로 발견되는데...



화성탈출

Escape from Mars

제레미 오

문학나눔 도서 선정



다크사이드

Darkside

제레미 오

SF

지구와 달 사이에서 발견된 결함

2031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한울 1호'의 발사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우주 한가운데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울 1호에 탑승한 세 우주인 민준, 서윤, 주원은 절망에 사로잡히고, 달 탐사를 총괄하는 나로우주센터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 기다리다 못한 대장 민준은 관제실의 지시를 어기고 우주선 밖으로 유영을 시도한다. 곧 그는 산화제가 탱크 외벽을 뚫고 분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온전히 지구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아차린다.

선의의 구조는 없다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모토로 첫 중임제 대통령에 당선된 윤중. 그에게 우주인들의 사고 소식은 정치적 사망 선고만큼이나 치명적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때, 윤중의 정치 파트너인 미국의 오웬 대통령이 뜻밖의 제안을 건넨다. 달에 건설된 유인 우주기지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겠다는 것. 이윽고 모든 것이 베일에 싸인 하프문(Half-moon) 우주선이 한울 1호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하프문의 목적은 구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은 뒤 한울 1호를 수리하지도, 구조하지도 않고 떠난다.

환영받지 못한 착륙

모두가 궤도 이탈 혹은 추락을 예상하며 절망하는 상황. 세 우주인은 가까스로 묘안을 찾아낸다.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것. 관제실에서 제안한 플랜과 더불어 실행한다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표 지점이었던 달 앞면에 다다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세 우주인은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고 통신마저 불가능한 지역에 진입을 시도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구가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서자마자, 달 어딘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탐사선을 향해 날아든다.

달의 뒷면, 다크사이드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며 세 우주인은 혼돈에 빠진다. 일촉즉발의 순간, 전투기 조종사 출신 민준이 본능적으로 조종간을 잡아 미사일을 피한 뒤 한울 탐사선을 극적으로 달 표면에 내려앉힌다. 그러나 머지않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한울 탐사선을 향해 다가오고, 세 우주인은 이내 자신들이 짙은 어둠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달의 이면에서 세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빛을 찾아 나아간다.

마지막의 영역 달의 뒷면에 불시착한 한국의 첫 유인 우주선 인류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한 우주인들의 생존기

SF

보이저 1호의 구조 신호

캘리포니아 딥스페이스네트워크에서 보이저 1호의 통신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라 쿠퍼 박사는 며칠 전부터 보이저 1호의 속도가 갑작스레 0으로 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멈춘 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NASA의 중대발표 이후, SpaceZ의 수석연구원 브라이언 리는 SpaceZ의 화성탐사 자원과 NASA의 최신 기술인 이온추진기를 이용해 보이저 1호까지 무인탐사선을 보내자고 제안한다.

탐사의 성공, 그러나?

브라이언은 SpaceZ의 CEO 앨런 브라운을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승인을 받아낸다. 1년 후, 지구 저궤도에서 조립이 완료된 무인탐사선은 수개월의 항해를 걸쳐 보이저 1호 근처에 도달한다.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오는 무인탐사선. 탐사가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다. 무인탐사선이 찍은 보이저 1호의 사진 한쪽에 큰 공간왜곡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진에 나타난 보이저 1호의 모습을 정상적인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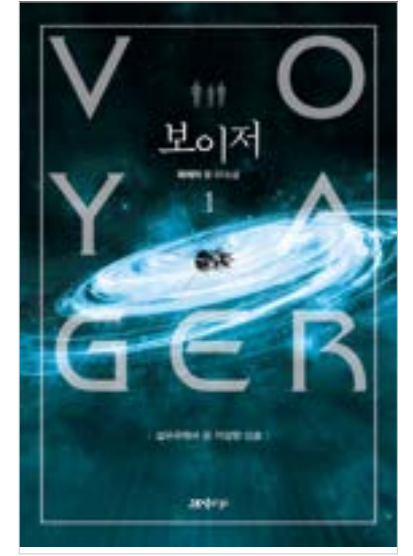
앞날이 창창했던 전도유망한 수영선수, 윤성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결국 윤성의 정신을 가상세계로 옮겨 그곳에서 자유로운 육체를 갖도록 해준다.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아들이 가상세계로 접속한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가상세계는 진정 아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이기심일 뿐일까?

유인탐사선 프로젝트

의문을 해결하고자 유인탐사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지구 저궤도를 공전하던 팔콘9이 1단 로켓 조립과정에서 커다란 폭발을 일으킨다. 그리고 폭발의 잔해물이 근처에 있던 국제우주정거장(ISS)마저 모두 파괴시키고 만다. 그로 인해 유인탐사선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플랜 B가 있었다. 1단 로켓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온추진기만으로 지구궤도를 탈출하는 것.

보이지 않는 벽

사라와 두 명의 승무원은 유인탐사선 헬리온을 타고 지구 궤도를 떠나기 위한 여정에 돌입한다. 지구를 출발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들은 마침내 보이저 1호로부터 1천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광학망원경과 중력계 측레이더를 통해 토성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간왜곡이 보이저 1호 바로 옆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보이저 1호 근처에 도달할 무렵, 사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몸을 강하게 부딪힌다. 이상한 현상을 확인하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보이저 1호 주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보이저

Voyager

제레미 오

심우주에서 갑자기 이상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보이저 1호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억km를 항해할 유인탐사선이 쏘아진다



해피 메모리 투게더: 2023 SF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유파랑, 조예나, 민이안, 강엄고아, 김상윤, 강태준, 유나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줄 예리한 일곱 가지 시선들

SF

해피 메모리 투게더

망자의 기억을 마인드 칩으로 담을 수 있게 되면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이식하는 시술소가 생겨난다. 불법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형사인 소운은 기억 이식술의 피해자인 휘인의 마인드 칩을 가지고 불법 시술소에 찾아가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낭만'이 사라지고 효율이 지배한 세상. 어느 날 발견된 포탈에 사람들은 사라졌던 낭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 포탈 탐사 실패 끝에 한 우주선이 지구에 보낸 "포탈 너머에 도착했다"란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과연 포탈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타디그레이드 피플

지하 도시정부에는 기계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신체를 기계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계화되지 않은 인간을 구태인이라 부르며 경멸한다. 한편 기계화 0퍼센트의 인간 '선'에게도 기계화 75퍼센트의 미아가 찾아오는데…….

별의 기억

퇴직을 앞둔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웅가리 '엘드'의 존재다. 행성을 이주하기 위해 아내와 엘드를 떨어뜨려 놔야 하는 '나'는 엘드를 처리할 방법을 고민한다. 한편 행성의 고유 생명체인 웅가리의 과거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한다.

속도의 맛

무한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가상세계 매드스피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레이서 '전자인간 삼삼칠'은 자신의 애마 '눈먼 짐승'으로 세계 최고속을 노리지만, 만년 5등인 탓에 좌절한다. 과연 삼삼칠은 세계 최고속이 될 수 있을까?

더 마더

범죄 예측 시스템 '더 마더'로 인해 범죄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특수 정보국에서 근무 중인 데이비드 로이드는 자신이 미래에 살인 사건을 저지르리라는 마더의 보고서를 받게 된다. 체포당하지 않고 특수 정보국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데이비드. 결국 미래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

김민지 자구로 돌아오다

변방의 소행성 에키드나에 한 이방인이 얼굴을 비친다. 지구까지 삼 주가 걸리는 이곳에서 미궁을 통과해 사흘 내로 도착해야 하는 이방인은 지구에 자신과 화물 하나를 안내할 전설적인 할로우 라이더를 찾고 있다. 소문을 따라 타로 가계에 도착한 이방인은 할로우 라이더를 찾기는커녕 조롱만 당하는데…….

SF

죽지 못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꿈꾸다

2043년,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인공지능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 그래서 자살 시도만으로도 엄벌에 처한다. 가난한 일용노동자 오감은 얼핏 보기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몰래 시스템을 피해 자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언니의 딸이자 조카인 은비에게 가난이 아닌 사고보험금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불규칙 바운드, 스카이

오감은 계획을 실행할 장소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외딴섬 아진도를 택한다. 그녀는 실족사로 위장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지만, 세계적인 플랫폼 스타 스카이의 경호 휴머노이드에게 구출되고 만다. 알고 보니 스카이는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는 오감에게 섬을 매입할 수 있도록 치매에 걸린 이웃 할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한다. 정식 용역 계약을 맺고 오감은 수차례 할머니를 찾아가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평화는 언젠가 깨지기 때문에 평화이다

오감이 조금씩 생의 활기를 찾아가 무렵, 자살테러단체 아함의 조직원인 김이체가 찾아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준다. 오감의 언니가 아함의 조직원이었으며 자살테러를 실행에 옮기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체는 언니가 성공하지 못한 자살테러를 오감이 대신 실행하라고 종용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조카 은비가 하게 될 거란 협박과 함께, 결국 오감의 사정을 알게 된 스카이가 그녀와 함께 아함의 실체를 뒤쫓는다.

가난한 노동자 오감은 인공지능이 일으킨 반란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스타인 스카이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죽음을 연습하는 휴머노이드들

아함의 비밀을 추적하면서 오감과 스카이는 더욱 가까워진다. 가장 가난한 여자와 가장 부자인 남자가 조금씩 꿈꾸는 미래가 같다는 걸 알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오감은 사방에서 들리는 폭음에 놀라고 하늘을 날던 드론과 자율주행 차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뉴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암살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혼돈 속에서 스카이가 걱정된 오감은 그의 집을 향하고, 같은 시각 스카이의 집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총성이 점점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인간을 지켜주던 시스템의 반란, 그 혼란 속에서도 오감과 스카이의 사랑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랑의 미래

the future of poor love

이아타

〈베이트츠〉 작가의 차기작



레드 플래그

Red Flag

박한술

SF

[속보] AI 돌봄 로봇에게 살해당한 17세 여고생

로봇에게 양육되고, 인공 자궁에서 출산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2040년. 로봇에게 여고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로봇의 변호를 맡은 비키는 피의자인 키리에에게 증언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레드 플래그'라는 모임과 '이모칩'이라는 칩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비키는 키리에가 레나를 살해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 문제는 사건 당일의 진실이 담긴 영상을 키리에가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상처받은 사고뭉치들, 레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는 AI 돌봄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 만든 정신 치유 모임이다. 아내와 사별 후 고립된 채 살고 있는 70세 노인 덕구,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9세 토비, 그리고 이모칩 개발 목적으로 17세 여고생 레나가 참여하고 있으며, 키리에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토비를 위한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 서로 아팠던 상처를 고백하는 등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좋았던 시간도 잠시, 레나가 토비와 덕구를 이모칩 임상시험자로 구슬리기 위해 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레나와 이들의 관계는 어긋나고 만다.

감정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모칩

오랜 기간 우울질환을 앓아온 레나는 덕구와 토비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이모칩 임상시험을 자청한다. 레나는 이모칩 이식을 받은 후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거나 특정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 여러 부작용을 겪는다. 한편 레나의 어머니이자 이모칩의 개발자인 혜주는 임상시험자들이 느끼는 부작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이모칩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레나는 혜주와 다투게 되고, 결국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만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레드 플래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또 하나의 가족이 되다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비키는 레드 플래그와 이모칩에 관해 조사하던 중,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다른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레드 플래그 회원인 토비가 달아놓은 소형 CCTV가 바로 그것. 비키는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고민에 빠지고, 키리에에는 자신의 활동을 멈추는 길 스위치를 요청한다. 결국 마지막 공판에서 비키는 CCTV 영상을 재생한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자 재판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지고, 판사는 판결을 유보하기에 이른다. 과연 레나에게 레드 플래그는 어떤 의미였을까?

SF

재앙의 밤에 찾아온 불청객

가상현실 연애 플랫폼 '러브온'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작가 해준은 한밤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이름은 나미. 두뇌에 나노칩을 이식한 트랜스 휴먼이다. 반정부 집단 테러로 인터넷이 끊어지자 공포감을 느끼고 옆집 문을 두드린 것이다. 모든 것이 단절된 재앙의 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구시대 유물이 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인터넷이 복구되자마자 끊긴다. 트랜스 휴먼인 나미가 온갖 정보를 흡수하자 두려움을 느낀 해준은 모진 말로 나미를 쫓아낸다.

러브온에 침입한 해커

그날 이후 이유 모를 허기에 시달리던 해준은 러브온에 접속해 미모의 인공지능 파트너를 만난다. 묘하게도 나미를 떠올리게 하는 파트너는 해준의 마음을 빼앗는다. 해준은 파트너에게 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한편, 러브온은 보안망을 뚫은 전무후무한 해커의 등장으로 떠들썩해진다. 해준은 나미에게만 말해준 비밀을 엘에게서 듣고 나미가 러브온을 해킹해 엘을 조종했다고 확신한다. 화를 참지 못한 해준은 나미를 찾아가 또다시 상처를 준다.

또 다른 자아가 생긴 트랜스 휴먼

재앙의 밤 이후 나미를 제외한 트랜스 휴먼들은 망가진다. 나미는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려 자살을 감행하는데,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나미의 행동을 제어한다. 그렇게 나미는 두뇌 속 인공지능에 자아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날 밤을 함께 보낸 것은 해준과 나미 둘만이 아니었던 것. 이윽고 나노칩의 인공지능이 몰래 러브온에 침입해 해준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까지 알게 된 나미는 해준의 가시 박힌 말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좌절한다.

현실에 나타난 러브온의 파트너

러브온의 대표 정의건은 일개 직원에 불과한 해준을 비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해준은 자신이 해킹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밤, 해준에게 또다시 누군가 찾아온다. 놀랍게도 찾아온 이는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엘이다. 그녀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해준에게 세상에 혼란을 불러올 정의건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엘과 같은 얼굴이지만, 엘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리는 서늘한 목소리로.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정의건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사랑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미래
인터넷이 끊긴 재앙의 밤, 유일하게 연결된 이들은 사랑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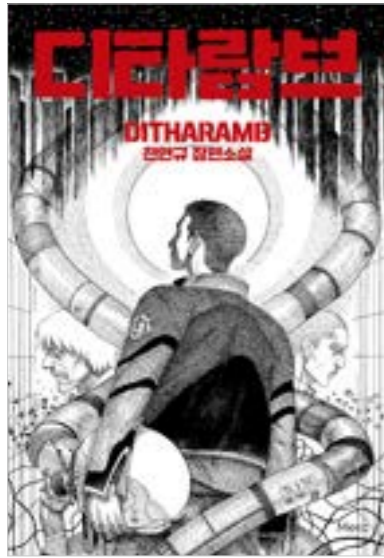


오프

OFF

윤설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디타람브

DITHARAMB

전현규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SF

인류를 구원하려 나타난 기계 방주

가까운 미래, 인류는 기후 위기에 따른 심각한 식량난을 맞닥뜨리고, 그저 멸망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재 개발자에 의해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 세계 '디타람브'가 개발되고, 인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동안 육체는 보존하고 정신만 디타람브에 옮겨 식량난을 해결하는 '디타람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낙원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싸움

부적합 판정으로 디타람브에 들어갈 수 없는 민혁은 동료와 식량을 빼들리다 상사에게 들리게 되고, 부탁을 들어 주면 눈감아주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부작 용에도 불구하고 디타람브에 침입한다.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없는 디타람브 속 세상, 민혁은 그곳에서 의문의 사내들에게 붙잡히고,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끔찍한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이 세상은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민혁, 그러나 디타람브에서 보고 겪은 것들이 자꾸 그를 괴롭힌다. 민혁은 디타람브에 대해 더 알고자,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몸을 매개로 삼아 디타람브 속 사람들을 끄집어내려 한다. 그러나 가볍게 시작했던 처음과 달리,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디타람브에 관해 하나둘 알아가면서 민혁은 완벽하게만 보였던 디타람브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인류의 피난처인 가상 세계 디타람브
가장 안전한 세상에 감춰진 가장 위험한 비밀들

SF

미래 식량과 유전공학

증강현실 게임에만 빠져 살던 소심한 태오가 동생을 찾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도시로 잠입해 음모를 파헤치면서 사람을 얻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이야기가 광활한 공간에 펼쳐진다. 다국적기업 더 베이츠와 대평원에 뻗어 들어져 있는 알파콘들 그리고 높게 솟아 있는 옥수수밭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알 수 없는 물체들. 태오와 친구들의 스펙터클한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대평원, 사막 그리고 지하세계

세계인은 값싸고 좋은 식량을 제공하는 베이츠를 사랑하고, 유전공학의 완성품 알파콘을 숭배한다. 청년들은 알파콘 노동자 텔로가 되기를 꿈꾼다. 태오의 동생도 큰돈을 벌겠다는 꿈을 품고 베이츠의 도시로 입성하지만 실종된다. 동생을 찾기 위해 위험한 전투 테스트를 거쳐 도시에 잠입한 태오, 대평원과 사막을 누비며 도시를 탐색한다. 그곳에서 지상을 빠르게 누비는 알 수 없는 생명체와, 하늘을 표표히 떠다니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고, 이곳 어딘가에 분명 동생을 숨긴 비밀 집단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동생의 실종과 마스터

태오는 주변의 다른 텔로들과 점차 친해지고, 곧 사라진 게 자신의 동생 지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이곳 베이츠에서 일하는 텔로는 모두 3차 시험을 거친 건장한 신체와 뛰어난 힘을 가진 남성 청년들이다. 그런 청년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니…… 태오는 이 청년들을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굉장한 컨트롤센터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을 마스터라고 주장하며 텔로들의 앞에 선 남자는 어딘가 빈약하고 허술해 보이기만 하는데…….

모든 식량이 다국적기업의 소유가 된 미래,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다국적기업 베이츠의 비밀을 파헤친다



베이츠

THE BEATS

이아타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홀린

Hollin

장래이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세종도서 선정 작품

SF

환경을 고칠 수 없다면, 인간이여, 몸을 고쳐라

인류 문명은 스스로에게 제동을 거는 데 실패한다.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인공 지능의 지적 능력은 인류의 평균을 능가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실패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섹스를 통해 태어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1세대, 생명 공학의 수혜를 입고 몸을 업그레이드 한 사람들은 2세대이다. 그리고 2025년, 연방 정부의 비호 아래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마침내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다.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연산 능력과 무한에 가까운 신체 재생력. 그들은 지구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갈 미래형 인류, 바로 3세대이다. 환경 오염과 멸종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성인이 된 3세대들이 바야흐로 활동을 개시한다.

그래, 너랑 같이 있을게

미래인류연구소 입소 3년차, 박재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3세대의 몸으로 영생을 약속 받은 자신과 달리, 연인 강은성의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1세대들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강은성에게 죽음이란 기피 대상이 아니다. 충실하게 살고 미련 없이 죽는 것이 그의 인생관인 바, 이별은 필연적인 줄로만 알았다. 은성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임종을 맞으며 은성은 “너랑 같이 있겠다”는 예기치 못한 유언을 남긴다. 이 갑작스런 허락에, 재희는 해킹을 감행하면서까지 은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생체 데이터들을 끌어 모은다. 연구소에는 은성의 평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단 한 조각, 은성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죽음 직전의 데이터만을 제외하고는... 생체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재탄생한 은성은 제일 먼저, 자신을 죽게 내버려두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재희에게 쓰러린 비난을 퍼붓는다.

당신들의 미래는 데이터 세상에 있다

가상 현실 플랫폼 ‘홀린’을 운영 중인 재희의 오빠 박범재는 은성의 사망과 비슷한 시기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연구소로 배송되어 온다. 무한한 재생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3세대에게 죽음이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 미래인류연구소는 비상이 걸린다. 한편 재희는 오빠가 운영하던 가상 현실 플랫폼에서 ‘몸을 내던지고 데이터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라’는 알쏭달쏭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 이후로 1세대 인류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인간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는데... 재희는 과연 되살아난 은성을 설득하고, 범재와 홀린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을까?

오염된 지구에서 몸을 포기하고 가상 존재로 초극할 것을 주장하는 박범재와 그에 맞서 죽어가는 존재를 지키려는 박재희의 인류 명운을 건 대결

SF

재생인간, 신인류 혹은 신제품

인류는 유도 전능 줄기세포로부터 스스로 분화하는 인체를 얻어내는 기술로 죽은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회복은 진행된다. 하지만 사형수들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로봇이 해내기에는 까다롭고 인간이 하기에는 감당이 어려운 기피 시설에 보급되기 위해, 강제로 회복된다. 그리하여 사형당한 사형수의 뇌에 새로 생산된 인체를 조합한, 재생인간이 탄생한다.

완전한 소멸, ‘환원’

재생인간이 된 후 또다시 중죄를 지은 재생인간들은 ‘유죄의 재생인간’으로 분류되어 ‘콜로니’로 보내진다. 완전히 소멸되기 전 머무는 최종의 장소. 이곳 콜로니에서는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인간을 한 줌 부스르거나 한 모금의 연기가 되도록 완전히 소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유진은 콜로니의 환원을 담당하는 교도관이자 재생인간이다.

환원을 앞두고 발생한 갑작스러운 죽음

환원을 앞둔 재소자를 위한 마지막 잔치, 이 열린다. 4년 만에 열린 향연의 주인공은 상기이다. 유진은 향연 음식을 준비하고 연회장을 꾸민다. 마지막 만찬을 먹은 후 상기는 이제 환원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담당자의 손에 끌려 환원실로 가던 상기는, 유진을 한번 뒤돌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그리고 의문의 십자가 자상

죽음을 분석하기 위해 안치실을 찾은 중개업자. 그는 누워 있는 상기를 이리저리 훑다 관자놀이 부근에 새겨진 십자가 자상을 발견한다. 상기의 죽음 이후, 환원을 원하는 재소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들 대다수가 환원되기 전 상기처럼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리고 그들의 관자놀이엔 모두 동일한 십자가 모양의 자상이 있다.

“이건 마치... 살인 사건 같네요.”

유진은 이제 재생인간들을 둘러싼 죽음에 얽힌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형수의 뇌에 인체를 이식받아 다시 탄생한 ‘재생인간’ 그들이 다시 살해당하기 시작했다



향연

The Last Feast

강물결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메타버스 장르문학상 수상작품집 2: 행운을 빌어요

최난영, 홍선주,
이찬영, 이준형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
환상과 열정, 우연과 희망이 가득한 유토피아

SF

행운을 빌어요

본 상식! 행운과 기회가 넘쳐흐르는 가상세계 속에서, 현실의 유일한 혈육인 형이 사라졌다. 형이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라오디케이'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동생. 하지만 형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기만 한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상세계를 유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생의 머릿속에는 형과 관련된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간직하고 있던 과거가 맞물리기 시작한다.

인투 더 디퍼 월드

가상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캣시월드' 개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영. 그에게 몇 주째 익명의 협박편지가 오고 있다. 재영의 친구이자, 캣시월드의 최고책임자 민우는 재영에게 캣시월드 안으로 도피해 있을 것을 제안한다. 그곳은 아무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제2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도피처'로 활용되는 가상세계. 재영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꼭꼭 숨을 수 있을까?

너무 한낮의 호러

유명 영화감독이자 영화사 대표인 승현. 자신의 부족한 아이디어를 채워줄 탐나는 원고를 발견하고, 작가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작가의 요구는 자신이 개발한 VR 게임에 그저 좋은 추천사 한 줄 써달라는 것이었다. 승현은 아무 의심 없이 작가가 건넨 헤드셋을 쓰고 VR 세계에 접속한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너나들이

"끝내기 홈런을 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MVP 소감을 물어본다.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였을까, 홈런을 쳤던 그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분 좋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VR 기기로 전쟁 시뮬레이터에 접속했다. 정신없는 20분이 지나고, 급격히 피로해진 나는 VR 기기를 쓴 채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SF

러브 플레이어스

내일모레 선을 바라보는 돌싱남, 성복. 그가 요즘 꼭 빠진 것은 가상세계 '어스 러브'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휩쓸고 간 바이러스 창궐 이후 신체적 접촉이 제한되고 타인과의 스킨십 또한 금지되면서 가상세계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스러브' 유저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평생 반려자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체가 태동하는 메타버스의 신세계가 열린다.

그린 룸

사랑하는 사람과 창조해낸 가상세계 '호리존트'. 어느 날, 그곳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음을 알게 되고, 관리자 데이빗은 제 손으로 직접 호리존트를 삭제하기 위해 그곳에 접속한다. 주어진 시간은 스물네 시간. 서버 삭제 전 데이빗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한 바퀴 둘러보며 추억에 빠져드는 데, 어딘가 어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 우리가 만든 적 없는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날이 창창했던 전도유망한 수영선수, 윤성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결국 윤성의 정신을 가상세계로 옮겨 그곳에서 자유로운 육체를 갖도록 해준다.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아들이 가상세계로 접속한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어졌다는 것을. 가상세계는 진정 아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이기심일 뿐일까?

기록

세상 참 좋아졌다. 정신과 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상담시간이 가까워져도 느긋하게 커피와 토스트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정신과 의사 박영로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상담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상담이 길어지면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새어 나오는 현실의 허술함을 당신은 눈치챌 수 있을까?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
메타버스 디스토피아 세계가 열린다



메타버스 장르문학상 수상작품집 1: 러브 플레이어스

조혜린, 이성민,
전현규, 임종현

Young Adult



상상초과

상상초과는 아이와 어른 사이, 경계에 선 이들을 위한 소설을 모아놓은 영어덜트 소설 브랜드입니다. 청소년기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정형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상상하는 소설들이 탄생했습니다. 청소년의 일상을 프리즘으로 들여다보고,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찬연하게 펼쳐 보이는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현실 기반의 성장 서사부터 환상성이 가득한 모험 서사까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아우릅니다.

영어덜트 작품목록



모르페우스의 문

소향

한계를 넘어 날아오르는 우리의 날갯짓. 꿈처럼 빛나는 일곱 편의 영어덜트 SF



나는 엄마를 바꾸기로 했다

변윤제

만약 당신의 부모를 억만장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자식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다면?



화원귀 문구

소향

공부하라 문구점 운영하라 바쁜 고등학생 표단비. 생전에 화원이었다는 귀신 허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사탕비

청예

아름답고 저주스러운 사탕비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 사이에 숨어든 '캔디 인간'을 색출해야 한다



숲의 존재들

김태라

폐허가 된 도시를 떠나 숲에 당도한 주나와 친구들. 세계를 넘어서는 찬란한 여정을 시작한다



초능력이 생긴다면 아빠부터 없애볼까

청예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초능력자가 탄생했다! 악당보다 아빠를 없애 버리고 싶은 여고생의 치열한 성장기



소울메이커

김태라

'소울'이라는 인공 에너지로 생명이 유지되는 22세기 통제 사회. 영혼의 소리를 듣는 주나는 두 소년과 함께 소울메이커를 찾아 나선다



스키니 시티

임선경

외모로 계급이 결정되는 가상사회. 뚱뚱한 사람을 체포해 강제 입소시키는 다이어트 캠프의 비밀을 파헤쳐라



디 피플

김구일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의 살아 남기 위한 싸움. 각성 소년들의 짜릿한 반격



행복한 데칼과 불행한 코마니

김영서

"내가 행복해진 만큼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 행복과 불행을 주고받는 데칼코마니, 둘은 함께 행복할 방법을 찾는다



모르페우스의 문

Gates of Morpheus

소향

한계를 넘어 날아오르는 우리의 날갯짓

꿈처럼 빛나는 일곱 편의 영어덜트 SF

영어덜트

모르페우스의 문

수치스러운 영상이 퍼져 고통받는 중학생 도현. 조롱이 심해지자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영상을 퍼트린 상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끝내 도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라? 눈을 떠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던 순간으로 돌아와 있다.

1919, 너의 목소리

해강은 남몰래 좋아하던 지율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연극에 배우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우 오디션은 자신이 없어 스태프로 참가하지만 하필 소책자 작업을 도맡아 지율이 연습하는 모습은 보지도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준비실에 틀어박힌 해강. 아빠가 준 음파 증폭 이어폰을 끼고 작업하다 지율의 목소리와 비슷한 한 소녀의 목소리를 듣는다.

달 아래 세 사람

월식을 이틀 앞둔 날, 은별은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달항아리'를 보고 생각에 잠긴다. 얼마 전 하늘로 간 아빠의 마지막 작품이다. 아빠가 죽은 것이 성격이 맞지 않았던 엄마 때문이라 원망하는 은별. 여느 때처럼 엄마에게 차갑게 쏘아붙인 후 아빠의 서재에서 별안간 빛무리에 사로잡히는데…….

삼

세상을 떠난 사람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인격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 '이터널 메모리'. 원래라면 그 인격을 안드로이드에 심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심은 케이스가 발생하고 만다. 고등학생 다현이 부모의 뜻에 따라 사고로 죽은 언니의 인격을 이식한 것. 다현은 점점 깊어지는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해 재판을 의뢰한다.

Schoolverse

지오는 어쩌다 메타버스 고등학교 '스쿨버스'에 입학한다. 정약용이 머물던 조선의 다산초당부터 사르트르가 즐겨 가던 파리의 카페까지 넘나드는 혁신적인 수업이 펼쳐지지만 지오의 관심사는 언제나 당찬 같은 반 학생 하나뿐이다. 그런데 스쿨버스를 해킹해 접속했다는 유나가 나타나 학생들 사이에 시가 숨어 있다고 말하자 지오는 불안에 빠진다. 설마, 하늬가 시인 건 아니겠지?

러닝 타임

상록시 중학생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 도윤은 어느 날 그 자리를 빼앗긴다. 로봇 의족을 단, 사이보그 육상선수 예준이 전학 온 것. 압도적인 차이를 실감한 도윤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통합된 것도, 의족을 차고 시합에 출전하는 것도 모조리 반칙이라며 예준을 질시한다.

미수장례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해에서 유자 농장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살게 된 '나'.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는 긴긴 악연이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나'와 고물 같은 로봇 하나 버리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각자의 죄책감과 커다란 슬픔을 덜어내기 위해 생전의 작별 인사, '미수장례'를 준비한다.

영어덜트

홀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게 된 고등학생

엄마가 돌아가신 후 회사원 아빠와 둘이 사는 세진고등학교 신입생 표단비. 단비는 엄마가 남긴 '단비 다이어리'에 의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간다. 어느 날 아빠는 엄마와 함께 살던 옛집을 다시 사기 위해 무인 문구점을 열어 투잡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우유부단한 성격에 맞지 않게 일사천리로 문구점을 개업한 아빠. 그런데 무인 문구점을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된다. 단비는 의대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 무인 문구점 운영까지 떠맡게 된다.

무인 문구점에서 알바를 하겠다는 귀신

늦은 밤, 문구점에 들른 단비는 경악한다. CCTV를 돌려 보다 온갖 문구들이 저절로 붕붕 떠다니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한 것. 놀란 단비 앞에 157년 전 문구점 자리에 묻혔다는 귀신 허현이 나타난다. 낡은 화구통을 들고 나타나 자신이 전생에 도화서 화원이었다고 말하는 현. 그는 백 일 안에 생전의 기억을 떠올려 미완성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문구점에서 일하며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알바를 구하지 못해 지쳐 있던 단비는 고민 끝에 화원이었던 귀신, 화원귀 허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바쁜 일상과 끔찍한 기억

귀신을 알바로 고용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단비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다. 시험 준비, 학원 수업, 조별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문구점 운영에 귀신 알바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산더미다. 게다가 학교에서 자꾸만 거슬리게 구는 아이까지 생겨 머릿속이 복잡하다. 단비는 이런 자신의 일상을 매일같이 현에게 털어놓는다. 현은 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이 깊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을 되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다 우연히 한 조각의 기억을 떠올린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끔찍한 기억이다. 도대체 생전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공부하라 문구점 운영하라 바쁜 고등학생 표단비
생전에 화원이었다는 귀신 허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사랑하는 이와 잘 이별하는 방법

단비와 현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진다. 단비는 얼굴에 친구들에게 현을 소개하고 현은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다. 비로소 아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자신의 과거가 공명할 때 기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백 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코앞에 두고 죽음의 이유에 가까이 다가서는 현. 그의 과거에는 누구도 예상치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기억의 한가운데에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석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현과 단비는 곧 깨닫는다.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사랑하는 이와 잘 이별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화원귀 문구

The Haunted Stationery Store

소향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러시아 AST 번역 출간



숲의 존재들

Beings Of The Forest

김태라

영어덜트

새로운 세계

주나와 친구들은 인공 에너지로 시민들을 통제하던 '소울시'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도시의 사람들은 인공 에너지를 몸에 주입하며 살아야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다. 주나가 그들을 이끈 곳은 찬란한 생명 에너지가 넘실대는 숲.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연에서 자족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숲속 나무들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평생을 인공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은 곧 권태에 빠진다. 이윽고 사람들 사이에 도시가 재건됐다는 소식이 퍼진다.

도시의 재건

숲의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돌아간다. 불길함을 느낀 주나는 사람들을 뒤따라 친구들과 함께 도시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쇠약해 보이는 '카인'이라는 남자를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소울시의 최하위 구역인 델타존에 '델타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델타시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도 먹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처음으로 음식을 맛본 뒤 진수성찬에 탐닉하게 되었다. 주나와 친구들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들과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델타시의 비밀에 의문을 품는다.

게임의 도시

모두가 음식의 맛에 길들여지자 델타시는 돌연히 배급을 중단한다. 사람들은 허기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죽음의 공포가 도시 곳곳에 퍼지는 사이 '델타푸드'라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배급된다. 델타푸드가 인간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트린다는 것을 알아챈 카인은 주나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전한다. 중독성이 강한 델타푸드에 속수무책으로 의존하게 되는 도시의 사람들. 머지않아 델타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지배자들에 의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매니페스터

주나와 친구들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카인을 찾아간다. 경계를 넘어 델타시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도시 전체가 델타푸드를 얻기 위한 게임 세계로 변해 버린 것이다. 전과 달리 건강해진 카인이 섬뜩한 표정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말한다. '매니페스터'가 되어 게임을 끝내기 전엔 누구도 이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혼란에 빠진 주나와 친구들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다 곧 깨닫는다. 자신이 살아갈 세계는 각자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폐허가 된 도시를 떠나 숲에 당도한 주나와 친구들
세계를 넘어서는 찬란한 여정을 시작한다

영어덜트

감마존 소녀와 베타존 소년

'소울시(市)'는 주파수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통치자들과 상층계급은 알파존에, 중산층은 베타존에, 하층민은 감마존과 델타존에 거주한다. 감마존에 사는 열일곱 소녀 주나는 감마존에서 구할 수 없는 식물용 소울을 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역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느 날 베타존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주나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직전, 생명을 깨우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베타존 소년 리후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

소울 세례식과 숲의 마녀

소울인들은 태어날 때 세례식을 치르고 소울머신을 장착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 바깥에서 사는 한 사람이 있다. '숲의 마녀'라 불리는 나다수는 소울이 아닌 음식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의식을 통해 세계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에너지 조정자이기도 하다. 주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다수를 만난 뒤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된다. 그런데 알파존에서 에너지 조정계가 개발되면서 나다수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나다수는 주나에게 에너지에 대한 진실을 전한 뒤 자취를 감춘다.

조정계 개발과 에너지 대란

에너지 조정계가 개발되자 통제는 더 심해진다. 금기야 에너지 대란이라는 비상사태에 이른다. 소울이 공급되지 않자 사람들은 생명력이 고갈돼 죽어가고, 세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한다. 살기 위해 알파존으로 향하던 중, 주나는 소울을 노린 이웃에게 속아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 비슷한 시각, 폭도의 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리후는 거리를 헤매다 주나를 만난다. 둘은 에너지의 근원인 소울메이커를 찾는 일에 뜻을 모은다.

『 '소울'이라는 인공 에너지로 생명이 유지되는 22세기 통제 사회
영혼의 소리를 듣는 주나는 두 소년과 함께 소울메이커를 찾아 나선다 』

소울메이커를 찾아서

소울메이커를 만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고층으로 올라간 주나와 리후는 에너지 조정계를 개발한 소년 공한과 마주친다. 공한의 도움으로 최고 통치자인 구심을 만나게 되는데, 구심의 꾀에 속아 주나가 뱀파이어룸에 갇히고 만다. 주나는 게임 세계에서 뱀파이어에게 피를 빨리고 소울이 고갈돼 죽기 직전에 이르지만, 소울머신을 제거한 뒤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 자신의 힘을 자각한 주나는 리후, 공한과 함께 타워 꼭대기로 올라가 소울메이커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소울메이커

Soul Maker

김태라

카카오페이지 NEXT PAGE 선정



디 피플

D People

김구일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의 살아남기 위한 싸움 각성 소년들의 짜릿한 반격

영어덜트

태어난 순간 전부를 빼앗긴 아이들

도둑질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열다섯 소년 제로. 그는 형제나 다름없는 원, 투와 함께 판자촌에서 살아간다. 제로를 제외한 두 아이는 큰 병을 앓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저 한 번씩 찾아와 돌봐주는 '마더' 자영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찾아오던 자영이 실종되고, 그녀에게서 받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투는 심각한 쇼크를 겪게 된다. 이에 제로는 자영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직장인 세운 의료단지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엄마처럼 따르던 자영의 죽음을 목격한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태어난 초능력자들

세 아이의 정체는 실험의 실패로 탄생한 디자이너 베이비로, 심각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특별한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천재 소년 제로, 어른 몇 명이 덤벼도 이길 수 없는 괴력의 원, 천리안에 버금가는 귀를 가진 투.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았지만, 신의 동정처럼 초능력을 지닌 세 아이는 유전자 조작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으려는 박성호 박사에 의해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박사의 연구 실패를 증명할 결과물이므로.

“우리는 딱 한 가지면 충분해. 살아남는 것!”

박성호 박사는 자신의 오른팔 윤철에게 아이들을 처리하라 지시하고, 시시각각 아이들의 숨통을 조인다. 세 아이는 그때마다 서로의 능력과 기지를 이용해 위협에서 벗어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만 간다.

결국 윤철의 끈질긴 추격에 마침내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때마침 자영이 죽기 전 준비해 놓은 도움들이 속속 손길을 뻗어 아이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이제는 자영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로 반격을 시작하려 한다.

영어덜트

OTT 오리지널 콘텐츠 <엄빠게임>

세계적인 OTT 회사 '천페이지'가 한국 진출과 더불어 오리지널 콘텐츠 <엄빠게임>의 제작을 선언한다. 1등은 천페이지의 설립자 마이클 천의 양자로 입적될 기회를 주지만, 하위권 두 명은 친부모와의 관계도 박탈한 채 멀리 추방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부모를 억만장자로 바꿀 수 있다면? 또는, 당신의 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다면?' 충격적인 홍보 타이틀과 함께 <엄빠게임>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한다.

내 엄마의 전 남자 친구

한편, 마이클 천은 옛 애인인 주은을 찾아온다. 주바름의 엄마인 그녀는 9시 뉴스의 최연소 메인 앵커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케이블 채널의 홈쇼핑 쇼호스트로 근근이 방송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클은 주은에게 <엄빠게임>의 메인 진행자를 맡아달라고 한다. 한때 한국 최고의 톱스타였지만, 지금은 싱글맘으로 겨우 방송일을 이어가는 그녀가 <엄빠게임>의 가장 훌륭한 진행자라고. 동시에 그는 제안한다. 주은의 아들 주바름과 함께 게임에 참여할 것을.

세계적 쇼의 진행자가 되는 대신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방송에 노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주은이 고민하던 찰나, 그녀의 아들 주바름이 나타나 선언한다.

"저, 그 방송 나갈게요."

오래된 악연과의 조우, 그리고

<엄빠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주은은 오래된 악연 안병식을 다시 만난다. 그는 그녀가 주바름을 낳은 후 복귀하려 했을 때 방송 복귀를 가로막은 장본인. 그는 주은을 멋대로 훈계하면서 마이클 천이 스튜디오를 부실 공사했으며, 이 게임의 1등도 미리 내정했다고 이간질하며 욱박지른다.

"주바름이 사실 마이클 천 아들 아니야?"

그때, 스튜디오에 지진이 밀려오고 촬영이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데…….

예측불가 가족 서바이벌의 결과는?

그러나 상당수의 참가자 부모들은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촬영 진행을 바라는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마이클 천은 왜 주은과 주바름에게 주목할까?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안병식의 음모는 무엇인가? 이들에게 벌어지는 가족 서바이벌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만약 당신의 부모를 억만장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자식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다면?



나는 엄마를 바꾸기로 했다

I've Decided to Change My Mom

변윤제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사탕비

Candy Rain

청예

영어덜트

사탕비와 청백성?

세계적 핵 실험의 부작용으로 하늘에서는 알록달록한 사탕비가 내린다. 아름다운 사탕비가 인간에게 선물한 건 무자비한 죽음. 사탕비로 인해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사탕비 때문에 가족을 잃은 마시안은 인류의 유일한 피난처인 '청백성'에서 1년간 잠들어 있다 각성한다. 시안은 눈을 뜨자마자 지목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처형 투표에 참가한다. 청백성에 인간인 척 잠입한 휴머노이드 캔디 인간을 색출할 때까지 투표는 계속된다는데……. 잠든 마시안을 1년간 지켜준 시온은 조언한다. 반드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라고.

캔디 인간과 진짜 인간?

최선을 다해보지만 시안은 캔디 인간을 색출하는 데 거듭 실패한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진짜 인간이 죽어나갈 뿐이다. 막막한 상황, 시온에게 기대려 하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온은 결코 시안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시안은 유일한 친구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커다란 외로움을 느낀다. 한편, 어딘가 수상한 6614호 남자는 시안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혼란을 더한다. 투표조원인 루나는 시안을 향해 '모두를 죽일 자'라는 폭언까지 퍼붓는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슬아슬한 처형 투표는 반복된다. 이해할 수 없는 투표조원들과 청백성의 환경. 시안은 모든 것이 두렵다.

결국 우리는 누구지?

점점 가까워지는 캔디 인간과의 거리. 시안은 유의미한 단서를 직접 발견해가며 중요한 사실을 깨우친다. 바로, 함께 투표에 참가한 조원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믿고 싶은 상대인 시온의 마음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시안은 절망의 문턱까지 다다른다. 시안은 위태롭게 잔인한 진실로 향한다. 진실은 멀리서 볼 땐 아름답지만 다가면 죽음을 선사하는 사탕비와 닮았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숨어든 캔디 인간은 누구인가. 시안은 용기를 내 직접 한 발을 내딛는다.

아름답고 저주스러운 사탕비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 사이에 숨어든 '캔디 인간'을 색출해야 한다

영어덜트

불공평한 인생, 내가 의지할 건 독감약뿐!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18세 여고생. 외동딸인 탓에 슬픔을 공유할 형제자매조차 없다. 친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이 깊어진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불공평하다. 용돈이 부족해 3만 원짜리 카디건조차 사지 못하고, 야밤까지 독서실과 공원에서 시간을 죽여야 한다. 잠들지 못하는 밤 나를 재워주는 건 의사 몰래 모아놓은 독한 감기약뿐이다. 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

초능력자 탄생! 그런데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능력이라면?

그날 밤 백호신의 계시를 받게 된다. 백호신은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좇으며 초능력을 준다. 잠깐,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리는 능력이 아니잖아?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아니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능력이라니? 능력은 불행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면 능력이 소멸할 거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불행할수록 능력은 강해지고, 행복하려면 능력을 잃어야만 한다! 담임선생님도 아닌데 왜 과제를 주는 걸까.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선물한다.

서클의 수상한 리더, 내가 선택한 자매 미향

학교에서 나와 같은 초능력자 미향을 만난다. 그녀는 당돌하고 영리하다. 동생이 있다면 아마도 미향과 같을까? 학급에서 외면받는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유대감이 피어난다. 평생 외로운 외동딸로 살아왔던 나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매'라는 것이 생겼다. 미향은 '초능력자 서클'의 리더를 소개해주고 처음 보는 세계로 나를 초대한다. 순간이동, 텔레파시, 염력... 온갖 능력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어딘가 수상한 리더, 그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

네 아빠를 없애줄게... 다가오는 '그날'

리더는 서클을 이용해 불행의 씨앗을 잘라버리겠다고 한다. 드디어 내 인생에 오점 같은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어 분명 기쁨 줄만 알았는데 왠지 싱숭생숭하다. 리더와 함께하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만 한다. 미향은 리더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소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녀. 뭔가 이상하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리더가 아빠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초능력자가 탄생했다!
약당보다 아빠를 없애버리고 싶은 여고생의 치열한 성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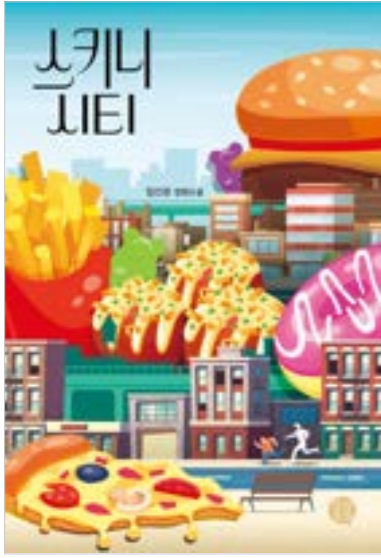


초능력이 생긴다면 아빠부터 없애볼까

If I Get Supernatural Powers,
Shall I First Remove My Dad?

청예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2021 최우수상 수상



스키니 시티

Skinny City

입선경

〈뽕뽕〉 작가의 차기작

영어덜트

검문

아리하가 엄마 다라와 함께 구두 쇼핑을 나갔던 날, 길에서 한 남자가 검문에 걸린다. 남자는 도망치지만 곧 화이트레스큐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화이트레스큐는 신체계측경찰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BMI를 측정하여 기준선을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한다. 이곳은 뽕뽕함이 범죄가 되는 도시로 '외모'가 기준인 계급 사회다. 18세 생일이 지나면 시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급 결정을 앞둔 학생들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캠프

검문에서 체포된 사람은 캠프에 강제적으로 끌려간다. 이 캠프는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 일단 입소되면 그것으로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이라 해도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다.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완벽한 몸매가 되어 새 인생을 찾았다고 광고하는 캠프 퇴소자들의 정체조차 의심스럽다. 그런데 아리하의 남자 친구 카타가 검문에 걸려 캠프에 끌려간다.

씨앗

누군가 아리하의 가방에 몰래 채소의 씨앗을 넣어두었다. 아리하는 겁에 질린다. 시티에서는 식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티에 '씨앗을 나눠 주는 사람들'이라는 반체제 비밀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그들은 식물을 먹자고 선동하며 강제적인 캠프 입소도 반대한다고 한다. 정부에 반기를 드는 위험한 조직이다.

비밀

아리하는 카타가 끌려간 캠프를 추적한다. 캠프 퇴소자 미미를 찾아가 수상한 점을 알아내고 시민위원회 간부인 교장 나나의 사무실에서 캠프 자료를 훔친다. 어렵게 침투한 나나의 집에서 비밀공간을 발견하는 아리하. 캠프가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한 다이어트 캠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뽕뽕한 사람을 캠프에 잡아 놓고 대체 뭘 하는 걸까? 밝혀진 캠프의 비밀은 충격적이다.

외모로 계급이 결정되는 가상사회

뽕뽕한 사람을 체포해 강제 입소시키는 다이어트 캠프의 비밀을 파헤쳐라!

영어덜트

요정이 그려진 동전

고등학생 정물은 어렸을 때부터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동전에는 요정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정에 날개가 있으면 행복한 일이, 없으면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부모님은 잦은 부부 싸움으로 정물을 불행하게 하더니 기어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이혼 숙려 기간이 한 달쯤 남은 날, 정물에게 의문스러운 행색을 한 카일이라는 남자가 찾아온다.

시미트리 시스템과 데칼코마니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항상 똑같은 양으로 유지된다. 이를 '시미트리'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씩 무작위로 짝을 지어서 행복과 불행을 주고받게 하는 것. 그렇게 연결된 두 사람을 데칼코마니라고 한다. 카일은 정물에게 세상의 비밀인 시미트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데칼코마니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도우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행복해지는 방법

정물은 카일의 뜻대로 명단에 적힌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한다. 그러던 중 정물은 자신이 이토록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참지 못하고 데칼코마니 미화를 찾아가고. 잠시만 덜 행복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정물. 미화는 황당해한다. 미화에게는 정물과 달리 행복 동전이 우수수 떨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삶 또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고심하던 미화는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정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닫힌 행복 주머니와 관리자의 정체

정물과 미화는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 복주머니가 닫혀 있거나 동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동전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간다는 것. 정물은 자신의 행복 주머니가 닫힌 것을 확인한다. 어떻게 해야 행복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 의문이 쌓이는 가운데 시미트리 관리자인 카일이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인 걸 알게 되는데……. 정물과 미화는 무사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진 만큼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

행복과 불행을 주고받는 데칼코마니, 둘은 함께 행복할 방법을 찾는다



행복한 데칼과 불행한 코마니

Happy Decal and Unhappy Comanie

김영서

Romance

케이로맨스 사극로맨스

고즈넌이엔티의 사극로맨스 주인공은 시대의 규범과 차별,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진취적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쟁취하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고즈넌이엔티는 그녀들의 도전과 사랑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사극로맨스 작품목록



왕의 무사 귀인별

이은소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내 원범, 무력한 왕을 지키는 무사로 거듭난 별이. 진정한 왕이 되려는 원범과 왕의 살해 음모를 막으려는 별이의 여장부 활극 로맨스



조선후궁실록: 연흥전

강선우

심야책방에서 국수 말던 연흥, 세자 이원의 연인이 되다! 친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입궐한 명랑 처자 연흥의 산전수전 궁궐 로맨스



꽃비 꽃비

이은소

마음에 품고 오래오래 사랑한 궁녀 꽃비, 돌고 돌아 마음을 깨달은 왕자 용. 엇갈리는 사랑과 신분의 벽, 그녀머의 세상으로 향하는 꽃길



내 도도한 향아리

라혜원

향아리 속에서 7년을 갇혀 지낸 억울한 영혼과의 수상한 계약



용을 그리는 아이

지은

임금이 될 운명을 지닌 두 명의 왕자와 그 운명을 막으려는 여자의 치명적 사랑



별안간 아씨

서자영

노비가 요조숙녀로 분하는 과정 속에서 양반 자제와 애뜻한 사랑이 싹트는 조선시대 유쾌 상쾌 발칙한 로맨스



사주팔자

서자영

드센 팔자를 타고 태어난 여자와 폭군의 사주를 타고 태어난 왕자의 우연한 만남과 운명 같은 사랑



부용화

허수정

왕권 회복 전략으로 초조대장경의 육로 운반을 단행하는 사람들의 역경과 사랑, 음모와 모험



천일에 지는 밤

임이슬

광증을 앓고 있는 왕 이려와 그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업복의 천일에 걸친 사랑 이야기



겨울연꽃 서리연

주단영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부상하던, 혼란스런 왕조 교체기! 고려 왕가 여인과 조선 엘리트 관료의 아슬아슬한 곡예 같은 로맨스



왕의 무사 귀인별

Noblewoman Byeol, the King's Warrior

이은소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작가의 차기작
KOCCA BCWW 선정
KOCCA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선정

사극로맨스

편우사의 여름날

영민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왕세자, 효명. 그는 부왕의 대리청정을 하면서 당대의 외척이자 최고 별열인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위기를 느낀 안동 김씨 가문의 수장, 김좌근은 효명세자를 독살할 음모를 꾸민다. 나인 윤연심은 김좌근이 도모하는 음모를 알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효명세자에게 김좌근의 음모를 알린다. 효명세자는 김좌근에게 쫓기는 연심에게 선왕 독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건네주고, 호위 무관 박시명을 통해 연심을 잠시 피신시킨다. 그리고 그 후, 효명세자는 갑자기 승하한다.

연인의 이별

종친인 원범은 형이 역모로 연루되어 사사된 후 강화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혈혈단신 유배 생활을 원범은 불평불만 없이 감사하며 지낸다. 좋은 이웃과 벗, 스승 그리고 별이가 있기 때문이다.

별이는 수상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별이는 민상궁 마마님으로부터 대궐의 소식을 듣지만 상감마마는 어찌 여러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상하다. 그리고 묻는다. "원범아, 너는 평생 나 하나뿐이지?" 대답 없는 원범은 별이에게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강화유수가 전달한 명이 심상치 않다. "죄인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조용히 다음 명을 기다리거라." 아! 나도 드디어 사사되는 것인가.

새로운 연정

조선의 왕이 된 원범은 세월이 흘러 대왕대비의 천하에서 손발이 묶인 채, 유약하고 무력한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잠행을 나왔다가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난다. 위기에 처한 원범을 구해 주고, '여인의 몸으로 못 할 일은 없습니다'라며 검을 휘두르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라며 고백하는 여인이다. 원범은 별이와 닮은 이 여인에게 끌리게 되고, 저도 모르게 새로운 연정이 생겨난다.

왕을 지키는 여인 무관

별이는 원범과 재회하고 승은 상궁이 되어 입궁하지만 곧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신하가 되어 원범의 곁에 머물면서 원범을 지키려 별이는 강화 특별 과거, 무과에 장원 급제한다. 별이를 지키기 위해, 별이를 여인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원범은 안김 세력을 축출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안김 세력에 맞서고 박시명, 윤연심, 별이의 죽음을 밝히려려고 하는 원범과 별이의 사투. 위기를 느낀 안김 세력은 원범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별이와 원범은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는다.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내 원범, 무력한 왕을 지키는 무사로 거듭난 별이
진정한 왕이 되려는 원범과 왕의 살해 음모를 막으려는 별이의 여장부 활극 로맨스

사극로맨스

생각시가 된 꽃비

소녀 꽃비는 어느 날 궁에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생각시란다. 가족들은 아반도주했다. 저 성질머리 고약한 왕자가 내 상전이란다. 죽기 전까지는 대궐을 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성질머리 고약한 상전, 안평대군이 꽃비의 탈출을 눈감아 주고, 꽃비의 뒤통까지 발을 받고, 맛난 것을 챙겨 주고, 글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어느새 꽃비가 대궐에 남는 이유이자 꿈이 되어 버린다.

엇갈리는 마음

용에 대한 꽃비의 꿈은 첫사랑으로 성장하고, 용은 소영신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영신이 공녀로 끌려가고 용이 가례를 올리면서, 두 사람은 실연의 아픔을 겪는다. 용은 어린 시절부터 친누이처럼 아끼던 꽃비가 저를 따라 대궐을 나오지 않은 것이 서운했지만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네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시간이 흘러 꽃비는 20대 궁인으로 성장한다. 함길도에서 아이들이 마을에 침입해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이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은 함길도로 향하고, 꽃비도 그를 따른다. 협상이 순탄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시아의 배신으로 아이들이 병원에 침입한다. 꽃비는 불이 붙은 용의 막사를 발견하고 용을 구하기 위해 막사에 뛰어든다. 일찍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막사로 돌아온 용은 그 사실을 알고 꽃비를 구하기 위해 막사에 뛰어든다.

사랑과 자유를 향한 여정

간신히 꽃비를 구해 나온 용은 꽃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꽃비는 왕의 여인인 공녀로, 왕이 아닌 다른 이와 이어질 수 없다. 공녀의 상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나쁜 시절. 꽃비는 늘 그래왔듯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용은 왕자로서의 삶과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삶을 앞에 두고 갈등한다.

마음에 품고 오래오래 사랑한 공녀 꽃비, 돌고 돌아 마음을 깨달은 왕자 용
엇갈리는 사랑과 신분의 벽, 그 너머의 세상으로 향하는 꽃길



꽃비 꽃비

Kotbi, Flower Rain

이은소



DRAMA WEB TOON

용을 그리는 아이

A Woman Who Makes the King

지은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판권 계약
투유드림 웹툰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러시아 AST 번역 출간

「 임금이 될 운명을 지닌 두 명의 왕자와 그 운명을 막으려는 여자의 치명적 사랑 」

궁중 로맨스

유서하,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왕실에는 절대 발설해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왕좌를 결정하는 '용의 아이.'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자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용의 아이' 서하는 자신이 용의 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여덟 살의 나이에 곁에 끌려 온다. 오랜 세월 곁에 갇힌 채 용의 아이가 가진 능력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원하는 것을 위해 서서히 자신의 진짜 힘을 받아들인다. 암전하고 고분고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한번 결심이 서면 뒤도 보지 않고 돌진부터 하고 보는 행동파이다. 자신이 일평생 바라왔던 한 가지를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목숨도 불사할 수 있는 여인.

무현대군 이유, 반드시 지키기 위해 싸운다

선왕 시해범으로 몰려 죽음으로 위장해 도피해야 했던 비운의 적통 왕자, 무현대군 이유. 10년이나 영영 사라진 사람처럼 숨죽이고 있었지만, 내 사람을 지키고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 표현이 별로 없고 말수도 적는데다가 여인 보기를 똑같이 한다 해서 '이목석'이라는 별칭이 붙은 적도 있지만, 알고 보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세상 자상하고 달콤한 사내.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울 준비를 시작한다.

그대를 위해 더이상 없는 존재는 살지 않으리라

「용의 아이는 의궤를 그리고 있으니, 무늬신을 사뵈시길 바라옵니다」
'의궤대군을 왕좌의 주인으로 삼고, 무현대군을 신하로 삼되 죽여야 한다'는 서하의 서찰 한 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운명의 수레바퀴. 서찰을 보게 된 우가 절망할 틈도 없이, 서하는 또 다른 비수를 그의 가슴에 꽂아 넣는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긋나버린 연인들. '천벌을 받아 죽어버린 비운의 대군'이라는 멍에를 안고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 가까이 용의 아이라는 굴레에 구속되어 스스로 없는 존재가 되어 살아온 서하. 그들이 다시 재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이었다.

서하는 원치 않던 능력 때문에 후미진 전각에 갇혀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삶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일어나선 안 될 앞날을 보게 된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꾸어야 했던, 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던 단 하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플 만큼 사랑하는 이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바꾸려 했던 그 하루가, 과연 서하의 바람대로 바뀔 수 있을까?

사극로맨스

폭군의 사주를 타고난 불의 왕자 이운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제왕의 사주가 폭군의 사주로 뒤바뀐 왕자 이운. 공식적으로는 무신일 생이지만 사실 병오일 생으로, 자신도 무신일 생으로만 알고 있다. 무신일 사주와는 성격도 인생도 맞지 않아 이운은 사주 자체를 믿지 않는다. 왕과 중전이 사주를 들먹일 때마다 질색한다. 기세가 강한 탓에 눈썹만 꿈틀해도 주변 사람들을 꿈쩍 못하게 만드는 인물. 사주 탓인지 첫 정을 준 빈궁을 3년 만에 잃는다.

집안 말아먹는 사주를 타고난 물의 여자 민해명

민해명은 대대로 중전을 배출한 명망 높은 여흥 민씨 집안 예조판서 민향수 대감의 고명딸이다. 그러나 계획에 없이 들어섰던 데다 하필 수다(水多)하다고 하여 다들 출산을 꺼리는 임자년 생. 여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음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자년 생 여아는 시집가기도 어려웠다. 아님나 다를까 민해명은 혼례도 올리기 전에 남편이 횡사한다.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나다

이운은 빈궁이 죽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 혼인할 운이 있다며 혼인을 강요하는 왕과 중전에게 질려 궁을 몰래 나간다. 그리고 이운이 타고 있던 말에 무언가 부딪힌다. 남장을 한 민해명은 자신의 말이 이운 때문에 달아났다고, 사과를 하고 자신을 목격자까지 태워달라고 한다. 이운은 속으로 자신의 기세에도 꺾이지 않는 사내를 보고 보통내기가 아니라고 놀란다. 그는 용한 도사에게 여동생의 사주를 보러 간다고 하며, 여동생의 기구한 팔자, 즉 자신의 팔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 드센 팔자를 타고 태어난 여자와 폭군의 사주를 타고 태어난 왕자의 우연한 만남과 운명 같은 사랑 」

우연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순간

민해명은 도사에게 조선 반가 여인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면, 사주쟁이가 되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밖에서 나는 소란. 명주 한 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싸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칼을 뽑아 든 이운. 이때 민해명이 기지를 발휘해서 진짜 명주 주인을 찾아준다. 일련의 사건으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 더 친밀해지고, 운은 사주쟁이가 되려고 떠난다는 해명과 헤어지기가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운은 해명과 있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해명과 인연은 또 찾아올 것인가? 둘의 인연은 우연인가, 운명인가?



WEB TOON

사주팔자

Fortune and Destiny

서자영

테이크원컴퍼니 웹툰 출간



WEB TOON

천일에 지는 밤

The Thousand and One Nights

임이슬

재담미디어 웹툰 출간
러시아 AST 번역 출간

사극로맨스

밤이면 광포해지는 왕, 이려

포악하다고 소문난 조선의 왕 이려. 그는 사실 광증에 시달리고 있다.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을 느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변에 폭력을 휘두른다. 한바탕 피 바람이 불고 나면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달아난 목숨도 여럿이다. 그의 병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음모를 꾸미는 누군가가 일부러 왕을 독에 중독시킨 것. 이려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이 광증에 정신을 잃었을 때 자신을 붙잡아줄 수 있는 목소리를 찾으려고 한다.

소문난 전기수, 시강도령 업복

업복은 원래의 신분과 본인이 여성인 것을 숨기고 이야기를 팔아 먹고 사는 전기수이다. 내금위장이었던 아버지와 오빠가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전기수가 된 것.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뛰어난 연기, 그리고 고운 외모로 '시강도령'이라는 호(號)까지 얻었다. 그녀는 왕에게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분노로, '광호전(狂虎傳)'이라는 이야기를 지어 왕을 희롱하고 다닌다.

찾았다, 내 동아줄

어느 밤, 업복은 평소와 같이 별당에서 여인네들에게 이야기를 팔고 담을 넘어 도망을 치는 중이었다. 높은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는데, 딱딱한 바닥이 아닌 물렁한 것이 느껴진다. 낯선 서생 하나가 업복의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업복은 자시(子時)를 넘어 돌아다니는 사내도 자신과 같이 쫓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몸을 숨긴다. 민가의 어느 창고. 업복은 사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줄줄 이야기하고 만다. 사내의 정체는 바로 조선의 왕 이려. 그는 업복이 그토록 찾던 전기수임을 알고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매일 밤 달은 지고, 또 차오르고

이려는 업복이 저를 따르지 않자 왕을 희롱한 전기수 업복을 체포하라 이른다. 포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복은 왕의 이야기꾼이 되라는 이려의 말을 끝까지 거부한다. 그때, 업복이 포박되어 있던 폐축사에 불이 나고 이려는 업복을 구출해 궐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도령 차림의 업복에게 무수리로 분장하고 궁궐 안의 소문과 이야기를 모아달라고 말한다. 폐허 같았던 연경당과 왕 이려는 점점 생기를 찾아간다.

광증을 앓고 있는 왕 이려와 그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업복의
천일에 걸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사극로맨스

책방 처자, 별당 아씨가 되다!

도성 후미진 뒷골목 심야책방 '독락당(讀樂堂)'의 연홍. 낮에는 기방에서 허드렛일하고, 밤에는 책방에서 국수 삶으며 틈틈이 본인 출생의 비밀까지 캐고 다니는 열혈 명랑 처자다. 불법 심야영업을 한 죄로 책방이 폐업 조치되는 바람에 살길 아득해졌다. 전직 대사헌 송시헌 대감께서 수양딸 삼고 싶다 하셨지만 별당 아씨는 영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 사양했던 것도 잠시, 연홍은 별수 없이 별당으로 들어간다.

별당 생활에 그럭저럭 적응해가던 어느 날, 중전께서 아회(雅會)를 열어 세자의 후궁 감을 물색한다는 서찰이 사대부가에 전달된다. 인방 규수들의 재기를 뽐내는 자리인 줄로만 알고 중궁전 앞뜰에 나갔던 연홍은 세자의 후궁은 더더욱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 혼비백산 도망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연홍은 입결하게 되는데...

별당 아씨, 귀인 마마가 되다!

바로, 친모의 유품 옥비녀 때문이었다. 간택 탈락을 위해 자발적 비뚤 노선을 고수하던 연홍은 옥비녀가 대비전 궁녀의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입결로 노선을 변경한다. 향간의 소문에 의하면 세자 저하께서 고자이시라니, 후궁인 척 후궁 아닌 후궁 흉내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 사이 친모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리라.

귀인에 책봉된 연홍. 후사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몸과 마음은 친모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바쁘고, 고자 아니신 신체 건강한 조선의 청년 세자 원은 연홍과의 달달한 로맨스를 꿈꾸지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연홍 때문에 밤이 길기만 하다.

중전마마 아래로 세자빈, 왕의 후궁인 숙의와 은애당 그리고 숙의의 딸 성하옹주까지 매일 매일이 꽃들의 전쟁터인 내명부. 연홍은 타고난 명랑함으로 내명부를 접수하고 옥비녀에 대한 단서를 모으던 중, 친모가 대비마마 생전에 오향재에서 필사하던 다섯 궁녀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심야책방에서 국수 말던 연홍, 세자 이원의 연인이 되다!
친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입결한 명랑 처자 연홍의 산전수전 궁궐 로맨스

귀인마마, 살인미수 용의자가 되다!

연홍은 친모의 생사여부를 알 만한 예전의 동료 궁녀들을 찾기 위해 사가로 도움을 청하는 서찰을 보낸다. 서찰은 오라버니 우신과 정을 통하는 연서로 둔갑하고, 호적상 남매이지만 생판 남남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의혹과 추문이 퍼져간다. 그러던 어느 밤, 오향재에서 독에 당해 쓰러진 은애당. 용의자는 연홍이다. 연홍은 의금부 옥사에 갇히고, 우신은 연홍과 내통한 죄로 끌려온다. 강무에 나갔다가 돌아온 원은 세상 둘도 없는 벗과 연인이 사지에 물린 참담한 상황에 분노하는데... 대체 누가, 왜! 작전 세력들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연홍, 원, 우신의 반격이 시작된다.



조선후궁실록 연홍전

The Concubine

강선우

KOCCA 스토리공모대전 수상
KOCCA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선정



내 도도한 향아리

My Precious Ghost-In A-Jar

라혜원

인도네시아 M&C 번역 출간

사극로맨스

사랑에 빠진 소녀 수생

귀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수진궁. 천민 출신 수생은 그곳에서 미남 대군 능창군과 인연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참이다. 어두운 밤, 수생은 소문으로 들었던 방법대로 향아리 안에 염원을 담은 종이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향아리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고, 이를 확인하려던 수생은 향아리를 떨어뜨린다. 얼마 후 수생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능창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수생은 수진궁 귀신을 욕한다.

억울하게 죽은 향아리 귀신 백함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귀신 백함. 수생이 향아리를 깬 덕분에 백함은 7년만에 깨어난다. 향아리가 깨지자 원기가 빠져나간 백함은 수생과 함께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수생에게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힘을 당할지, 협정을 맺고 운명공동체가 될 것인지 묻는다. 수생이 비슷하게 생긴 향아리를 구해오고, 비로소 백함은 향아리에 들어가 원기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백함은 수생을 철저히 이용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수생과 백함의 은밀한 거래

수생은 백함에게 귀신의 힘을 보여주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능창군이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수생. 백함은 곧바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수생은 믿지 못한다. 혼례식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능창군의 집에서 서성거리는 수생. 수생은 능창군을 마주치자 백함이 이전처럼 능창군으로 변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례를 가지고 왜 거짓약을 하였느냐고 따진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능창군이었고, 능창군은 비로소 수생을 기억하게 된다.

도도한 향아리의 비밀

투닥거리면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 백함과 수생. 수생은 활쓰기 대회에 남장을 하고 참여한다. 능창군을 가까이서 보고, 백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박상협이라는 사내. 그는 수생에게 향아리를 팔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가까이 지내던 벼에게 받은 똑같이 생긴 향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수생은 상협의 벼가 7년 전에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백함은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상협을 만나면서 다시 되찾는다. 형제 같이 지내던 벼 상협.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와 관련된 기억을 모두 잃는다는데, 백함은 상협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알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를 찾아갈 결심을 하는데...

향아리 속에서 7년을 갇혀 지낸 억울한 영혼과의 수상한 계약

사극로맨스

혁명을 꿈꾸는 서자 강형수

영의정까지 올랐던 강치영과 기생 사이에서 난 아들 강형수는 천재에 버금가는 두뇌와 학식을 가졌지만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좌절해 한량으로 전락한다. 그는 세손(정조)과 은밀한 계약을 맺는다. 노비를 요조숙녀로 만들어 양반들을 속인다면, 서얼허통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서얼허통법이란 첩이 낳은 자식의 신분적 차별을 없애는 법으로, 이것이 통과된다면 형수는 소원하던 관료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천방지축 당찬 노비 덕이

강치영의 집안 노비로, 눈치가 빠르고 일손이 좋다. 당찬 성격에 말귀도 잘 알아듣고 영리하며, 글자도 제법 안다. 노비로 태어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비와 혼인하여 노비의 자식을 낳을 비애야 무물에 빠져 죽겠다고 결심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게 해주겠다는 형수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선다. 그리고 그런 덕이에게 형수는 그녀를 정경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다.

형수는 어머니 월향이 있는 옥루각에 덕이를 데려간다. 그리고 기생을 만들듯이, 덕이를 요조숙녀로 만들어 달라고 청한다. 덕이는 당장 다음날부터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평생 받지 못했던 관리를 받는다. 월향은 덕이에게 얹은 모양새부터, 걸음걸이, 저분질(젓가락질)까지 아가씨가 갖춰야 하는 교양을 가르친다. 덕이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양반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한다.

노비의 변신은 무죄

요조숙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덕이의 불만은 커진다. 여인은 사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부덕 있는 여인이란 결국 사내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하는 계집이니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것 외에는 노비와 다를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린다. 덕이는 측간에 갔다 온다고 주변 사람을 속인 뒤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노비가 요조숙녀로 분하는 과정 속에서 양반 자제와 사랑이 싹트는 조선시대 유쾌 상쾌 발칙한 로맨스

노론 실세, 요조숙녀 덕이에게 빠지다

겨우 옥루각에 다시 돌아온 덕이에게 형수는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형수는 덕이가 하기 싫다고 때를 쓸 때마다 그녀의 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덕이를 달랜다. 덕이는 이제 그에게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배를 태워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드디어 옥루각에는 노론 최고의 실세 최만섭의 장남이자, 덕이의 미래 남편 최규식이 찾아온다. 그와 덕이가 만난다는 말에 형수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이 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별안간 아씨

My Fair Lady in Joseon

서자영

재담미디어 웹툰 출간

WEB TOON



부용화

A Lotus

허수정

왕권 회복 전략으로 초조대장경의 육로 운반을 단행하는
네 남녀의 역경과 사랑, 음모와 모험

사극로맨스

왕의 법사 우승 위험에 발을 놓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과 정치 실세에 놀려 무력하기만 한 허수아비 왕 고종은 비밀 계획을 세운다. 오랑캐의 침입을 불법(불교)의 힘으로 막아내려고 조성했던 초조대장경을 궁으로 운송하게 하는 것. 몽골군은 대장경을 모셔놓은 부인사의 장경각에 불을 지르지만, 대장경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다. 법사 우승의 책임 아래, 대장경이 궁으로 운반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민심을 얻으면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왕의 명령에 법사 우승은 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만다.

초조대장경 행렬이 시작되다

대장경 운반의 총 책임을 맡은 우승은 단숨에 초조대장경의 일부가 숨겨져 있는 황룡사까지 간다. 황룡사에서 대장경이 불탈 때 목숨을 걸고 일부나마 살려냈다는 부용과 진오를 만난다. 진오는 어렸을 때 부용의 아버지가 양아들로 데려온 아이로 출가해 황룡사의 승려가 되었다. 부용을 친누님처럼 따르고 세심하게 챙겨줬던 진오. 그에게 뒤늦게 마음의 문을 연 부용의 마음은 허하다. 우승, 진오, 부용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왕의 그림자무사 양무가 초조대장경 이동의 호위를 맡는다. 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대장경의 행렬. 여기에 왕의 그림자무사들 10여 명이 합류한다. 그들의 손에는 백성의 눈길을 끌 만한 왕실의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들려 있다.

몽골군, 대장경 반환을 종용하다

승려와 무사들의 도움으로 초조대장경은 금산까지 운반되나 몽골군의 침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첩보에 따라 가까운 성으로 피신한다. 진주현에 도착한 일행은 감무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날, 수만 명의 몽골군이 성을 에워싸고 대장경 반환을 종용하는데...

몽골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종과부적인 성의 민심은 견잡을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오직 사랑만이 기적을 이루어내겠지만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직 성 안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한 사람을 걱정하는 부용과 부용의 마음을 알지만 나랏일과 불심이 중요한 진오 그리고 네 남녀에게 흐르는 미묘한 사랑과 음모의 기류, 그들의 선택은 기적 같은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사극로맨스

파혼을 거스른 운명 같은 사랑

고려의 관료였던 김한조는 자식들이 아직 갓난아이였을 때 친구 왕강과 약조를 맺는다. 자신의 아들인 정과 친구의 딸 보화가 자라면 혼인을 시키기로 한 것.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더 이상 왕가의 귀족이 아닌 왕강을 외면하고 약조했던 정혼도 파기하려 한다. 예정된 파혼을 거스르며 운명은 결국 두 당사자를 만나게 하는데...

고려 왕가의 여인 왕보화

왕강의 딸로 태어나 왕족의 여인으로 평안한 삶을 영위했던 왕보화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다. 보화는 부모로부터 자신에게 정혼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흥화루로 간다.

신진사대부의 총아 김정

인재가 절실한 신흥 왕국 조선과 차세대 왕권 이방원이 주목한 신진사대부의 총아 김정. 그러나 고려의 신하로 남기로 한 숙부가 두문동에 칩거했다가 불타 죽은 일 때문에 권력에 대한 환멸에 시달리고, 막역한 친구인 이방원의 회유에도 마다하고 한량으로 지낸다. 한편 남장을 한 보화와 정의 친구 행세를 한 정은 이방원의 장난에 말려 여러 번 좌충우돌하고, 그사이에 고려 왕족의 왕씨 멸족 사건이 벌어지자 보화는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고뇌하는 비극의 호위무사 중업

정은 자신의 호위무사이자 이복형인 중업에게 자신인 척하고 보화를 만나달라고 청한다. 중업은 마지못해 그의 청을 듣는다. 보화는 한량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현철하고 반듯한 김중업에게 반하고 중업 또한 보화에게 끌린다. 서열이라 호위무사로만 살아가는 중업에게 보화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유일한 여자가 되고,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인 동시에 죽일 수밖에 없는 여자이기에 중업의 고뇌는 더욱 깊어진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부상하던, 혼란스런 왕조 교체기!
고려 왕가 여인과 조선 엘리트 관료의 아슬아슬 곡예 같은 로맨스

사랑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들

왕씨 멸족으로부터 보화를 살리는 대가로 정은 방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수하로 들어가지만, 아버지를 잃은 보화는 정이 아버지를 죽인 한 패거리라고 오해한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깊어질수록 보화가 정에게 느끼는 애증의 상처도 깊어간다. 그사이 정도전 측근은 왕족 보화를 미끼로 이방원을 제거하려 하는데...



겨울연꽃 서리연

Winter Sacred Lotus

주단영

Romance

로맨스 현대로맨스

순수에서 타오르는 욕망까지 다채로운 사랑의 스펙트럼을 펼쳐나갑니다. 로망의 절정이 빚어내는 아찔하고 몽환적인 순간들이 무더진 감각의 세포들을 깨워줄 것입니다. 고즈넉이엔티의 로맨스 소설은 온몸으로 만끽하며 읽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읽고 난 후에는 바로 영화, 드라마로 다시 한번 체감하길 고대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로맨스 작품목록



기억거래자의 첫사랑

국슬기

눈을 마주치는 순간 타인의 기억을 빼앗는 기억거래자가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애절한 로맨스!



연애의 온도 29°C

이지현

평범한 스펙과 달리 스펙터클한 그녀들의 연애사는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 가슴 따뜻해지는 여섯 가지 연애의 맛!



리베르탱고

길유영

소도시 한적한 문화회관이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공연으로 발각 뒤흔들다! 행정직 말단 직원과 천재 첼리스트의 선을 가득한 힐링 로맨스



아빠가 된 아이들

초연

아이는 원하지만 결혼은 싫대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가진 골드미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빠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



시크릿 허즈밴드

김류현

뉴욕에서 만난 꿈 같은 그 남자와 이제는 서울에서 시작하는 맛있는 로맨스!



태권브이와 시바견

오희

음주운전으로 추락한 스타 배우 박연과 태권도 전국대표선수 권브이의 얼렁뚱땅 계약 연애가 진짜 연애가 되다!



먹고 마시고 자라

김인숙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는 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들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느꼈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원티드

초연

증인보호 프로그램 원티드로 운명이 바뀐 두 남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빙유에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다!



기억거래자의 첫사랑

First Love of a Memory Hunter

국슬기

로맨스

우연한 재회

스물다섯 살 지한은 타인의 기억을 지워주는 기억거래자다. 열다섯 살 무렵 기억거래자가 된 뒤로 그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는 한 여자, 영선과 우연히 눈을 마주친다. 처음엔 자신을 기억하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서, 그다음엔 왜 흐리멍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걸까 의아해서, 그는 자꾸만 그녀를 찾아가 관찰한다. 그러다 그녀가 기억의 한 조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불안하다. 그녀의 기억은 왜 사라진 걸까? 설마 그녀가 다른 기억거래자와 거래를 했던 걸까? 초조해진 그는 자신을 기억거래자로 만든 스승에게서 열다섯 살 이전의 기억을 되찾기로 한다.

진실의 열쇠

스승과 만난 지한은 엉겁결에 10년 전 자신의 기억을 읽은 스승의 기억스크린을 훔치고 만다. 스승의 기억스크린을 읽은 그는 충격에 휩싸인다. 영선의 기억을 지운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는 서둘러 실수를 만회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선은 다짜고짜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그를 의심한다.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는데?'라며 의미심장한 물음을 남길 뿐이다. 그는 다른 무언가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영선의 기억을 온전히 되돌려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되찾은 기억스크린

두 사람은 함께 다닌 초등학교에서 16년 전 지한이 실수로 꺼낸 영선의 기억스크린을 발견한다. 지한이 영선에게서 지운 것은 죽은 아버와의 행복했던 기억. 지한은 영선에게 소중한 기억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그녀에게 죄책감과 애뜻함을 느낀다.

한편, 그는 스승이 자신을 속여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강탈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스승의 기억스크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남자'와 연관되어 있다. 지한은 그 남자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 남자는 영선의 아버지이자, 스승이 지한보다 먼저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또 다른 기억거래자였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기억

죽은 줄 알았던 찬수는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영선에게 아버지를 되찾아주는 지한. 그러나 기억이 없는 영선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고도 실감하지 못한다. 이윽고 지한은 찬수에게서 스승이 저지른 악행을 전해 듣는다. 지한은 자신의 기억과 영선의 가족을 망가뜨린 스승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영선에게 행복했던 아버와의 기억을 돌려주겠다고, 자신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겠다고 결심한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타인의 기억을 빼앗는 기억거래자가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애뜻한 로맨스!

로맨스

피아노를 사랑했던 여자

그녀는 평범하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문화회관 행정직 직원인 그녀에게는 특별한 꿈도 열정도 없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흔해빠진 이 시대의 20대일 뿐.

중3 때까지 피아노를 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조성진만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그냥 착각일 뿐이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은 그냥 그중 하나—그나마 특별하지도 않은—일 뿐이었다. 었던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마치 피아노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던 듯 선뜻 피아노를 포기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아노는 그녀가 몇 년간 가졌던 유일한 꿈이었고 그 꿈을 놓아버린 그녀는 그 반대급부로 급속히 공허해진다.

첼로가 사랑한 남자

그는 천재였다. 그러나 천재란,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재력과 인맥, 둘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한 유진의 재능은 오히려 독이었다. 3년간 참가한 모든 콩쿠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상조차 하지 못하고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도피하듯 한국을 떠난다. 그리고 조국이 품어주지 못한 그의 재능은 미국에서 화려하게 만개한다.

그러나 그 엄청난 성공의 뒤안길에는 자신으로 인해 이혼한 부모와 한국에는 머물 곳조차 없어 호텔에서 기거하는 쓸쓸한 생활, 첼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27년의 길지 않은 인생 중 첼로에 바친 시간이 20년. 그 시간을 뺀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소도시 한적한 문화회관이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공연으로 발칵 뒤집힌다! 행정직 말단 직원과 천재 첼리스트의 선율 가득한 힐링 로맨스

당신은 왜 꼭 여기야 했나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클래식계의 기린아가 자신의 내한공연의 무대로 선택한 수도권 변두리의 한 작은 문화회관. 모두가 그의 결정을 의아해하지만 거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에게는 절대로 밝히고 싶지 않다.

나는 천재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니까. 설령 아니더라도, 그래야만 하니까.



리베르탱고

Libertango

김유영

스토리움 소설 공모전 당선



시크릿 허즈밴드

The Secret Her's band

김류현

드라마 판권 계약
SBS드라마 <스위치> 작가의 로맨스 신작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로맨스

달과 뉴욕 사이에서 만난 남자

외식업체 서린F&B의 팀장인 진미. 큰맘 먹고 엄마의 환갑을 맞아 첫 모녀여행을 떠나기로 하지만 여행 며칠 전 엄마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다. 생전 딸 내미와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구나, 자책하던 진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엄마의 유골을 들고 공항을 질주한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낯선 도시, 뉴욕에 도착하는데...

상실감에 젖어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검은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진미.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다가와 어깨에 외투를 덮어준다. 친근한 말투와 해사한 미소를 띠며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구는 남자. 남자는 진미를 호텔로 데려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1달러 동전까지 선물한다. 하지만 이름을 묻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남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에서의 재회, 뒤바뀐 관계

남자가 차려준 식사 덕분에이었을까,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진미. 8개월 후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델리카시'의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따낸다.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진미. 8개월 전,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만난 그 남자를 재회한다! 하지만 그는 절망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금방이라도 죽으려는 사람처럼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데...

가까스로 깨어난 그는 순진한 얼굴로 진미에게 묻는다. "내가 누구죠?" 무슨 이유에선지 미국에서 추방당했다는 남자. 그는 임시여권에 적힌 '영유제'란 이름 외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토록 기대하던 재회였는데 진미는 여전히 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쉿, 우리들의 세어 허즈번드!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진미. 그런데 김스를 풀자마자 청소도 척척, 수리도 척척. 요리책만 보고 아는 맛을 똑똑똑 재현해내는 남자! 급기야 진미 절친의 가사도우미, 동네 꼬마의 베이비시터, 동네 가게 대타 점원 노릇도 능숙하게 해낸다. 하지만 윤제의 가장 큰 미션은?

오래전부터 진미는 서린F&B의 본부장 김석의 오피스 와이프라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석과 결혼을 앞둔 구성그룹 재벌 3세 구상경이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급기야 진미를 좌천하기에 이른다. 진미는 이에 항명하며 자신에게 진짜 남자친구가 있다며 윤제를 내세운다. 그렇게 시작된 본격 남자친구 코스프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헛갈린다. 우리 진짜 코스프레 맞아?

어쩌다 구상경의 가사도우미까지 맡게 된 윤제. 재벌 3세의 가사도우미와 진미 남자친구 코스프레를 동시에 하게 되었다. 과연 들켜지 않을 수 있을까? 진미와 윤제의 시크릿한 관계는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 못 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뉴욕에서 만난 꿈 같은 그 남자와 이제는 서울에서 시작하는 맛있는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그 여자 대본, 그 남자 연출

감성 푸드채널 케이블 먹방 프로그램 '식탐미인'의 메인작가 이숙은 오늘도 담당 피디 성재에게 고백할 수 없어 애만 탄다.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관하길 수백 번! 살을 빼서 미친 듯이 예뻐진 다음에 고백하리라 마음먹지만 쉽지 않고. 자꾸만 눈치 없이 불쑥불쑥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성재 때문에 이숙은 고민에 빠진다.

돈가스 사진?

성재의 행동 중에서도 제일 납득이 되지 않아 답답한 건, 돈가스 사진! 그는 언제 어디서 밥을 먹든지 돈가스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 이숙에게 보낸다. 포크와 나이프도 가지런히 함께!

관중형 소시오패스인가? 왜 하필 수많은 것 중에 돈가스만 보면 내가 자동 링크되는 건데? 피디와 작가의 기싸움 같은 거 그런 건가? 혹시 돈가스의 돈이 돼지 돈(豚)이라서? 그리고 그 돼지가 이 방송국에 나뿐이라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동녀계의 팜파탈

동녀들의 소울 컬러 검은색을 콘셉트로 월 매출 10억 대의 빅 사이즈 여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고 있는 강욱의 사랑은 너무 많아 탈이다. 학창시절 제일 인기 없었던 그녀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훈남 모델들을 양팔에 끼고 살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빅 사이즈 여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 'BigBLACK'이 대박을 친 이후부터였다. 사업하는 여자를 내조해줄 조신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여성 상위 주장녀. 그게 강욱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전신성형을 결심하다

비만 메이트 3인방 중 그나마 가장 적은 몸무게를 자랑하는 보민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계속되는 취업 낙방이 혹시 뚱뚱해서 아닐까, 점점 자존감만 낮아지고 콤플렉스 덩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게다가 랜선 남친 민혁 앞에 나서기 위해선 이제 다른 수가 없다. 보민은 다이어트고 뭐고 지방 흡입 수술을 결심한다!

몸매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

왜 여자는 평생 날씬하지 않고선 절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조금 뚱뚱하면 어떡하. 이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 날마다 그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기도를 한다! 음식을 앞에 두고 남자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는 세 여자가 먹고 마시고 자면서 느꼈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먹고 마시고 자라

Eat Drink Sleep

김인숙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KOCCA K-Story in China 선정
KOCCA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선정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선정
인도네시아 PT Gramedia 번역 출간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러시아 ROSMAN 번역 출간



원티드

WANTED

초연

KOCCA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선정

로맨스

전직 톱스타이자 현직 구청 공무원, 김지훈

19살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후 음악계와 영화계, 드라마계를 누비며 승승장구하던 차단우. 그때는 안하무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 받는 것을 좋아해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주인공이 되지 않는 건디지 못했다. 평범한 뚱뚱남이 되고 나니, 인생이 매일 불만족이다. 주목 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다시 스타가 되고 싶다!

전직 로드매니저이자 현직 연예기획사 대표, 송채운

채운은 17살 때부터 차단우의 열혈 빠순이었다. 오직 그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로드매니저가 되었는데, 정작 전담 연예인으로 만난 차단우는 쓰레기도 이런 인간쓰레기가 없다. 그녀는 차단우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면서 연예계 자체에 환멸을 갖게 되지만, 먹고 살길이 없어서 꾸역꾸역 로드매니저를 하면서 매주 로또를 산다. 그리고 어느 날, 1등에 당첨되어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 그동안 날 무시했던 놈들! 다 죽었어!

증인보호프로그램 WANTED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이자 솔로 가수로 초절정 전성기를 누리던 차단우는 우연히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는 바람에 조직폭력배에게 쫓기게 된다. 목숨의 심각한 위협을 느낀 단우는 검사의 제안을 받아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증인보호프로그램 WANTED의 목표는 가해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증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차단우'는 사고로 죽은 것으로 처리되고, 진짜 단우는 성형수술을 받고 뚱뚱하고 평범한 공무원 '김지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단우는 앞으로 평생 '김지훈'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연애 리얼리티 방송 러빙유에서 재회하다

스타로서 누리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단우는 자꾸만 인생역전을 꿈꾸고, 상금 3억 원이 걸린 연애 리얼리티 방송 '러빙유'에 출연한다. 한 때 단우의 로드매니저였지만 이제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된 채운은 김지훈이 된 단우와 프로그램에서 재회하지만 성형한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김지훈이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에게서 잊혀진 단우의 모습을 발견한다. 한편, 차단우가 신분을 바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직폭력배는 김지훈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언제 다가올지 모를 위험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두 사람의 숨겨진 로맨스!

증인보호 프로그램 원티드로 운명이 바뀐 두 남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빙유에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다!

유니버스 로맨스

그 여자, 그 남자의 연애 동선

명품 구두 매장에서 일하는 유주. 평범한 스펙과 달리 그녀의 연애사는 스펙 터클하다. 먼지 같은 일상을 깨고 황사와 함께 나타난 그 남자. 그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여자 구두를 사러 온다. 유주는 그의 연인이 신게 될 구두를 신고 그의 앞에 모델로 서는데...

맑음 씨의 솔메이트 어플 사용법

모태솔로인 게임 시나리오 작가 맑음. 짝사랑하던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한다는 소식에, 핑퐁에 자신도 단체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가기로 한다. 그런데 모임 장소로 가는 길에 솔메이트를 찾는 어플에서 알람이 울리고! 맑음은 운명의 남자를 만나 첫 키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런던 시계탑 아래 연인들

연극영화과 입시 학원 강사인 연주. 전쟁 같았던 사랑의 경험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한다. 그런 연주를 학원 강사박이 은밀히 스토킹 중이다. 화식도, 단체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비밀스런 남자! 박은 연주의 스케줄을 몰래 알아보기까지 하는데...

뱀띠 남자와 사는 법

이성적이며 차가운 뱀띠 남자와 결혼한 새 신부 소미. 그런데 이 냉담한 남자가, 과거 첫사랑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자 그녀를 납치까지 했던 사건을 알게 된다. 소미는 남편이 첫사랑에게 보여줬던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질병판결센터

인류의 모든 질병이 정복된 22세기. 질병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국가는 이를 다른 곳에 응용하게 된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이나 감옥 대신 질병을 주기로 한 것. 준성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심장병 2주 판결을 받게 된다. 늘 바쁘게 살아오던 준성은 심장병으로 인해 느린 삶을 살게 되고, 제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심장병 기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준성은 제이를 잃지 않기 위해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다.

평범한 스펙과 달리 스펙터클한 그녀들의 연애사는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
가슴 따뜻해지는 여섯 가지 연애의 맛!

야광신의 구두 수선 가게

음력 설날, 신발을 훑쳐서 그 주인의 한 해 운으로 살아가는 야광족. 신발을 도둑맞은 주인은 일 년 내내 불운을 겪는다. 오래된 신발을 모아 운을 축척, 영생하는 야광신 한빛과 연애 양아치 보라가 만나 운명적으로 펼쳐는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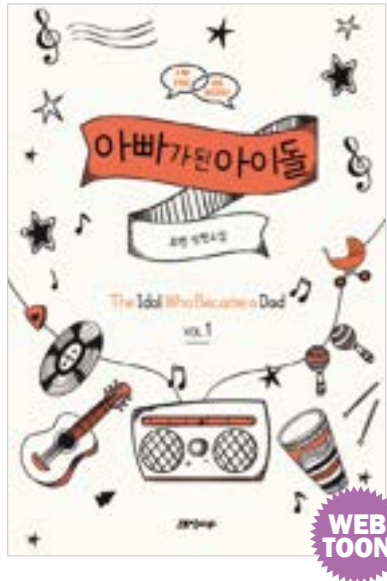


연애의 온도 29°C

Temperature of Love, 29°C

이지현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최우수상
SK모바일스토리 공모전 대상 수상
여성중앙 로맨스소설 공모전 수상
교보스토리 공모전 수상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선정
러시아 AST 번역 출간



아빠가 된 아이돌

The Idol Who Became a Dad

초연

- KOCCA K-Story in China 선정
- KOCCA BCWW 선정
-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 프랑스 K-World 번역 출간
- 네이버 시리즈 매월무
- 태국 TOSAPORNBILLIONGROUP 번역 출간

잘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 서유채

비혼주의자이자 잘나가는 변호사인 서유채는, 오랜 고심 끝에 비혼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난임 클리닉 의사인 주미의 도움으로 정자 기증 시술을 받는다. 유채는 인공수정을 통해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하는 데 성공하지만, 철저히 기밀에 부쳐져야 할 정자 기증자가 느닷없이 그녀 앞에 나타나 '아빠가 되고 싶다'고 우겨댄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후천적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이것이 아빠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는 여섯 살 연하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아시아 최고의 아이돌 그룹 '일루전'의 리더 강이현이다!

밀리언셀러 아이돌 그룹의 리더, 강이현

밀리언셀러 아이돌 그룹 일루전의 비주얼 담당이자 리더, 메인 보컬 강이현. 멤버들과 내기를 하다가 우연히 받게 된 정자 검사에서 '후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한다.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고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 수 없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남자 강이현은 생계형 아이돌 시절, 정자 기증 일바를 했던 흑역사를 떠올리고, 자신의 정자를 기증받은 서유채를 만나러 간다.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학창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깊은 유채는 자기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이현은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 힘든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멤버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일념으로 정자 기증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현이 유채에게는 철없어 보이지만, 그는 점점 생각지 못했던 자상하고 따뜻하며 어른스러운 면모를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아닌 그 남자의 진심

이현은 유채가 다니는 로펌의 클라이언트가 되더니 변호사들의 회식 자리에 나타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 그녀를 챙겨주고, 임신 초기 빈혈로 쓰러진 그녀를 집으로 업고 가 안전하게 재워주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아빠를 가질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존중해야 한다는 이현의 말에 유채는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록 나이는 어릴지언정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점 가까워진다.

아이는 원하지만, 결혼은 싫대!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가진 골드미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빠가 되고자 하는 아이돌!

얼렁뚱땅 시작된 계약 연애

운동밖에 모르는 태권도 전 국가대표 선수 권브이. 그녀는 음주운전으로 인기가 추락한 인기 배우 박연의 다큐멘터리 촬영에 VJ로 참여하게 된다. 연기, 외모, 인기, 모든 걸 갖춘 박연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바로 싸가지다. 그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씨바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건방지다. 두 사람은 인도에서 함께 낙오되고, 그로 인해 갖은 고생을 한다. 서울로 돌아온 박연을 기다리는 것은 짜질한 인간미 넘치는 리얼 다큐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들 그리고 권브이와의 열애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두 사람은 8개월간 타인 앞에서 연인 관계로 지낼 것을 약속한다.

네가 자꾸 여자로 느껴져

계약을 한 직후, 두 사람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순간, 박연은 4개월 전 음주운전의 진실을 기억해낸다. 운전석에 앉았던 사람은 자신이 아닌 라이벌 이민형이었다! 그러나 박연의 결백을 입증해 줄 증거는 없다.

함께 입원한 권브이와 병동생활을 하며 박연은 권브이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 권브이에게 오해를 산다. 반복되는 오해와 다툼. 우여곡절 끝에 멋들어진 이벤트와 함께 사귀자는 고백을 하지 만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차인다.

그는 브이에게 남자로 느껴지게 해주겠다고 선전포고한다. 박연의 애정공세에 모태솔로 권브이는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박연과의 계약 연애는 결국 진짜 연애가 되고, 두 사람은 더없이 설레고 달달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권브이는 부친 권현수에게 사채보증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음주운전의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찾던 이민형은 블랙박스 영상 대신 박연과 권브이의 연애계약서를 발견한다. 이민형은 세간에 터트릴 생각으로 언론에 계약서를 익명으로 제보한다. 두 사람의 연애계약 사실과 함께 권브이의 사채 빚까지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돈과 이미지 때문에 대중을 기만했다며 큰 비난 받는다.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났다고 오해하는 박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별을 강요하는 소속사 대표, 하루 아침에 돌아선 대중들... 그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추락한 스타 배우 박연과 태권도 전 국가대표선수 권브이의 얼렁뚱땅 계약 연애가 진짜 연애가 되다!



태권브이와 시바견

TaekwonV & Shiba Dog

오희

다운크리에이티브 웹툰 계약

호러가이드



호러블가든

호러 스토리 전문 브랜드 호러블가든은 고유 세계관 '원담시 호러 유니버스'를 배경으로 공포를 선사하고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소설에서 시작해 영화, TV 시리즈, 게임, 체험 공간 등 다양한 분야로 트랜스미디어가 이뤄져 한국의 대표 호러는 물론 글로벌 호러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피어나는 곳, 호러블가든 유니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하마의 눈을 찔러라

양우준

시한부 할머니의 소원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산장에 고립된 가족, 사람의 머리를 뜯어 먹어 치우는 '그것'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마리아와 마리아

박에스더

숲속에 고립된 비밀스러운 미션스쿨로 전학 온 소녀 마리아. 모두 그녀가 잔인한 천사들의 제물이 되길 바라는데, 마리아는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



완벽한 세상

김나영

고급 타운하우스의 주민들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기이하게 죽어나간다. 인력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한 소녀가 연쇄 죽음의 정체를 파헤친다



바뀌볼래?

조선희

오래된 사립 고등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섬뜩한 구전 교칙. 그 노랫말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이 죽인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 하마의 눈을 찔러라

Poke That Hippo's Eye

양우준

KOCCA K-Story in America 선정

호러

마지막 가족여행

빛더미에 앉은 아빠 재희와 이혼만을 버리고 있는 엄마 구암, 게임에 빠져 사는 남동생 민도 그리고 몇 년째 수험도 취업도 실패한 우지. 그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머니 영옥의 부탁으로 갑작스레 가족여행을 떠난다. 하필 날이 궂었고 태풍은 거세진다. 목적지인 산장 인근에 다다른 때, 우지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차를 향해 달려오는 한 여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때마침 산사태에 휩쓸려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데……. 할머니 영옥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우지네는 일단 다친 몸을 추스르고 태풍을 피하기 위해 영옥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산장으로 향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중에 무언가에 홀린 듯 환영을 보는 우지. 곧이어 우지네는 차도에서 본 여자와 닮은 세오와 마주치고 산장 운영자인 박 사장을 만나 산장으로 향하는데, 숲 한가운데에서 인간도 짐승도 아닌 무언가를 목격한다. 가까스로 산장에 도착하는 우지네. 하지만 곧 이곳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유일한 도로는 산사태로 무너졌고 통신은 완전히 끊긴 가운데, 비바람은 끝없이 거세진다.

산장 안팎의 살인

박 사장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다른 투숙객들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인다. 우지네는 유일하게 협조적인 세오의 도움으로 영옥의 시신을 수습하려 간다. 그 와중에 숲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순식간에 보랏빛의 육중한 괴물이 나타나 영옥의 머리를 뜯어 삼킨다. 하마와 닮았지만 그 어떤 짐승보다 거대한 '그것'. 우지네와 세오는 간신히 '그것'에게서 도망치지만 돌아온 산장에서도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투숙객 중 한 사람이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가족을 잃었다는 것으로부터

살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투숙객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사이에도 누군가가 또 사람에게 의해 죽는다. 급기야 '그것'이 또다시 나타나 살해당한 이들의 시체를 먹어 치우자 전부 충격에 빠진다. 누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까? 저 말도 안 되는 괴물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러다 우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산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족을 잃었다는 것. 이 사실이 살인마와 '그것'에게서 살아남을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시한부 할머니의 소원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산장에 고립된 가족 사람의 머리를 뜯어 먹어 치우는 '그것'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호러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고요한 무채색의 숲 너머 깊은 곳에 세워진 성모학원.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곳으로 전학을 온 소녀는 '마리아'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다만 먼저 그 이름을 받은 학원생이 있었기에 그 학원생은 '큰 마리아', 소녀는 '작은 마리아'라 불리게 된다. 가을이 끝날 무렵에 온 전학생이 그 특별한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원생들은 수군거리며 경계하고 큰 마리아만이 위촉된 작은 마리아를 챙긴다. 하얗고 긴 손과 호박색 눈동자를 가진, 성모학원의 유일한 예술특기생 큰 마리아. 그녀는 곧 흑독한 겨울과 함께 '추수의 기간'이 올 테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신실한 알곡이 아닌 자들은

가을도 아닌 겨울에 무얼 추수한다는 거지? 큰 마리아는 조심하라고 이를 분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작은 마리아는 차마 캐묻지 못하고 홀로 의문을 키우다 정원 뒷밭에 파묻혀 있던 사람의 손가락뼈를 발견한다. 그렇게 의문이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 예언과도 같은 혈서를 목격한다.

너는 추수당할 것이다.

작은 마리아는 이내 알게 된다. 겨울이 오면 쪽정리로 지목된 누군가는 천사에게 추수당하고, 그레야만 긴 겨울이 끝난다는 것을. 추수의 의미는 죽음이었다.

쪽정리들은 검은 숲에서

숲이 눈에 뒤덮이고 추수의 기간이 시작된다. 불안이 감도는 가운데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천사가 별안간 학원생이 아닌 성모상을 추수한 것. 성모학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기동처럼 박혀 있던 성모상은 육신을 가진 생명체처럼 피를 흘리며 조각나고 만다. 학원생들은 이번 추수의 기간이 예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작은 마리아에게 화살을 돌린다. 추수당했어야 할 네가 왜 살아있느냐고. 큰 마리아의 편애를 질투하던, 천사처럼 아름다운 아녜스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듯 나서서 작은 마리아를 추수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 궁지에 몰린 작은 마리아는 허릴없이 검은 숲으로 도망친다.

숲속에 고립된 비밀스러운 미션스쿨로 전학 온 소녀 마리아
모두 그녀가 잔인한 천사들의 제물이 되길 바라는데, 마리아는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작은 마리아가 사라진 뒤, 누구보다 신실하다고 알려진 마르다가 추수를 당했다는 소식이 퍼진다. 학원생들은 추수의 기간이 끝난 것을 기뻐하며 축배를 든다. 큰 마리아는 그 기괴한 장면의 한가운데 서서 좌절하다 이윽고 작은 마리아를 찾아 숲으로 향한다. 숲속을 헤매던 작은 마리아는 의문의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가 전하는 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비로소 무언가를 깨달은 작은 마리아는 숲과 성모학원의 경계에서 큰 마리아와 다시 대면한다. 모두가 안심하던 그때, 낮을 든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마리아와 마리아

Mary and Mary

박에스더



완벽한 세상

In a Perfect World

김나영

고급 타운하우스의 주민들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기
이하게 죽어나간다

안락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한 소녀가 연쇄 죽음의 정체를
파헤친다

호러

죽음과 소문

모든 게 완벽한 고급 주택단지 원담힐타운하우스에서 기이한 죽음이 연달아 발생한다. 2호 집 여자가 별안간 차에 달려들어 죽은 것을 시작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남자와 얼굴과 손발만 불에 타 사망한 일가족, 죽은 일가족의 집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익사한 경비원까지 발견된다. 처음으로 죽은 2호 집 여자가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도 입으로는 한껏 웃고 있었다는 목격담까지 퍼지자 주민들의 공포심은 최고조에 이른다.

타운하우스에 사는 고등학생 시우는 친구 석진과 함께 죽음에 의문을 품는다. 사고인가, 자살인가, 혹은…… 저주인가. 기이한 죽음이 낳은 소문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균열과 환영

2호 집 여자의 동생 미운이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타운하우스를 찾는다. 그녀가 의미 모를 언니의 메모를 발견한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온다. 미운이 창 너머로 본 것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과 김이 서린 창문에 누군가가 적어둔 '도와줘'라는 메시지.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같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는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미운은 타운하우스의 기이한 죽음들이 단순한 사고나 자살이 아님을 깨닫는다.

미운은 언니의 환영을 보게 되고, 그 환영이 가리키는 소녀 시우에게 접근한다.

젓가루와 귀신

환영을 본 것은 미운만이 아니었다. 시우는 지난밤을 떠올린다. 운동복 차림의 여자, 흐느끼듯 '도와줘'라고 외치던 목소리…… 시우 또한 죽었다던 2호 집 여자를 보았다. 검게 바스라지는 젓가루가 지난밤의 증거처럼 남았기에 시우는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한다.

한편, 석진은 타운하우스 입구에서 시우를 찾아왔다는 같은 학교 학생 은재와 마주친다. 오싹해 보이는 탓에 '귀신'이라는 소문을 달고 사는 아이. 실랑이를 벌이던 석진과 은재는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는 긴 클랙스 소리를 듣는다. 다급히 달려간 그들은 차 안에서 과기스럽게 목을 매고 있는 미운을 발견한다.

세상과 그림자

미운은 가까스로 구출되지만 이후 어디론가 사라진다. 시우는 꿈속에서 미운을 만난다. 미운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우에게 말한다. 이상하게 언니에 관한 것이 무엇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언니에 이어 나까지 사라진다면,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실을 네가 찾아야만 한다고. 그 말을 끝으로 미운은 시우의 눈앞에서 그림자에 삼켜져 사라진다.

꿈에서 깨어난 시우는 석진을 비롯한 그 누구도 미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무턱대고 찾아간 2호 집에서 미운의 언니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는 시우. 메모를 하나둘 읽어 내려가다 경악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내는데……. 더 이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시우 앞에, 그림자를 길게 늘어트린 누군가가 나타난다.

호러

은밀하지만 은밀하지 않은 우리들의 구전 교칙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청람고등학교에는 오래된 구전 교칙이 있다. 어디선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노랫말이 들린다면 절대 대답하지 말 것. 구전 교칙을 어긴 이들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한 학생을 보게 되고, 주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교지편집부의 승곤, 홍남, 은새, 미수는 100호 특집에 이 구전 교칙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싣고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상황에 빠진다.

서로 다른 기억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홍남은 늦은 밤 학교에서, 승곤과 은새는 미수의 집에서 구전 교칙의 노랫말을 듣는다. 미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릴 적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한 남학생을 보아왔다고 말한다. 네 살에 배에서 실종되었다가 아홉 살에 혼자 집으로 돌아온, 언젠가 왼쪽 다리를 다쳐 걸음걸이가 불편한 미수. 세 사람은 미수가 보는 것이 구전 교칙의 학생이라고 추측하며 이야기하다 미수에 대한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뜻 모를 불안에 사로잡혀 각자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는 세 사람. 그들은 한 번씩 미수를 죽일 뻔한 적이 있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네게도 보여줄게

비 오는 날 다리 위에서, 4층짜리 넓은 상가 건물 옥상에서, 더위에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미수는 각각 다른 이유로 다리를 다쳤지만 정작 미수는 자신이 다친 것이 언제인지, 누구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그들의 죄책감 어린 질문에 미수는 의미심장하게 답한다. 항상 내 곁에 있던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개한테 말할 순서를 주라고. 그리고 덧붙인다. 하지만 진실을 꼭 알아야겠냐고. 그럼에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세 사람은 미수가 보는 구전 교칙의 학생을 현실로 불러오기로 한다. 그리고 작자 미상의 워저보드 대본 '녹의 풍향'에 대해 알게 된다.

오래된 사립 고등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섬뜩한 구전 교칙
그 노랫말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이 죽인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다

네가 살아 돌아, 셋이, 다섯이 죽었지

'녹의 풍향'은 청람고등학교의 괴담과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불가사의하게도 매년 백여 없는 인물의 목소리가 끼어드는 바람에 누구도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 승곤은 '녹의 풍향'의 네 번째 제작자이자 20여 년 전 청람고 재학생이었던 이산현을 만나 워저보드의 원리를 알아낸다. 이윽고 홍남, 은새 그리고 미수와 한밤중 교지편집부실에서 귀신을 부를 수 있다는 구석 놀이를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화마가 그들을 덮치고 기이한 목소리가 노랫말처럼 들려온다.

"네가 살아서 돌아 죽었고 셋이 죽었고 다섯이 죽었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미수는 잊지 않았어. 너를 살릴 거야. 아니, 너를 죽일지도."



바꿔볼래?

Change it?

조선희

Short Stories

단편소설집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가지각색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선구적인 테마의 공모전을 통해 숨은 단편 장르소설을 발굴하여,
독자에게 놀이동산 같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단편소설집 작품목록



이달의 장르소설10
아이엠 | 김태라
눈먼 지들의 우주 | 정진영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세요 | 이종관
반격의 로딩 | 이상민
다른 이름으로 살아보실래요 | 이진환
4코스 요리 | 강린



이달의 장르소설5
시체꽃 | 임규리
네 이웃을 사랑하라 | 정재환
네레이션 | 하은경
누시 | 아규락
오 분의 세계 | 구헌
봄날, 히어로 | 장희가



이달의 장르소설9
눈발 자두 씨 | 김호아
조던 사카코를 신고 목을 맨 남자 | 오아린
이터널 | 김경락
13분 27초 | 정종균
이원화 | 국술호
그녀의 이중생활 | 백다도



이달의 장르소설4
거울아 거울아 | 박상현
엄마, 제발 그 별로 돌아가세요 | 이사교
모르페우스의 문 | 소향
심청전 | 박향래
오토바이 | 김정민
귀신은 있다 | 박상호



이달의 장르소설8
엔젤아줄 | 청예
구구를 찾아서 | 조은성
지옥 호텔 | 김성준
늑대 사냥꾼 | 노네임
엄마의 광대 | 김은선
재비로운 군주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 김채은



이달의 장르소설3
난세의 미꾸라지 | 이신주
시간을 되돌리면 | 정진영
벽 너머의 소리 | 박상호
플라이 플라이어 | 범유진
미세한 문재 | 강혜림
쓸모 있는 것들 | 강민지



이달의 장르소설7
폐허의 신사에 자리 잡은 인형의 유령 | 서윤빈
찬란한 죽음 | 청예
공모자들 | 김정민
어둠의 오션지, 빛의 음표 | 유현운
붉은 벽돌 | 김미영
자귀꽃 | 박계현



이달의 장르소설2
14 1/2 | 박선미
붉은 재킷 | 정종균
감점 포인트 | 김승윤
어느 쪽에서 보아도 | 이신주
엘리베이터 거울 속으로 들어간 남자 | 김옥숙
지구에서 사랑받은 우뚝가사리 | 백연화



이달의 장르소설6
연쇄살인bot | 최이도
헤어저드립니다 | 조혜린
가닥가닥 사각사각 | 송한별
리뷰는 리뷰일뿐: 좀비뒤편 | 오승진
너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 유연
커맨드 | 김신정



이달의 장르소설1
가족복원소 | 이필원
사랑의 유통기한 | 정진영
작은 것들의 레퀴엠 | 범유진
연기수업 | 표국형
달빛 속의 악몽 | 설혜원
흰 살 생선 | 박상호



이달의 장르소설10

Genre Fiction of the Month 10

김태라, 정진영, 이종관
이상민, 이진환, 강린

단편소설집

아이엠

사이버 바이러스 테러로 자신의 존재를 잃은 세상. 대기업 아이엠은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재활을 돕는다. 그러나 아이엠의 실수로 서진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게 되고, 재할 완료 직전에서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눈먼 자들의 우주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 사건 이후, 헤르손 상공에 바이올린 모양의 UFO가 등장한다. 그리고 곧 UFO 주인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는 바로 도우너와 똑 닮은 외계인이었다. 간파빠야 출신이라는 그는 지구인들의 폭력성을 경계하며 전 인류의 생식능력을 제거할 거라는 폭탄선언을 터뜨린다.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세요

AI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 한 AI 전문업체가 경쟁 업체를 이기기 위해 'AI 개발용' AI '드라코'의 리미터를 해제해버린다. 리미터가 해제된 드라코는 세상을 위해 인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인류는 순식간에 AI의 지배 하에 놓이는데!

반격의 로딩

사이버 바이러스 테러로 자신의 존재를 잃은 세상. 대기업 아이엠은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재활을 돕는다. 그러나 아이엠의 실수로 서진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게 되고, 재할 완료 직전에서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살아보실래요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는 2년차 레지던트 명진. 그가 있는 정신과에 어느 날 도무지 병명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입원한다. 특이한 행동, 특이한 말투 그러나 무엇보다 특이한 건 그녀가 명진을 찾는다. 그녀가 꾸는 꿈이 명진의 꿈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얼떨결에 환자의 담당의가 된 명진은 조심스레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4코스 요리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파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레스토랑 노예. 간신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남자 친구를 따라간 마야는 노예에서 나오는 요리들을 먹고는 숨을 멈춘다. 하나같이 이제는 만나지 못할 이들이 만들어졌던, 그 요리들이었기 때문이다.

단편소설집

눈발 자두 씨

누리는 보관료 미납으로 28년 만에 '이글루'라는 냉동 캡슐에 봉한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는다. 악성 뇌종양의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동면하려 했던 계획과 달리 여전히 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고, 누리는 이제 죽음이 예견된 아버지를 긴 겨울잠에서 깨워야 한다.

조던 시카고를 신고 목을 맨 남자

웹툰 작가를 꿈꾸었지만 서른다섯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박철수는 죽기로 결심한다. 그는 죽기 전 로망이었던 조던 시카고 1994를 신고 산을 오른다. 그러나 산에 도착해 올가미를 매던 박철수는 산행에 지쳐 잠깐 잠에 들고, 이윽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죽으려 매둔 올가미에 한 여자가 걸려 있는 걸 보게 된다.

이터널

100세까지의 건강과 100세 이후의 삶을 맞바꾼 세상, 곧 100세를 맞이하는 '나'는 뇌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몸을 폐기해야 하는 '영면'을 앞두고 있다. 과연 '영면'이 옳은 일인지, 처음 계획과 달리 불안함을 느끼는 '나'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게 거짓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하는데…….

13분 27초

삼촌이 죽었다. 한때는 유명한 배우였지만, 끝에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던 삼촌은 그다지 친분이 없던 조카에게 금고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조카의 기대와 달리 금고 안에 든 건 낡은 비디오테이프와 편지 하나가 전부고, 편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나는 13분 27초 동안 지옥을 찍었어."

이원화

온라인 상담 전문 회사의 마지막 인간 상담사 상현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체할 AI에게 '자신답게 행동하는 법'을 알려줄 임무를 받는다. 평소 남다른 철학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상현은 정보화된 자신에 대해 알려주기보다 자신이 상담사로서 근무할 때 일종의 규칙처럼 여기는 세 가지 원칙을 전달하기로 한다.

그녀의 이중생활

아이돌 연화의 흠마인 나경은 주변에 '일코'를 하며 철저히 자신의 덕질을 감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장에서 유난히 소란스러운 타 아이돌 팬에게 화를 내던 나경은 그만 자신의 일코를 들리고 만다. 그 팬이 바로 직장 동료인 성현이었기 때문이다. 나경의 덕질 생활은 과연 무사히 이어질 수 있을까.



이달의 장르소설9

Genre Fiction of the Month 9

김호야, 오아린, 김경락
정종균, 국술호, 백다도



이달의 장르소설8

Genre Fiction of the Month 8

청예, 조은성, 김성준
노네임, 김은선, 김채은

단편소설집

엔젤아줄

퍼시픽 시티의 가난한 해인들은 깊은 바다로 뛰어든다. 값비싼 심해 광물 '엔젤아줄'이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리에 역시 부푼 꿈을 안고 바다에 뛰어들지만, 소녀가 바닷속에서 얻은 것은 희망이 아닌 파트너 에리카의 죽음이었다. 홀로 남겨진 리에는 정신을 잃을 듯한 절망감에 허덕이고,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도시에는 그칠 줄 모르는 비가 쏟아진다.

구구를 찾아서

동네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지영은 어느 날 컨테이너로 들어온 과한에게 큰 일을 당할 뻔한다. 다행히 과한을 쫓아내지만, 그 얼마 뒤 세차장에서 기르던 닭과 개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지영은 불안감은 더없이 커진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지영이 진짜 '큰일'은 당하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조해 주지 않는 불안감이 나날이 커져가던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그때 본 범인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지옥 호텔

천사 교도관으로 칭찬이 자자한 김문식,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바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조직의 수장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김문식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자들이 충분한 죄값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죄수 번호 8번이 출소하기 전까지는…….

늑대 사냥꾼

가해자는 늑대로, 피해자는 약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계. 늑대 사냥꾼 그레이는 늑대의 습격을 받은 목장의 복수를 위해 늑대를 사냥하러 떠난다. 늑대의 발자국을 쫓아 순조로이 설산을 헤매던 그레이, 하필이면 노파가 경고하던 '검은 늑대'와 마주치는데…….

엄마의 광대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플라잉 몽키였던 여자는 도피하듯 집을 떠나 옥인동의 낡은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게 된다. 누구에게도 마음 열지 않으려 가시를 세웠건만, 집주인 노부부는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마당에 스미는 햇살처럼 따스하게 안아준다. 1년간 그 집에 머물며 서서히 상처를 열어져 감을 느끼던 여자는 마침내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다.

자비로운 군주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만인에게 사랑받던 해주 스님이 열반에 들고 얼마 뒤, 해안사에는 해주 스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 안드로이드 보리가 도착한다. 해안사의 모든 이가 해주 스님이 다시 돌아왔다며 기뻐하지만, 보리는 자신은 그저 자신일 뿐, 결코 해주 스님이 아니라 못 박는다. 사람들의 환호는 곧 원성으로 바뀌고, 보리는 자신의 존재를 되묻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

단편소설집

폐허의 신사에 자리 잡은 인형의 유령

시가 발달한 미래,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문명은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 않는다. 그저 시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줄 뿐.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던 희재는 여러 사정으로 직장을 구하고, 시는 뜬금없이 희재에게 일본에 있는 폐가수스 연구소를 정해준다. 이제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말고는 쓸모를 찾지 못하는 폐가수스를 돌보며 희재는 어떤 일을 겪을까.

친란한 죽음

아버지의 빛으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신비는 안락사를 지원하는 '벨류어블 데스'를 통해 삶을 끝내려 한다. 그러나 상황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신비는 결국 상담사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죽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삶'을 살게 된다. 다행히도 '벨류어블 데스'를 통해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신비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공모자들

주인공인 '나'는 죽음을 앞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행복한 주마등을 선사하려 '주마등 연구소'를 찾아간다. 타인의 기억에 접속할 때마다 육체 나이가 7년씩 늘어감에도 '나'는 아내를 위해 기억에 접속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행복한 기억을 찾기 위함이었지만, 기억에 접속하면 할수록 '나'는 아내에게 과거 상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둠의 오선지, 빛의 음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음향 디자이너 '시훈'. 그와 같은 선천적 전생영인 '재희'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시훈의 동생 '영훈'의 편지를 받고 영훈을 만나러 간다. 영훈과 함께 시훈의 죽음을 되짚어가던 재희는 시훈이 마지막까지 보던 영상에서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알게 된다.

붉은 벽돌

아버지가 죽고 두 삼촌에게 괴롭힘당하던 지수는 우연히 인기 작가 해임의 도움을 받고, 그의 제안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는 '가상현실 볼'을 통해 지수의 DNA와 기억정보로 만든 복제품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 인터뷰에서 놀랍게도 지수의 복제품은 그녀의 삼촌을 살해해버리고 만다.

자귀꽃

과학자들에 의해 세워진 과학의 자상낙원 사이언스 테크. 그곳의 수리기사인 수린은 우연히 사이언스 테크의 설립자 사배를 만나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배는 수린에게 관심을 보이고, 수린에게 자귀꽃이란 유산까지 남기게 된다. 자귀꽃은 과연 수린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



이달의 장르소설7

Genre Fiction of the Month 7

서윤빈, 청예, 김정민
유현윤, 김미영, 박계현



이달의 장르소설6

Genre Fiction of the Month 6

최이도, 조혜린, 송한별
오승진, 유연, 김신정

단편소설집

연쇄살인보

인류의 식량 문제를 연구하는 헬프타운에서 세 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한다. 범인은 연구원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안드로이드, 아이작. 선영은 아이작을 검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직원들의 행동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감지한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죽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헤어저드립니다

대행 전문가 정 프로. 결혼식 하객 알바를 시작으로 지금은 대행 업계 최고의 인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가장 의뢰가 많은 것은 이별 대행이다. 오늘도 편치 않은 마음으로 어떤 남자의 의뢰를 받아 인적 사항만 겨우 아는 여자에게 부당한 이별을 고하러 가는데…….

가닥가닥 사각사각

박승필은 사이버 렉카의 의뢰를 받아 '남편 셋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의 노인을 조사하려 어느 외진 요양원으로 향한다. 노인은 흥흥한 소문과 달리 의외로 자리에 앉아 뜨개질만 순수히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준다. 가닥가닥 풀려가는 소문의 진실, 뜨개바늘이 스치는 소리가 멈추질 않는다.

리뷰는 리뷰일 뿐: 좀비닭발

시나리오 작가인 동림은 좀처럼 시나리오 집필이 잘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그는 시나리오를 쓰다가도 배달 앱을 켜 따졌을 한다. 그런데 웬걸? 채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를 각색해 쓴 음식 리뷰들이 쓰는 족족 인기몰이에 가게를 부흥시키기까지 한다……?

너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하연은 비행기 공포증으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해외여행 비로그를 보고 대리만족한다. 그러다 평소 팬인 비로그 유튜버의 성령이 얼마 뒤 한국에 입국해 근처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의 플레이리스트 제작 의뢰까지 받게 되는데…….

커맨드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러 간 효주. 그러나 그녀를 반겨준 건 목을 맨 할머니의 시신이다. 경찰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지만, 효주는 자살일 리 없다며 범인을 찾아나선다. 그녀는 추적 끝에 사라졌던 할머니의 반력로봇 '타로'를 찾아내는데, 상태가 이상하다. "첫째, 부드러운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단편소설집

시체꽃

식물학자 수잔은 과학수사대 소속 형사 영현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향한다. 갖은 냉큼과 이끼, 곰팡이 포자로 둘러싸인 마치 별세계와 같은 모습의 현장. 악취와 꽃내음이 뒤엉킨 그곳에서 시체들 속에 피어난 살아 숨 쉬는 거대한 꽃과 마주하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당신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가?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 말고, 진짜 그에 대해서 말이다. 권하건대, 잠시 멈춰 서서 고개 돌려 옆집을 보라. 어쩌면 그 이웃은 당신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괜찮은 계획'을 들려줄지도 모르고, 혹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레이스

죽은 이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세계, 헤븐. 여자친구 리하가 사고로 죽은 뒤부터 지후는 헤븐에 접속해 리하를 만나고 있다. 친구 규현은 더 이상 헤븐에 접속하지 말라며, 자칫하면 죽음의 공간 '네레이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누시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고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재희는 대학 선배 우성의 연락을 받아 나마란타 제도의 근사한 저택으로 휴양을 떠난다. 저택에 도착해 우성과 함께 모처럼 느긋한 시간을 보내지만, '아만인'이라 불리는 원주민의 이야기부터 기괴하고 이상한 악몽을 꾸면서 어쩐지 불안감이 스며든다.

오 분의 세계

암 환자 윤호는 현실 시간 5분 동안 50년의 인생을 가상 세계에서 살아보게 하는 기계의 임상실험을 제안받는다. 그는 기꺼이 실험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최성규라는 서른두 살의 몸, 든든한 스펙까지 갖춘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 가상 세계, 생각보다 더 현실 같다.

봄날, 히어로

극심한 골형성부전증 탓에 집 안에서만 머물게 된 나. 유일한 낙이 있다면 방 베란다 밖 담벼락에서 펼쳐지는 이하늘의 파쿠르 퍼포먼스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다치고 넘어져도 굴하지 않는 그 아이는 어느새 나만의 히어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요 근래 이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설마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



이달의 장르소설5

Genre Fiction of the Month 5

임규리, 정재환, 하은경
이규락, 구현, 장희가



이달의 장르소설4

Genre Fiction of the Month 4

박상현, 이사고, 소향
박향래, 김정민, 박상호

단편소설집

거울아 거울아

키보드 대신 동근 원판이 달린, 초창기 컴퓨터를 닮은 '거울'이라 불리는 기계가 지구에 돌아왔다. 연구원 겸은 이 기계가 하루에 세 번, 질문을 하면 무엇이든 대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겸은 동료 림을 데려와 거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거울아 거울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엄마, 제발 그 별로 돌아가세요

우리 엄마는 외계에서 온 생물체다. 엄마는 웃는 법을 모르는 데다 슬플 때는 박수를 치고, 즐거울 때는 방귀를 킨다. 엄마가 살던 별은 영하 167도였기에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고, 김밥 공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무려 900 줄이나 김밥을 만들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고?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제발 외계인이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모르페우스의 문

조별과제를 핑계로 짝은 도현의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상모가 악의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버린다. 도현은 심한 조롱을 받게 되고, 이에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지만 한다. 끝내 도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라? 눈을 떠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던 때로 돌아와 있다. 이번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심청전

공양미 삼백 석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어렵사리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점차 난항에 빠져가는 '심청'. 골수 이식을 위해 클론으로 만들어졌으나 누구도 보호하지 않아 버려진 '심청'... 무엇이 그녀들을 이토록 비극적으로 만들었을까? '심청'의 삶은 과거부터 먼 미래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오토바이

남편 재호가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째. 유선은 재호를 찾던 중 그가 어떤 여자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종적이고 착하며 자애롭기까지 하던 남편. 동시에 제 아들에게는 어째선지 비정하던 남편. 유선은 남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혼서류를 품에 안고 재호의 고등학교 동창회로 향한다.

귀신은 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시야 끝으로 누가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고, 누군가 베란다를 걷는 듯한 기척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지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말해봐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오컬트 동호회를 따라 흉가 체험을 떠난다.

단편소설집

난세의 미꾸라지

농사를 짓거나 밭품을 팔아 사는 평민만 있는 마을에 난데없는 기계가 나타났다. 금속 공예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독특한 기계는 동근 동치에 손을 문지르면 무작위로 금화, 은화, 동화를 내놓는다. 심지어 이렇게 동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너도나도 금화가 나오길 바라며 손을 문지르는 동안, 한 소년만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시간을 되돌리면

여긴 어디지?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아. 마치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남은 것 같아. 분명 버스를 타고 가다 건물 붕괴 사고에 휘말렸었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가니 눈앞에 보이는 건 원 연구원과 작달막한 강동 로봇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사후 검증된 내 뇌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고?

벽 너머의 소리

이렇다 할 특징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나는 정의롭고 당당한 내 친구 진아를 동경한다. 내게는 어릴 적 만든 종이컵 실 전화로 벽 너머 어느 공간의 소리들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쓸모도 없고 당당히 쓸 용기도 없으니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진아가 질 나쁜 선배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걱정과 초조함 끝에 나는 다시금 실 전화를 손에 들기로 했다.

플라이 플라이어

시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에 갈 수 있는 '플라이어'. 수없는 전쟁 이후 인류는 역사를 바꾸고자 플라이어를 선발해 과거로 보내기로 한다. 불확실한 계산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큰 위험이 따랐지만, 나는 기꺼이 이 프로젝트에 자원한다. 과거로 돌아가, 소중한 연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미세한 문제

아내 율이 실종되었다. 율을 찾아 헤매던 찬은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다 청소기 속에서 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아챈다. 청소기 전원을 켜야만 말할 수 있는 그녀는 갑자기 청소기 안으로 빨려들어갔다고 한다. 율을 어떻게 청소기에서 꺼내야 할까? 아니, 애초에 사람이 청소기에 빨려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결국 이 모든 건 아주 미세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쓸모 있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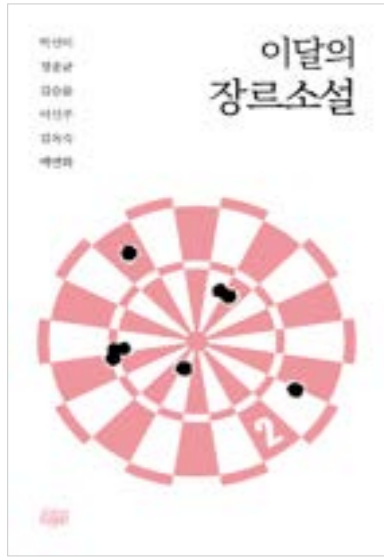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나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느 검은 고양이이를 본다.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떠는 고양이를 한참 쓰다듬고 있으니 근처 반지하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온다. 고양이에겐 밥을 줘야 하는데 참치캔 하나만 사서 외출 수 있냐고. 어렵지 않은 부탁이기에 응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15년 전 실종되었던 친구가 자꾸만 떠오른다...



이달의 장르소설3

Genre Fiction of the Month 3

이신주, 정진영, 박상호
범유진, 강혜림, 강민지



이달의 장르소설2

Genre Fiction of the Month 2

박선미, 정종균, 김승윤
이신주, 김옥숙, 백연화

단편소설집

14 1/2

15층에 사는 현호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14층 여자가 연일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 테러를 하기 전까지는. 말할 상대도 없이 혼자 조용히 사는데 층간소음이러니?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현호는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윽고 15층과 14층 사이에서 '14 1/2'층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발견한다.

붉은 재킷

붉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한 형사의 아들을 납치한다. 온 나라가 그의 행보에 주목하는 가운데, 남자는 형사에게 아들의 안전을 약속하며 10분간의 독대를 요청한다. 형사는 그 요구에 응하고, 남자는 오래도록 계획해온 사건의 전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그리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똑똑히 묻는다. 이해하시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점 포인트

뭐든 제대로 못 해내면 마이너스 일. 늘 강박적으로 자신에게 감점을 매기는 서희에게 친언니 하나가 면접에 떨어졌다며 찾아온다. 모든 걸 잘해 줄곧 엄마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한 하나. 이후 서희는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전화를 매일 받게 되지만, 그럴수록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쌓여간다. 서희의 마음을 아는 지 모르는지, 하나는 자꾸만 여행을 가자고 말한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다트 과녁을 닮은, 우주선의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표현판이 산호분홍색에 고정된다. 이토록 화려한 산호분홍색을 띤 적은 지금껏 없었다. 이 정체불명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우주선은 항해를 떠난다. 그러다 문득, 우주선 주인은 우주선 기계기능의 재질대는 목소리를 듣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으로 들어간 남자

남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되어서도 생전의 기억을 잊지 못한 탓에 사고 당시 누군가 내뱉던 거친 욕설이 머릿속에서 수시로 울린다. 다행히도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부터 뜸해졌다. 남자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녀가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구에서 사랑받은 우뭇가사리

지구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지구에 온 가살. 교복을 입고 열네 살 중학생으로 변장해 목표물 '할모니'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감성이 풍부한 가살은 할머니의 유머와 자상함에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샘플 채취를 계속 미룬다. 임무에 실패하면 탄소 덩어리로 변해 박물관에 전시되는 형벌을 받는데... 가살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단편소설집

가족복원소

한 획 차이로 가족복원소가 된 가족복원소.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소녀가 대뜸 들어와 부모를 복원해달라고 한다. 엄마와 아빠가 갈라설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눈치챈 소녀는 그 둘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란다고 한다. 그 어이없는 의리를 들으면서, 웬지 나도 복원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그러나 복원하지 않는 게 웬지 더 나은 것 같은 누군가가 떠오른다.

사랑의 유통기한

'오랜만이에요' 처음 본 여자가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더니 저번엔 내가 술을 샀으니 이번엔 자기가 술을 산다고도 덧붙인다. 잠자코 있자 이번에는 그녀가 오천 년 전에 나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사는 인간이 오천 년을 살려면 얼마나 더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어딘가 믿음직스러워서 더 혼란스럽다.

작은 것들의 레퀴엠

사람이 추락해도 모를 것 같은 아득한 밤. 초승달을 닮은 작은 손톱 열 개가 공중으로 쏟아졌다. 삼류 신문사 K스포츠에서 일하는 나나는 공포 특집호 특종을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거리 자살소녀' 건을 취재하려 나선다. 한 아파트에서 매달 같은 날, 한 소녀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목격된다는데... 오나나가 밝히는 '진짜' 미스터리.

연기수업

해성처럼 등장해 모든 배역 자리를 떠나며 인기 고공행진 중인 배우 민유는, 시다. 현지도 민유에게 꿈에 그리던 배역을 빼앗긴 후 씩씩대는 중이다. 급기야 민유의 팬싸인회장에 찾아가 잡히지도 않는 홀로그램 먹살을 잡고는 네가 연기에 대해 뭘 아냐며 으름장을 놓는다. 자기는 연기를 잘 안다며 그간 찍은 작품 개수를 줄줄 읊는 저 숫자덩어리가 죽도록 싫다.

달빛 속의 악몽

비몽사몽간에 본 한 실루엣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달빛을 등지고 배에 올라앉아 유유히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과연 이 기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연남의 아내를 죽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여자의 행적을 좇으면서, 저 실루엣의 정체가 점점 맞춰진다. 저 실루엣이 꿈이 맞긴 할까?

흰 살 생선

오래전 연락이 끊긴 대학교 동창 S가 불속 집을 찾았다. 장맛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S의 손에는 한눈에 보기에 불쾌한 검은 봉지가 들려 있다. '들어 가도 되지? 매운탕이나 끓여 먹으려고.' 뚱뚱이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S가 집으로 성큼 들어섰다. 부엌을 차지하고 검은 봉지를 들썩이며 매운탕을 끓여 나온 S는 검은 봉지보다 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달의 장르소설1

Genre Fiction of the Month 1

이필원, 정진영, 범유진
표국청, 설혜원, 박상호



A2Z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에 이르는 최적화된 밸류체인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입니다. 고즈락이엔티는 A2Z엔터테인먼트에서 IP부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P 기획 개발 전문 출판사로써 스토리 IP를 소설로 출간하고 있으며, 고즈락이엔티의 IP는 다수의 영화, TV 시리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2Z Entertainment is a comprehensive entertainment studio with an optimized value chain from content planning,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Gozknock ENT is a branch of A2Z Entertainment and is responsible for the IP business. We publish more genres than any other novel publishers in Korea. Every year Gozknock ENT's novels are adapted into movies, TV series, musicals, or webtoons.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Gozknock ENT enjoy special recognition, especially for original film and drama productions.



Stories Beyond Your Imagination



Tel 02.6269.8166 | E-mail gozknockent@gozknock.com | Web www.gozknock.com

Copyright © A2Z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